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저소득층으로서 장기 또는 단기적으로 가정이 실업상태에 빠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의 청소년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는 연구이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이란 기존의 저소득 계층에 속한 청소년 가운데 특히 최근에 실업에 처해 있는 가정의 청소년이며, 이들은 청소년이라는 연령에서 오는 경제적 의존성과 함께 가정의 빈곤과 실업상태에서 비롯되는 생활의 불안정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의 실업률이 1997년 8월의 2.1%에서 1998년 8월에는 8.1%로 증가하는 등 IMF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실직자가 양산되면서 실업의 고통이 더욱 심각한 계층은, 정부가 실업대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고용보험이나 몇 개월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는 명예 퇴직에도 해당되지 않는 도시저소득층들이다. 이들은 종전부터 실업과 취업의 경계가 불분명했을 뿐 아니라 고용보험, 퇴직금, 각종 연금 등에도 해당되지 않는 불안정 고용층이다. 이들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약 600만명으로 추산되며, 낮은 학력과 기술로 경제 불안정 시대에는 더욱 고통을 받아왔다(김수현, 1999).

이러한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들은 가정이 속한 구조적 빈곤과 실업상태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적인 불안마저 경험하고 있는 집단들이다.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나 직업과 같은 다양한 부분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

제적 욕구,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인간관계에 의한 욕구, 그리고 성역할이나 가치체계의 형성을 위한 욕구가 분출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시기이기도 하다.

일반청소년에게도 해당되지만, 특히 저소득층청소년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첫째, 주거, 의료, 생활에서 최소한의 조건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경제적 욕구이다. 둘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길 원하는 교육 욕구이다. 셋째, 새로운 인간관계의 확장, 동일시, 가치관 확립 등과 관련된 사회관계 및 지지에 관련된 욕구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한 자신의 미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익히고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누릴 욕구이다(노혁, 1998: 29-30).

그 동안 이러한 범주의 청소년에 대한 도움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실시되거나 또는 소년소녀가장,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생업자금지원과 직업훈련, 학비를 포함한 교육보조, 그리고 의료보조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문화관광부나 노동부에서는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운영사업과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등과 같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저소득 청소년을 아동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거나,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인식하여 예방적 복지의 관점에서 실시되어 그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전체적인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정부통계가 발표되기는 했지만 저소득층의 실업상태가 장기적인 현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점들과 지원대책은 시급하다고 보여진다.¹⁾

1) 한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빈곤문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은행(IBRD)이 1999년 12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우리 나라의 연구는 저소득가정에 속한 청소년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모자복지, 가족복지적 관점에서 빈곤가족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의 연구와 빈곤층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다룬 연구, 빈곤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환경 특성 및 실태에 관한 연구, 빈곤청소년에 대해서 위험-보호요소 상호 모델에 입각해 경험적으로 논증한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빈곤층 청소년간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나 행동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빈곤층 청소년들을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여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 복지정책을 모색하지 못한 점이 있다(조홍식, 1999 : 58).

이에 반해 조홍식(1999)과 노 혁(1998)의 연구는 빈곤가족 연구가 아닌 청소년에 대한 연구로서 빈곤층 청소년 개개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또한 빈곤층 청소년을 계층별 단일범주로 획일화하기보다는 빈곤층 내에서도 개개인마다 사회적 가치의 수용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범주로 보고 그러한 다양한 범주에 따른 정책 과제를 제시하

월 7일(현지시각) 밝혔다. 세계은행은 '2000년 세계경제와 개발도상국 전망'보고서를 발표, 한국의 경우 지난 97년 9%에 그쳤던 도시빈민 인구가 98년에는 배가 넘는 19%로 급증하는 등 빈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하루 소득이 4달러(약 4500원)가 안 되는 도시가구 비율이다.(조선일보 : 1999. 12. 8.)

도시가구 소득상위 20%의 자가용구입, 유지비, 잡비, 교양오락비 등 3가지 소비지출액은 하위 20%의 소비지출 총액과 같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5.3배에 이르렀고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인 97년 3.4분기의 4.5배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동향'을 통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20%씩 끊어 모두 5개 분위로 나누었더니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235만9천300원으로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의 83만200원에 비해 2.8배였다. 이에 따라 5분위의 자가용 구입, 잡비, 교양 오락비 등 3가지 항목을 합한 금액은 81만4천100원으로 1분위의 소비지출 총액인 83만원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조선일보 : 1999. 10. 18.)

고 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심층면접을 통해 저소득층청소년의 실태와 욕구를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그 연구대상이 10개의 사례 또는 20개의 사례에 불과해 빈곤층 청소년들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생활실태 및 의식 그리고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과 안산, 성남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3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일반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실태와 욕구를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서울 중산층 지역의 일반청소년 2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하였다. 경제적인 빈곤상태에 있는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더불어 실업이후에 더 심화된 생활의 어려움과 실태,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등의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사회, 문화, 심리, 가치지향적 복지지원의 종합적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실제 저소득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들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실업가정의 특성과 청소년문제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 문제, 즉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나 의식 그리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기에 앞서 우선 저소득가정 실업,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정의한다.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와 현장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경제적, 교육적, 사회심리적, 문화적 생활실태와 욕구를 살펴본다. 또한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을 알아보고, 청소년들이 이 과업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환경에 대해 생태체계적 관점과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생태학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나아가 인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중 청소년에게 가장 비중이 높은 환경인 가정을 중심으로 실업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둘째, 정부 각 부처와 사회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기존의 복지지원방안과 IMF이후 시행되고 있는 실업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다.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정부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복지지원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지원형태를 알아 보고 이에 더해서 IMF이후 저소득 실업가정과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여러 사회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그 형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생활환경, 심리사회적 상태와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등을 파악하고, 그들이 갖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와 문제 등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치관 및 장래와 주위환경에 대한 인식', '학업과 진로', '가정생활 및 IMF이후의 변동사항', '시간활용 · 고민거리 및 정보화 실태', '개인신상' 등 5가지 영역으로 설문지를 구성 조사하여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한 후 저소득층청소년만을 심층적으로 재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들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경제적, 교육적, 심리사회적, 문화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연구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주도적인 연구방법으로 채택한다. 그 외에도 문헌연구와 전문가자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1) 문헌연구

저소득층 청소년과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기존 논문, 조사연구, 관련 언론기사 등을 수집, 분석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과 생활여건 그리고 실업상태로 인해 심화된 생활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저소득실업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2) 전문가 면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태파악과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위해 저소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학계, 실무, 정책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다.

3) 설문조사

문헌연구와 현장전문가와의 면담을 거쳐 작성한 질문지를 통해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그리고 문제 등을 파악한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생활실태 및 의식 그리고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과 안산, 성남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청소년 3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일반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실태와 욕구를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서울 중산층 지역의 일반청소년 2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저소득층 실업가정 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의 복지관과 공부방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응답결과가 이러한 기관의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다른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의 경우보다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예측하여 동사무소와 구청의 보건사무소 등으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생활보호대상자의 명단을 얻어 우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우편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이 우편에 응하지 않은 다른 청소년에 비해 긍정적인 사고와 정서를 지닌 청소년일 수 있으므로 본 조사가 제시하는 저소득층청소년의 모습은 실제 우리 나라의 평균적인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나 욕구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이 전국적인 표본이 아니고 서울과 수도권의 위성도시

인 성남과 안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지 못했다.

셋째,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초·중·고등 학생을 골고루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고 또 응답기피로 인해 고등학생의 비율이 낮아 일반청소년과의 비교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가 갖는 한계성으로 인해 면접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실태와 욕구 그리고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점은 선행 연구와 관련기관의 사례집에 실린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보완하려 했다.

II. 이론적 고찰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 문제 즉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나 의식 그리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기에 앞서 우선 저소득과 실업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선행 연구와 현장보고서를 통해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경제적, 교육적, 사회심리적, 문화적 생활실태와 욕구를 살펴본다. 또한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을 알아보고, 청소년들이 이 과업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환경에 대해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생태학 이론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중 가장 직접적이고 비중이 높은 환경인 가정을 중심으로 실업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의 개념과 범주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우선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그 범주를 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가정, 실업, 청소년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대해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자 한다.

1) 저소득가정의 개념과 범주

저소득층은 소득계층 구조에서 하위를 점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일반

적으로 저소득층을 식별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에서 이용되는 것은 빈곤선인데 이를 결정하는 데에는 절대적, 상대적 그리고 법적·행정적 기준등이 사용될 수 있다(권순원 외, 1993 : 16). 이중 비교적 명확한 빈곤선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법적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법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로 구분된다.

<표 1-1>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1998년 기준)

기준 유형	법정기준		자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인구학적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거택보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 양을 받을 수 없는 자	1. 65세이상 노쇠자 2. 18세미만 아동 3. 임산부 4. 질병, 사고, 장애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5. 50세 이상 부녀자로 구 성된 세대	22만원 이하 (인/월)	2,800만원 이하 (가구)
시설보호	상동	거택보호대상자 중 주거에 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	-
자활보호	상동	1. 거택보호 1-4호 해당자 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부양, 양육, 간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2.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	23만원 이하 (인/월)	2,900만원 이하 (가구)

그러나 이러한 법정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나라의 빈곤층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소득 및 재산금액이 과거에 비해서 대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둘째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실제적인 선정이 가용정부예산의 범위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소득 및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일지라도 빈곤선 밖으

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저소득층이 계속 누락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권순원 외, 1993 : 19).

또한 법정생활보호대상자만으로 저소득층을 한정할 수 없는 이유의 하나는 절대적인 빈곤외에도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빈곤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생활비의 액수로 인해 빈곤을 경험하기보다는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으로 인해 빈곤을 체감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갖은 상대적 빈곤을 무시한 절대적 계층 나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선 *poverty line* 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계층구조상에서 하위에 위치하게 되는 일차적인 기준은 가구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결핍여부인데,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입이나 지출을 빈곤선으로 본다. 빈곤선은 우선 절대적 빈곤개념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 절대적 빈곤가구란 한 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한 가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절대빈곤은 바로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서 절대빈곤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절대빈곤상태는 주거, 음식, 의료보호 그리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본질적 항목들에 있어서 국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전체적인 소득분배를 등한시하고 측정된다는 비판에 따라 상대적 빈곤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지양진, 1997 : 22-27). Townsend는 상대적 빈곤을 “어떤 개인과 가족의 자원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평균적 개인 또는 가족이 향유하는 자원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를 빈곤하다고 해야 한다(이정우, 1992 : 251)는 상대적 박탈 *relative deprivation*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어떤 사람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통상적인 생활양태 *style of living*를 누리지 못할 때 그것을 빈곤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어떤 기준의 빈곤선을 가지고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느냐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빈곤계층, 저소득계층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저소득층이라는 특정한 소득계층으로 이들을 가려내지 않고 주로 지역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빈민촌, 재개발지역, 달동네 등에 거주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과 생활실태 등을 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 조사에서 나타난 빈민지역 거주자의 공통된 특징으로 고령에 저학력, 여성세대주가 많으며 가구주가 만성병에 걸렸거나 장애, 폐질 등 열악한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은 결국은 이들이 빈민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들 저소득층중 극히 일부만 자활보호대상자로 약간의 정부지원을 받을 뿐 그 외의 지원은 전무하며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문화적인 측면의 생활수준도 낮은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것처럼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절대빈곤인구가 바로 저소득층 전체를 지칭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빈곤개념에 입각하여 저소득 가정을 월 평균 가구지출이 서울시 전체가구 평균지출액의 60.5%이하인 1,000,383원(4인 가구 기준)²⁾ 가구로 정의한다.

2) 실업의 개념과 범주

실업에 대한 관심은 1997년 IMF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도산 등으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실업률은 1980년대 초의 불황기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경우를 제외하

2) '98 서울의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약 125만원 정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IMF사태로 소득과 지출수준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98 상반기 도시 전가구 소비지출의 76.7%, 서울시 전가구 가계지출의 60.5% 수준인 1,000,383원(4인 가구 기준)이 적정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김경혜, 1998 : 145).

고는 대체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평균 2%수준을 유지하는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은 IMF체제 시작과 함께 단기간에 급격히 불안정하게 바뀌었으며 IMF체제가 시작되기 전인 1997년 말부터 현재까지의 실업률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2> 실업률 및 실업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1997	1998		1999				
	12	5	12	1	2	3	4	5
실업자수	660	1,492	1,665	1,762	1,785	1,704	1,550	1,406
실업률	3.2	6.9	7.9	8.5	8.7	8.1	7.2	6.5
(증감률)	▲1.2	3.7▲	1.0▲	0.6▲	0.2▲	0.6▽	0.9▽	0.7▽

통계청에서 발표한 ‘1999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가 140만 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IMF체제가 시작하기 전인 1997년말에 비하면 3.3%증가한 것이지만 1998년 같은 시기에 비하면 0.4% 하락하고, 1999년 2월 실업률이 최고에 달했을 때와 비교하면 2.2%나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실업률의 하락으로 실업문제가 실제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데 첫째는 실업률이 이렇게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3~4년간은 5~6%대의 높은 실업률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노동부, 1998).

또 다른 하나는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장기실업은 곧 빈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장기실업자의 증가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한 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IMF경제위기로 인한 연구조사들을 살펴보면, 특히 실업률과 생활실태면에서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가계를 운영하는 소득을 임금에 의존하고 특히 그 임금소득을 대부분 전적으로 가장 1인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 충격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더구나 이들 저소득층은 근로능력과 약간의 보유자산으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고용형태가 대부분 일용직이나 건설노무직 동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등 제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속해있다. 따라서 IMF 경제위기로 인한 물가상승과 실업의 여파는 경제적인 약자인 이들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단순히 생활수준의 하향차원이 아닌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는 것이다(김경혜, 1998: 3-4).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업자의 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기준한 것으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도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적이 없으면서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기불순, 구직결과 대기,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일용직 노동자와 같이 일감의 부족 등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와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실업자에서 제외되는데 사실 이들은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을 실업상태로 볼 경우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실업자 수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정혜인, 1998: 5-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근로 같은 부정기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도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실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좀더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실업의 개념과 범주를 택하고자 한다.

3) 청소년의 개념과 범주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청소년은 통념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 학생으로 간주할 수 있는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십대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령 범주는 빈곤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인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그에 따라 빈곤의 원인의 하나로서 자신의 노력부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연령층인 20세 이상의 청소년을 제외시킨 10대 청소년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을 전적으로 받고 생활하는 거택보호가구를 포함한 자활보호가구와 한시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가장이 장기실업이나 IMF경제위기 이후 실업상태에 빠진 가정의 10대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

2. 저소득가정의 청소년 생활실태와 욕구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는 가정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소득 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낮은 소득으로 인해 지출도 낮으며 열악한 주거형태와 생활환경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기의 교육과 정서함양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저소득층청소년은 가정과 부모가 주는 어려움의 요소들 때문에 빈곤한 상태를 갖게 되며 정상적인 청소년기 성장, 발달과정과 성취에 필요한 제요소들의 결핍 또는 열악함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올바른 성장과정을 겪지 못한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겪는 결핍요인은 점차 성인이 되어서

도 빈곤을 경험하도록 하는 악순환의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욕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최저생활 욕구이다. 둘째, 주거에 관한 욕구이다. 셋째, 보건에 관한 욕구이다. 넷째, 교육에 대한 욕구이다. 이러한 저소득층이 갖는 욕구에 더하여 청소년들은 그 시기적 특성에 기초한 발달과업에 비추어 필요한 욕구를 갖는다. Maslow의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청소년에게 가장 절실한 욕구는 생존의 욕구라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기의 가능성과 특성에 따른 안전과 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리고 자존심의 욕구도 중요하다.

따라서 저소득층청소년이 갖는 빈곤이라는 환경과 청소년이라는 시기로 인해 나오는 욕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주거, 의료, 생활에서의 최소한의 인간의 조건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경제적 욕구, 둘째,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길 원하는 교육욕구, 셋째, 새로운 인간관계의 확장, 동일시, 가치관 확립 등과 관련된 사회관계 및 지지에 관련된 욕구, 넷째,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한 자신의 미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익히고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누릴 욕구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심층 조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저소득층청소년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³⁾

- 3) 다음의 저소득층청소년 현황은 노혁의 조사결과에서 주로 발췌하여 인용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조홍식의 연구결과로 보완하였다.

노혁의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관한 조사결과는 1996년 12월과 1997년 1월에 사이에 3차에 걸쳐 저소득층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 13~18세 사이의 청소년이며 10명은 중학생, 4명은 인문계 고등학생, 4명은 실업계 고등학생, 2명은 근로청소년이다.(노 혁, 1998 : 71-84).

조홍식의 빈곤층 청소년의 복지적 소외 양상과 욕구실태에 관한 조사결과

1) 경제적 실태와 욕구

(1) 빈곤의 원인

부모 중 한쪽의 부재로 경제적 결손을 가져왔거나 부모 모두 빈곤한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2) 소득과 가계

조사대상 20명 중 14명이 공적부조의 대상자이다. 13명이 실제로 가정의 경제생활을 책임지고 있어 빈곤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심적인 부담과 고통을 받고 있다. 공적부조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보조로 인해 항상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돈 걱정을 하면서 생활한다.

(3) 용돈과 소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달 동안 전혀 용돈을 쓰지 못하는 청소년도 있고, 5000~20,000원까지의 용돈을 쓰는 청소년도 있었다. 용돈은 주로 군것질을 하거나 책을 사는데 쓰며 용돈이 매우 부족하다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4) 건강

이들의 빈곤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빈곤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열악함도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 조사대상 20명중 12명이 신문배달, 야간 음식배달, 주유원 등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9명은 생계와 직접 연관

는 1999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 동안 서울시 관악구 빈민지역 거주 청소년 7명과 가출 남자청소년 3명을 총 10명의 빈곤층 청소년을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이다(조홍식, 1999 : 65-72).

된 일이다. 건강상태는 외견상 양호해 보였지만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거나, 신장염, 늑막염을 앓고 있었다. 6명은 피로와 만성두통 등 가벼운 질환을 갖고 있었다. 무료로 치료받는 의료보호증이 있지만 의료기관의 푸대접과 제한된 서비스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제한 받지 않는 의료보호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집안에 돌보아야 할 병자가 있을 경우,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

(5) 주거

빈곤한 가정형편은 주거에 대한 박탈감을 갖게 하고 있다. 잦은 이사와 공동화장실, 여름에는 습기차고 겨울에는 연탄가스로 고생하는 단칸방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모두 현재 사는 곳을 떠나 자기의 독립된 방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했다.

2) 교육 실태와 욕구

(1) 교육환경과 학교성적

빈곤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교교육을 계속 또는 완료하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 인해 과외는 엄두도 못 내고, 공부방도 따로 없이 동생 또는 부모와 함께 방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생계에 신경을 써야 하고 집안살림도 돌보아야 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성적은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중간 이하 또는 하위성적에 속했다. 이들은 또한 학교 내에서 중산층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제약이 있다. 저소득층청소년들은 가능하면 학교교육을 계속 받고 학업을 잘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지원 받기를 원했다. 아울러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

(2) 진로와 직업

많은 근로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사정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좌절감을 갖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낮은 수입, 불량하고 메마른 작업조건, 이기적인 기업주와 경영자에 대한 높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저소득층청소년들은 진학보다는 일찍 직장을 구하여 가계를 돕든지 독립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3) 사회심리 상태와 욕구

(1) 정서와 태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조금은 산만했고 집중력이 낮았다. 특히 남자청소년의 경우가 심했고 반 이상이 상스러운 욕이었고,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 움직였으며, 고개를 숙이고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표정과 말씨였으며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른다고 했다.

(2) 고민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고민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논할 상대가 있어 의논하지 않는 것과 그 실체마저 없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또한 부모와 의논을 하고 싶어도 병환중이거나 생계유지에 바빠 감히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는 것과 고민조차 사치스럽다는 것, 그리고 친구들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에 있어 고민을 서로 이야기 할 때는 술이나 약물이 필요하다고 했

다. 특히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면적인 고민은 학업과 진학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사설학원을 다니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3) 가족관계

가정생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로 편부나 편모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부나 모의 질환 또는 생계유지를 위해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부모와의 대화가 자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족간의 불화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가족관계의 소중함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친족을 제외한 인척에 대해서 무척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다.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폭력은 심각했으며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폭력적 태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었다.

4) 문화적 실태와 욕구

(1) 생활의 불만

이들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그들이 느끼기에 보통의 청소년들이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조정하며 비교적 충분한 여가시간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신들은 가사일 또는 가족을 돌보는 일 등으로 일반청소년들과 같은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둘러싼 생활환경이 답답하고 막막한 것 같은 느낌에서 오는 괴로움이었다.

(2) 생활의 개선 가능성 여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생활의 개선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3) 장래의 희망

장래 희망은 다양했다. 그러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소망이기보다는 체념에서 나온 자조 섞인 바램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낮은 자기 확신과 정체감 그리고 열악한 생활환경을 벗어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 희망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좌절감은 이루지 못할 소망을 투사하는 어른들처럼 대상자 중 4명은 자신의 희망보다 동생에 대한 기대와 가정의 안정을 희망하기도 하며 저소득층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들이 희망하는 직업으로는 외교관, 경찰관, 군인, 의상디자이너, 방송PD, 자유업 8명, 수녀 등으로 나타났다.

(4) 가치관과 태도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를 느끼고 있었다. 사회 도덕적으로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빈곤이라는 장애 때문에 부딪치는 가치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기와 타인의 인생 목표와 가치에 대해 무관심했다. 사회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해 20명중 14명의 청소년들이 개인의 능력이라고 응답했고,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는 빈부간 격차와 세대차를 들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빈곤이 사회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은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5) 성역할과 이성관

조사대상자는 성지식을 부모와의 대화 또는 각종 교육을 통해 습득하기 보다는 포르노 잡지나 비행청소년들의 성행위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습득하고 있다.

(6) 여가

저소득층청소년들은 학습공간, 문화공간 등을 비롯한 문화복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일반청소년들처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본인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행, 컴퓨터게임 등이 있었고 선진국처럼 무료 또는 파격적인 할인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지길 희망했다.

3.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문제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이라는 경제적 상황과 실업이라는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하고 심각하며 복합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청소년기가 되면 이전과는 다른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달라진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환경적 요소들의 중요성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인간관인 '상황 속의 인간', '환경 속의 인간'과도 일치하는 개념이 되므로 청소년 복지에서 중요한 의의를 차지한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을 알아보고, 청소년들이 이 과업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환경에 대해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생태학 이론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중 가장 직접적이고 비중이 높은 환경인 가정을 중심으로 실업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Thomas는 첫째, 가정에서의 안정, 둘째, 운동과 오락을 통한 새로운 경험, 셋째,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넷째, 친밀한 인간관계라고 말하면서 이 욕구가 전부 또는 다소라도 실현될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존심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분하였으며, 각 욕구는 위계가 있다고 보았다. 생리적 욕구는 음식, 물, 공기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상태에 대한 욕구를 말하며, 세 번째 단계인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타인과 어울리고 타인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어느 곳에 소속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단계인 자존심에 대한 욕구는 어떤 일을 성취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타인으로부터 승인과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기를 완성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간의 욕구 중 가장 상위의 욕구를 말한다. 이러한 다섯 단계의 욕구는 일반적으로 낮은 욕구일수록 강한 강도를 가지며 생존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비록 상위 욕구가 생존에는 덜 필수적이지만 개인의 성장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상위 욕구일수록 진화적 발달 순서나

개인의 발달 순서로 볼 때 늦게 출현한다고 하였다(임영식, 1999 : 77-78).

Erikson은 청소년을 주변인 *marginal person*으로 보았다. 이는 청소년기가 아동도 성인도 아닌 시기이며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Erikson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자아정체감 *ego identity*의 획득을 강조한다.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이다(임영식, 1999 : 69). Erikson은 정체감의 정확한 의미는 심리사회적인 안정으로써만 경험되는 것이라고 하며, 그 가장 분명한 부수물은 신체적 안정감과 자신이 어디로 가는 있는가를 아는 것과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적 확실성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자아정체감은 신체적 특성과 욕구, 능력, '역할' 등 다양한 요구가 개인의 고유한 방식으로 통합함으로써 생성되는데 여기에는 개인적인 측면 못지 않게 사회적인 측면이 관여한다. 즉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의 기대와 관심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선택가능성, 사회적 인정과 성취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한다(노혁, 1998: 28).

Havighurst는 생물적, 심리적, 문화적 기반에 근거하여 발달과업을 설명하면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시한다.

- 자기의 체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역할을 수용한다.
- 동성이나 이성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 부모나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한다.
-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느낀다.
-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를 한다.
- 유능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적 기능과 개념을 획득한다.
-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원하고 이를 실천한다.
-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한다.

○ 적절한 과학적 세계관에 맞추어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나 직업과 같은 다양한 부분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욕구,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 성역할이나 가치체계의 형성을 위한 욕구가 분출될 수 있다.

2) 청소년과 환경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를 청소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부정적 결과라고 볼 때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론적 준거가 될 수 있는 생태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생태학’과 생태학의 개념과 일반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파생된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알아 보고자 한다

(1) 인간발달생태학 이론 *Human Developmental Ecology*

생태학적 *ecological* 이론에서는 유전적 요소, 가정적 역사, 사회경제적 수준, 가정생활의 질, 인종, 문화적인 배경 등과 같은 가능한 모든 요인들이 이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다고 본다.

인간 발달에 관한 초기 이론들은 생물학적 또는 환경적 요인이 발달에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 이론에서는 사춘기의 호르몬이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학습 이론에서는 생물학적 요인을 무시하고 오직 환경적 요인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 발달에는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접근은 인간 전 생애를 포함하지만, 특히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인간발달생태학이란 환경

적 상호연결성과 그 상호연결성이 심리학적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힘에 관한 하나의 이론적 관점이다. 이것은 인간 발달에 대한 생태학적 모형으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의 다섯 가지의 환경적 체계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명숙외, 1996: 8-14 ; 임영식, 1999: 80).

① 미시체계 *microsystem*

미시체계는 가정, 친구, 학교, 교사, 이웃과 같은 환경을 말하며, 청소년들은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며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만 청소년은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수동적인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환경내에서의 활동, 역할, 그리고 대인관계의 요인들은 미시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또는 미시체계를 구성하는 건축자재인 셈이다.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은 청소년이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촉진된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그후에는 가정 밖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청소년 자신은 계속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고, 딸, 여동생, 손자, 조카, 친구, 학생, 같은 팀의 동료로서 새로운 역할을 배울 때 좀 더 복잡한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킨다.

대인관계 요인으로는 관찰적 이원체제, 공동활동 이원체제, 일차적 이원체제 등이 있다. 관찰적 이원체제 *observational dyad*는 한 구성원이 다른 사람의 활동에 대해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적어도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형성된다. 공동활동 이원체제 *joint activity dyad*는 두 명의 참여자들이 어떤 일을 함께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각자가 참여하고 있는 활동은 다소 다르면서, 일종의 통합된 형태에서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그림책을 쳐다보고 있더라도 엄마는 청소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청소년은 엄마의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물건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이다.

일차적 이원체계(primary dyad)는 함께 있지 않을 때조차도 양쪽 참여자에게 현상학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체계이다. ‘현상학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두 구성원이 서로 서로의 사고 속에 나타나고 강한 정서적 감정의 대상이 되며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서로의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청소년, 혹은 친구사이의 그들이 함께 있지 않으면,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말할 지 등을 상상하는 경우가 일차적 이원체계인 것이다.

Bronfenbrenner는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미시적 체계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② 중간체계(mesosystem)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이다. 가정에서의 경험과 학교 경험의 관계, 가정생활과 친한 친구와의 관계 등과 같은 미시체계들간의 관계성 또는 맥락간의 연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발달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친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간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확대된다. 이러한 일차적인 연결 이외에도 상호연결성에는 많은 부가적인 형태의 상호연결고리들이 있다.

청소년이 성장하여 더욱 높은 상급학교로 진학해 나갈수록 학교는 가정으로부터 점차 고립되어 간다. 학교건물은 점점 더 멀리 떨어지고 더 커지고, 더욱 비인격적이 된다. 교직원의 수는 증가하고 더 먼 지역으로부터 뽑혀오며, 때로는 그 지역사회에서 살지 않고 멀리서 통근을 한다. 결과적으로 부모와 교사들이 서로 알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학교가 도시의 변두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학교는 청소년들을 그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준비시키려는 학교의 바램과는 다르게, 그리고 학교가 기여해야 할 지

역사회, 이웃, 가족들의 생활로부터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수용소가 된다. 학교 자체내에서도 청소년들은 해마다 바뀌는 교실로 인해 서로 차단되어지면서 반복적으로 고립화된다. 게다가 교실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정체감이 거의 없거나 아주 없고, 적극적 공동체로서 교실간의 연결이나 학교와의 연결이 별로 없다. 이러한 상호연결고리의 부재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주로 또래끼리만 내던져지므로 연령별로 분리된 파괴적인 세력이 만들어져도 이를 견제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학교는 과거 수십년 이상 “사회에서 집단을 만드는 가장 세력있는 양식장의 하나”가 되어 왔다. 미국의 청소년들이 과거 수십년간 초등학교, 중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취도 검사에서 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바로 이 소외때문이라고 본다. 이 점은 학령기 청소년들의 살인, 자살, 약물복용과 범죄의 증가율에서 더욱 뚜렷이 볼 수 있다.

③ 외체계(exosystem)

외체계란 하나 이상의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달주체가 그 환경들 속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 환경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환경이다. 외체계의 예를 들면, 어린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직장, 손위형제가 다니는 학교 학급, 부모의 친구 조직망, 지방 교육청의 활동 등이 포함될 것이다.

부모의 직장은 외체계 영역이다. 외체계는 청소년발달에서의 가능성과 과정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치에서만 주변적일 뿐, 영향력 면에서는 결코 주변적인 것이 아니다. 요즘은 사회문제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중년기 아버지들의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이 가족에게 특히 청소년자녀에게 미치는 정신적, 경제적 불안을 상상해 보면 외체계인 부모의 직장이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상황에서 형성된 태도가 가정으로 연장되어, 부모로서의 가치관과 양육실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Kohn의 연구결과들은 작업환경이 청소년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외체계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스컴이 청소년발달에 영향을 주는 외체계로서 작용한다. TV프로그램이 외부로부터 가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TV는 청소년의 외체계 일부를 구성한다. 이 강력한 대중매체가 발휘하는 영향력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모와 부모-청소년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므로 2차적 효과를 갖는다. 이 경우, 그 효과는 완전하게 미시체계내에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체계의 현상으로서 생태학적 경계들을 거쳐 작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TV화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TV가 이끌어 내는 “나쁜” 행동들 -예컨대, 선정성, 폭력성 등- 뿐만 아니라 TV가 방해하는 “좋은” 행동에 있다. 즉 청소년은 대화, 게임, 가족모임과 토론 등의 행동을 통해 많은 것을 학습하고 성격도 형성되는데, TV는 이러한 행동들을 방해하고 있다.

④ 거시체계 *macrosystem*

거시체계란 간단히 말해 개인이 현재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을 의미한다. 문화란 세대간 전수되는 행동유형, 신념, 관습과 같은 집단적 특성을 말한다. 어떤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권의 특성을 그 개인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텔레비전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사건들을 청소년들의 일상적 경험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폭력적 표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나 신념체계에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텔레비전이 청소년 발달의 거시체계를 구성하는 현상학적 세계에 외적체계는 물론 거시체계까지 제공해 주게 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 여부는 발달주체에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을 자극하는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지 혹은 폐쇄되어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부터 부모와의 다른 성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 가정밖의 과제지향적 활

동에 많이 참여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이 증진된다.

청소년에 대한 기회의 개방은 이론적 의의 뿐 아니라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의 참여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사실과, 거리에서의 청소년비행, 학교 내에서의 학원폭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실이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사회과학과 사회정책간의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바람직하게 되려면,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이론적 모델을 정립하고 특정한 문화나 하위문화가 갖는 특징적인 제도적 구조와 일반화된 이념 등을 포함한 거시체계적 사회환경을 사회정책적 분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공공정책은 거시체계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하위체계들 -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 의 속성을 결정짓는 더욱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발하는 틀이 되기 때문이다.

⑤ 시간체계

시간체계는 시간(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 역사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즉, 어떤 사건의 효과가 시간적 경과에 따라 변화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시대에 따라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혼 첫 해에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영향은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욱 부정적이다(Hertherington, 1995; Hertherington, Cos, & Cox, 1982). 그렇지만 이러한 이혼의 부정적 영향은 일반적으로 이혼 후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경감되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오늘날의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사회활동과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시간체계는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들어, Bronfenbrenner(1995)는 인간의 발달에 생물학적인 영향을 첨가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론을 생물생태학적 *bioecological* 이론이라고도 하지만, 여전히 생태학적, 환경적 영향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2) 생태체계적 관점 *eco-system perspective*

생태체계적 관점은 생태학의 개념과 일반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파생된 개념인데 인간과 환경적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실천가의 관점을 중시한다. 이것은 특정 개입방법이나 기술을 제시해 주는 실천 모델이 아니라 문제현상을 사정·평가하기 위한 관점, 즉 이론적 준거틀이다(장인협, 1997 : 91-95).

저소득층청소년들은 빈곤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 등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체계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성을 갖는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체계적 관점은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청소년의 행동은 기질 및 상호작용 스타일 등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가족 체계의 요소들, 부모 체계의 특성, 동료 체계의 특성, 학교 체계, 이웃 또는 지역사회 체계 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주로 위치해 있는 주요 사회체계들의 특성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Stern & Smith, 1999 : 엄명용, 1999 :1 에서 재인용).

청소년은 가정 내에 존재하고 가정은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를 비롯한 각종 체계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가족 밖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들로부터 오는 역경들은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청소년을 돌보는 부모의 양육과정에 영향을 주며, 이 영향은 다시 청소년들의 내·외적 문제의 발현에까지 파급된다(Stern, Smith & Jang, 1999). 따라서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각종 문제들과 청소년들이 현재 접하고 있는 다원 체계 사이에는 역동적 상호 작용이 존재한다.

빈곤지역의 청소년과 그 가족은 중산층 가족 및 청소년에 비해 훨씬 많은 부정적 영향들을 다중적인 체계들로부터 받고 있다. 경제적 스트레

스, 만성적인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가족과정(*family process*)상의 문제, 부모 양육방식에 따른 부모와 청소년간의 스트레스, 주변의 낙인 또는 편견 등으로 인해 많은 비행 유발 요인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을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필요한 가용자원 및 서비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다.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소는 빈곤청소년의 현실적응에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정적, 갈등적 가족과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취약한 빈곤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이나 학교 환경,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현선, 1999). 따라서 빈곤가정의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요소에 대한 개입에 치중하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인 개인, 가족,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성들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엄명용, 1999 : 1-11).

① 개인

청소년문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요소들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범죄인자(*crime gene*)가 존재한다거나 나면서부터 범죄자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행이나 범죄행위에 빠지게 만드는 특성들 즉 다혈질, 지능등은 부분적으로 유전될 수도 있다(Moffitt & Caspi, 1993). Herrnstein(1986)은 '범죄와 인간성(*Crime and Human Nature*)'이라는 책 속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인성의 요소들은 거미줄처럼 세심하게 짜여진 가족과 사회의 관계망 속에서 발달해 나가는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 또는 대안행동 사이를 오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유전된 성질이 범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개인의 직접 환경인 가정이나 보다 큰 환

경인 사회라는 거름장치를 거쳐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건전한 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낮은 자아통제력 *poor self-control*과 공격적 행동 *aggressive behavior*은 진성비행인들에게서 일생동안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성격 특성이 다.

셋째 사춘기를 일찍 맞은 청소년이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한다. 'maturity gap'이론(Moffitt, 1993)인데, 1800년도 중반부터 영양상태의 증진, 건강 보호의 증진에 따라 사춘기의 평균나이가 내려온 반면, 기술의 발달로 경제 현장에 진입하는 시기는 늦어졌다. 따라서 현대 10대들의 대부분은 신체적으로는 성숙해 있으면서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 불균형 상태를 5~10년간 유지하게 된다. 이 시기 동안 대안적 행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정 형태의 비행을 통해 성인의 힘과 독립을 누리기 위한 출구를 모색한다. 사춘기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 중 비행에 빠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넷째 비행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비행 동료집단과 어울려 자기를 인정받으려 한다. 자아개념과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Kaplan(1980)이 정리한 이론적 토대에서 출발한다. 즉 부정적 자아개념은 비행을 촉발하고, 비행은 자아개념 결핍을 보충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성공과 실패에 대한 통제감이 약할수록 비행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nnell, Spencer & Aber, 1994).

② 가정

빈곤이 청소년들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가정내의 부모 요소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것이다(Conger & Elder, 1994; McLoyd & Wilsons, 1991). 즉 빈곤은 부모의 감독, 훈육양식 등의 관계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준다. 빈

곤가정 부모의 적개심, 거부, 감독 소홀, 일관성 없는 억압적 훈육 등은 일관성 있게 청소년의 외적 행동문제와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zdin, 1987). 반면 청소년과 부모간 정서적 유대의 단절은 우울증, 낮은 자존감 등과 같은 청소년의 내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icchetti & Toth, 1998). 즉 부모의 부적절한 지지와 통제, 부모자녀간의 대화부족, 부모와의 불화, 부모의 지나친 기대 등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을 가져온다.

스트레스를 받은 부모, 와해된 가족과정은 청소년 부적응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한다. 모든 형태의 역경은 높은 수준의 부모 디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이것은 부모양육의 와해상태로 이어진다. 따라서 부모의 디스트레스는 역경과 와해된 부모통제 사이에 중요한 매개변수 역할을 하였으며 부모의 디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내외적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Stern, Smith, & Jang, 1999).

③ 학교

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가정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이 학교이다. Fraser(1996)는 아동기 및 청소년 초기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문헌연구에서 아동기에는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청소년 초기에 학교 및 동료집단의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평가방식, 학급운영 기술, 수업전략 등이 학교와의 유대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유대감이 약할 경우 공격적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O'Donnel, Hawkins & Abbott(1995)도 학교의 전반적인 풍토, 수업방식등이 학생의 교육적인 면에서의 기대, 학교에 대한 소속감, 학업성취,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학교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청소년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학교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청소년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둘째, 학교에 대한 애착, 공부 및 기타 학교생활 참여도, 학교를 싫어할수록 비행가능성이 크다.

셋째, 공부에 대한 압력이 클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넷째, 학생의 가정 및 일신상 문제에 대해 상의해 주는 교사, 학생을 인간적으로 대해 주는 자상한 교사, 학생들의 의사 및 욕구 표시를 받아 주는 교사와 같이 교사의 학생수용 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은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다섯째, 차별대우, 신체적 언어적 폭력, 관심정도, 이해정도 등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여섯째, 학생의 교사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교사에 대한 적개심이 클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일곱째, 비행친구 또래집단과 연합, 자신을 인정해 주는 비행소년의 세계에 빠지는 등 학교에서의 비행집단의 영향을 받는다.

④ 지역사회

청소년문제는 개인, 가정, 학교 이외에 이들 각 요소들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사회적 맥락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발생한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는 사회·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한 빈곤지역, 예기치 못한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퇴폐·향락 문화의 범람, 황금만능주의 등으로 인한 소외감 및 갈등, 형평성이 상실된 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좌절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요소들과 앞서 다룬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의 예로서, 가족의 응집력이 약한 가정이라도 건전한 이웃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가족에서는 청소년비행이 덜 발생하였으나 열악한 주변환경에 놓인 가족의 경우는 비행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아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위험요소도 있고 보호요소도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사회환경, 나쁜 친구, 학교상황 등과 같이 여러 위험요소들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지지, 통제, 응집력, 개인의 자존감 등과 같은 다른 보호요소들을 강화하면 청소년 문제는 예방되고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문제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보호

요소들을 증진시키는 개입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실업이 청소년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의 실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외 연구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실업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일찍이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있을 당시에 이루어졌는데 1980년 후반부터 실업이 가족과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실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중 경제적 어려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실업이나 수입손실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수입의 손실이 부모와 자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일차 생계유지자**breadwinner**의 실업과 같은 위기사건은 가족역할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러한 변화는 부모들이 더 이상 부정적인 증세(징후)들을 퍼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극단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Minuchin, 1974; Olson & McCubbin, 1983; Carter & McGoldrick, 1989)

Elder(1974), Elder, Van Nguyen & Caspi(1985), Elder and Rockwell(1985) Elder and Caspi(1986), 그리고 Komarovsky (1940)는 수입손실은 두 측면에서 청소년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첫째는 가족의 역할변화는 아버지의 지위(가정안에서)와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둘째는 수입의 손실은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사회적 지위의 손실을 의미하고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비난이 된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경제적인 박탈,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아버지의 직업상실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 특히 아버지와 청소년기 자녀에게 중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자녀에 있어서의 중요한 수입의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개입은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 최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자녀의 자아개념을 강화시켜야만 한다.

우울증적인 징후들, 충동적인 행동,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동들은 1971년에서 1981년 사이에 경제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최소 한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동들 사이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경제적인 압력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은 이혼, 실업, 아동학대와 같은 치명적인 사건들에 노출되기 쉽다.

시간에 따른 빈곤상태의 변화는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빈곤상태에서 보낸 시간의 기간은 빈곤생활의 건강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빈곤가정에서 생활한 아동들이 짧은 기간 빈곤상태에 있던 가족의 아동들보다 더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문제들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보고들이 일부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재정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일시적인 인지는 아동의 정서와 행동, 특히 우울증적인 증세에 두드러지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재정적인 스트레스는 부모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의 우울함은 재정적인 상태의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모들은 그들 자신과 유사한 그들 자녀의 정서적인 상태를 보고할 수 있다 (Angel and Worobey, 1988). 결국 부모의 우울함은 자녀의 정서적인 상태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인 요소는 가족들 안에서 적대감과 논쟁을 일으킴으로써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갈등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의 발달과 나이에 관련해서 차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초기아동기에 부모와의 불일치는 가정생활에서 아동이 소외와 위축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혼이나 별거를 포함해서 가족의 갈등은 청소년기 문제 특히 행동장애에 있어

서 강한 영향을 준다. 감독관리 *supervision*가 부족한 청소년이나 부모로부터 소외된 청소년은 또래 비행청소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결국 행동적인 문제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Friday and Hage, 1976).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은 중류가정의 또래들과 비교해 볼 때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학교를 지루해 하고, 또 교육을 사회적인 이동 *social mobility*을 위한 도구로서 보는 시각도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Ogbu, 1978).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경제위기와 함께 실업이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나병균, 1998 ; 정무성, 1998 ; 조홍식, 1998 ; 김유순 · 이영분, 1998 등).

실업은 개인과 가정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실업으로 인해 첫째, 실업에 대한 대체소득이 없을 경우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 상태에 빠져들고 둘째, 일시적인 파트타임 노동으로 생활을 영위할 경우에 소득의 감소로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셋째, 상당기간 실업상태가 지속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넷째, 실업자로 분류될 경우에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다. 실업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는 가장 뚜렷한 변화이며 이것은 가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김유순 · 이영분(1998)은 실업으로 인한 영향이 실업자 개인 뿐 아니라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도 영향을 미치며, 가정환경의 변화는 아동/아내학대의 가능성, 가족간의 긴장과 적개심, 역할변화로 인한 부부갈등과 불화, 별거증가 등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으로 Dew와 Liem과 Liem은 직업상실이 개인과 가족에게 감정적 우울을 야기한다는 심리적 영향과 관련된 결과를 보였고, 가정폭력과 관련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또 다른 연구들은 실업으로 인한 결과로 가족갈등, 긴장, 다툼을 보고하였다(정혜인, 1998: 14-16 재인용).

우리 나라의 경우 실업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실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구미와는 다른 우리 사회 실업이 갖는 특징은 한 가구당 수입원이 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미흡한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한 사람의 실직은 가정 전체의 실직을 의미하므로 가족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버려지는 아이들, 학교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청소년 자녀들, 결식아동들, 갑자기 허드레 일자리조차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주부들 등 가정이 해체되기 쉬운 조건들이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많다.

실업은 주요 경제적 제공자로서의 역할 상실을 의미하며 배우자가 이를 대신하게 될 경우 부부간의 역할이 변화·조정된다. 그럼으로써 실직한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부부관계에 갈등을 가져온다. 이것이 심할 경우 가족폭력이 발생하여 가족관계를 위협하게 되고 그 결과 가출, 별거, 이혼 등 가족해체에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부모의 실직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녀들도 우울과 소외감의 증상을 보여 또래집단과의 관계에서 혼란감을 보이며, 가족정체감의 상실을 낳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수록 부모에 대한 적대감은 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적대감이 클수록 자녀가 집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부모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처벌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가져 자녀를 다루는 방식에서 과잉반응을 하게 되며, 이것은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한 가정에서 가장의 실직은 가족재정을 주요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고, 불안, 우울, 가족갈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반향을 가져온다. 그리고 실직에 의해 재조직되는 가족생활로부터의 스트레스 연쇄충돌은 만성적 가족갈등 및 폭력, 가족해체 및 별거, 무기력감, 약물남용, 스트레스와 관련된 각종 신체 및 정신적 질병 등 부적응적 가족패턴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실업이 저소득 가정과 그 가정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정리해 보면

첫째, 실업은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주어 의식주 등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 또한 실업은 가족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역할 변화는 경제적 박탈감과 함께 실직자 자신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래서 불안감, 우울, 위축감,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일차적으로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게 된다.

셋째, 부모의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자녀의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들도 우울과 소외감을 느끼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어 쉽게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

넷째, 실직으로 인한 연쇄충돌적인 스트레스는 만성적 가족갈등 및 가정폭력, 가족해체 등 부정응적 가족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저소득층 실업가정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이동수단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박탈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하게 된다.

4.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 실태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정부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복지지원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지원형태를 알아 보았다. 이에 더해 IMF이후 저소득 실업가정과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 사회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그

리고 그 형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정부의 지원사업

(1) 생계지원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먼저 생활보호지원을 살펴볼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가구라고 하는, 18세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로 지정되어 생계비 지급, 의료보호, 교육보호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이 부모 혹은 조부모와 같은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IMF 이후로 보호자가 실직시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다. 이외에도 저소득 모·부자 가정으로 지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생계지원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①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는 65세이상의 노인이나 18세미만의 아동과 같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있다. 거택보호에는 노인,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이를 부양 간병하는 사람(65세이상 18

4)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는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빈곤층(1백54만명)에 생계비와 의료비, 자녀학비가 지급된다. 생계비의 경우 금년(178천원/1인)보다 27천원이 높은 205천원(중소도시 1인기준)수준의 생계급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주거비가 신설되어 가구당 월 28천원(전 생보자 641천가구)이 지원되며,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지원금도 월 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증액된다. 그러나 한시 생활보호의 경우, 지원대상은 76만명에서 54만명으로 그리고 지원금액에 있어서도 5,188억원으로 4,036억원으로 22.2% 감소했다.

세미만)이 해당되며, 자활보호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시민이 해당된다. 보호내용으로는 생계비지급(거택보호자만 지급), 의료보호(거택/외래진료 및 입원비 전액, 자활/외래진료 및 입원비의 80%), 생업자금 대여 추천(자활보호), 취로사업, 교육보호(중·고생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등), 해산보호, 장제보호가 있다.

②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는 최근의 IMF 등 경제난으로 실직한 건설일용직 노동자, 임시경비직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직·사고 등으로 인해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그 피부양자와 노인·아동·장애인의 부양 양육 간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가 해당된다. 보호내용으로 먼저 생계비지급을 보면, 한시적 자활보호자의 경우는 동절기 6개월(1월~3월 10월~12월)만 지급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외에 의료보호(병원진료비의 80%~전액감면), 생업자금 대여추천(자활보호), 취로사업, 교육보호(자녀의 중·고등학교수업료), 해산보호, 장제보호가 있다.

③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지원대상자는 배우자와 사별·이혼·유기된 여성 및 남성, 정신·신체 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 상실한 배우자 가진 자, 미혼모(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치 않은 여성·남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남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자녀학비지원으로 중학생·고등학생(실업계)⁵⁾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과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5) 2000년도 부터는 모부자 가정의 인문고생(4,555명)에게도 학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다

(2) 교육지원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지난해(1998)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비감면혜택’의 각종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① 감면 대상

시·도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기본적으로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새로 입학하는 중고생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혜택은 꼭 실직자 자녀만 받는 것은 아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모자복지법 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 일용직과 임시직 저소득층 자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자녀 등도 받을 수 있다. 단 실직가정이라도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는 가정, 대기업, 금융기관 퇴직가정, 실업급여를 받는 가정의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로 담임교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학교별 학비감면위원회의 심사로 결정된다.

② 학비감면 규모

학비감면은 ‘수업료’, ‘육성회비’, ‘수업료+육성회비’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가정형편에 따라 지원액수가 달라진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규정에 따라 전체의 30%까지이며, 지난해(1998)는 정부가 하반기부터 1천억 원을 지원, 전국적으로 75만 여명(연인원)이 1천1백25억여 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1999년에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지난해 규모만큼 학생에게 학비를 감면해주기로 해 분기별로 30만 명 정도가 혜택받게 되었다.

③ 감면 절차

학교에서 모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과 학비감면신청서를 보내며, 신청서를 못 받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학부모는 주거사항 등 가정형편을 적은 신청서를 직접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우편으

6) 2000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 40만명의 학비(수업료와 기성회비)가 전액 면제된다.

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 이외에 실직증명서나 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통상 한 가지만 내면 된다.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와 면담하면 도움이 된다.

(3) 결식아동 급식지원

IMF경제위기로 인해 결식 아동 및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9년 8월에 학교급식법을 정하게 되었다. 또한 급식지원대상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여 종래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방학중에도 학교와 자선단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급식지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지원방법은 해당기관들이 점심식사를 직접 제공하거나 일반식당용 점심쿠폰을 나눠주는 방법, 농산물 상품권을 배급해 주는 방법 등 3가지가 있다(지원금을 주기도 함).

학교에서 이 무료급식을 받는 초·중·고생은 1998년에는 13만 9천여명에서 1999년에는 15만 1천여명(전체 학생의 1.8%)으로 8.7%, 또 2000년에는 전체의 2%인 16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확보된 지원예산이 부족하여 민간 사회단체의 지역사회 이웃이 지원이 필요하다.

(4) 수련활동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① 어려운 청소년 자연 체험 활동지원

16개 시·도(수련시설 및 단체 등과 연계 실시)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하여 7월-8월 중 3박 4일간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이다.

이 활동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게 수련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며 바다, 들, 산에서 하는 자연체험을 통하여 호연지기와 협동심을 기르고

국토와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가대상은 어려운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청소년, 무직·미진학 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중 희망하는 청소년으로 시·도가 직접 또는 시·군·구의 협조를 받아 선발한다. 참가 청소년을 위해서 우수한 수련활동지도자 및 상담지도자를 확보하고, 수련거리는 바다, 들, 산에서 자연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 자료에는 '어려운'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다.

② 소외계층 청소년대상 연극공연 사업지원

문화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우수한 현대감각의 공연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고취와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사회적 소외감, 문화적 갈등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연극공연 개요

- 공연작품 : 이집트 왕자 조셉(뮤지컬)
- 공연기간 및 횟수 : '99. 3. 24 ~ 5. 25(30일간, 55회)
- 공연지역 : 전국15개 시·도지역(순회공연)
- 공연대상 : 근로청소년, 인문·실업계 고교생, 장애청소년 및 특수학교, 사회보호시설,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등 10만여명
- 공연단체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

③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심신수련회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소년소녀)가장(36명)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줄 심신수련을 위해 1999년 10. 6~7일까지 2일간 개최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어렵게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서 메말라가는 인성과 인간관계를 되찾아 주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그럼으로써 청소년 자신들의 가치

관을 확인하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을 경험하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삶의 목표와 관계의 중요성을 통하여 행복감을 느껴 자아실현 및 인간관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심성수련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이해, 타인이해, 생활경험의 이해, 자신의 재발견, 봉사·희생정신 고양, 타인수용 자세육성, 의사전달의 의미와 필요성 인식, 자아성숙, 만남의 소중함 인식, 타인에 대한 존중·감사의 마음갖기 등이다(한국인성개발연구원 주관).

(5) 저소득가정 자녀에게 무료 컴퓨터 교육 실시

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것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 초·중·고교생과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을 대상으로 전국 1천여개 컴퓨터 학원에서 19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는 컴퓨터 무료교육이다. 이 교육은 전국 1천 81개 컴퓨터학원 및 정보처리학원에서 이루어지며, 교육내용은 현재 컴퓨터학원에서 각 1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워드프로세스, 인터넷 등으로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겨울방학기간인 2000년 1월과 2월에 추가로 무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6)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례

경기도 광주군청은 '저소득층 재미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편모(부)자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의 자녀 194명에게 사교육기관의 교육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한 정기적인 지도와 격려로 교육의욕 제고 및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물론 교육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광주군 학원연합회와 협의하여 모범학생증을 발급하여 학원연합회 가입학원에 등록시 학원비 50%이상을 감면해주며, 1999년 7월부터 2000년까지 국어, 속셈, 컴퓨터, 예체능계열 등 학원연합회 가

입학원에서 실시하는 전과목이 포함된다.

2)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1) 실업극복 국민운동 사업

실업극복국민운동은 효율적인 실업자 구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의식의 고양, 사회안전망 관련 제도의 개선등을 통한 사회통합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국민 실업대책기구이다. 이 운동사업은 민간 주도로 실업성금을 모으고 실업대책사업을 벌이는 범국민적 운동으로써,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민간단체의 실업자돕기 운동을 한데 모아, 사업의 중복과 마찰을 조율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식개혁」, 「실업극복성금 모금」, 「실업자 구호 및 자활 지원」,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 구축」, 「21세기 사회보장을 마련」을 사업과제로 하고 있다. 특히 모금된 실업극복성금은 각 민간단체들이 제안한 실업극복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그 동안 3차에 걸쳐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도에는 제4차 실업극복 제안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실업극복사업에 제안할 수 있는 기관은 정치단체나 기업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실업자를 위한 자활사업이나 복지사업 등 실업극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및 자활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지원신청 대상 사업은 첫째로, 일반 실업극복 사업으로 숙식·의료 지원,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교육, 한시적인 일자리 만들기, 가정해체 예방 등 실직자 및 실직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의적인 공익사업등 이어야 한다. 둘째로는 실업자 자활공동체 사업인데, 이것은 실업자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자활을 위한 공동체방식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운동본부의 요청을 갖춘 사업이어야 한다. 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

는 하나 보통 1년을 단위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지원하되 단체의 통상적 운영경비는 자체충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실업극복 국민운동 사업에 3차에 걸쳐 제안되었던 사업들을 살펴보면, 취업알선센터, 실업극복지원센터, 일자리만들기, 자활·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실직자쉼터·모임터, 청소년무료급식 및 방과후 학습 지도, 실직자 창업지원서비스, 실직가정 및 노동자 무료급식·도시락 배달, 일용직 노동자 겨울나기 지원, 실직가정 및 실직여성가정을 위한 쌀·연료지원, 푸드뱅크, 인턴사원 모집, 장애인 실업자 자활·취업, 노숙자 건강검진·진료,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생산자협동조합 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노력, 해체가정아동을 위한 그룹홈등의 다양한 사업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실업극복 국민운동을 통해 지원받았던 제안사업 중 저소득층 청소년 또는 실업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활동으로는 학습지도와 무료급식이 가장 많았으며, 이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① 방과후 청소년 지도/공부방, 무료급식

(부스러기 선교회, 판악주민연대, 실업문제 해결위한 동대문중랑 민간단체협의회,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고용안정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동부 지역 실업대책위, 충북·청주지역실업극복시민 사회단체협의회, 광주지역공부방협의회, 공동육아연구원, 사랑방교회 등)

② 실직가정 무료급식 및 도시락배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난곡지역단체협의회, 장암종합사회복지관,

7)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타당성과 수익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쳤어 함.
-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확보돼 있거나 확보계획이 있어야 함.
-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공동사업체를 구성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구성원 전원의 투자가 있어야 함.

8) 괄호()안은 사업을 제안하고 실시한 단체 및 기관명

노원고용지원센터, 전북대 실직자사회복지 지원센터의 ‘담쟁이학교’ 등)

③ 청소년실업자 취업 지원

(서울 성북 나눔의 집, 고용실업대책 광주범시민 운동본부, 대한성공회 대전 나눔의 집, 서울신목종합사회복지관 등)

④ 실직가정자녀를 위한 파랑새 여름학교 : 연2회 캠프행사와 결연사업, 실직가정 지원 (대학사회복지관협의회 파랑새 보금자리 운동본부)

⑤ 실직 및 결식가정 자녀를 위한 겨울방학학교 : 학습지도, 무료급식 (이천 YMCA, 월곡공부방 등)

⑥ 실직가정 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
(한국민족음악인협회)

⑦ 학용품 지원 : 실직가정의 자녀들이 학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쿠폰지급 (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 등)

⑧ 실직가정 자녀 교복지원
(서울동작이수복지관, 대구서구종합사회복지관)

⑨ ‘일일 현장체험학습’ : 백일장, 사생대회, 곤충채집, 보물찾기 등의 자연학급 프로그램(원주지역실업극복시민협의회)

(2) 부스러기선교회

1986년 12월 9일 설립된 선교단체로 가난한 이웃이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받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스러기선교회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벌이고 있는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① 빈곤지역 공부방·어린이집 교육활동

1999년 현재 전국의 25개(어린이집 5개, 공부방20개)의 어린이집·공부방과 연계하여 최저생계비, 연료비, 교재교구 구입비, 시설비, 교육 프로그램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빈곤/결손/위기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교육, 상담 및 정서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② 결손가정자녀 장학금 지원

아버지, 어머니의 실직, 가출, 질병으로 인한 편모/편부의 가정 자녀들과 긴급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위기 가정이 될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1987년부터 1998년까지 등록금, 생활장학금을 426명의 자녀들에게 지원했고 1999년 현재 175명(초등학생 91명, 중·고등학생 8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계속적인 이 장학사업을 위해 현재 '부스러기 장학회'를 설립해 기금을 모으고 있다

③ 사랑의 음식나눔은행 사업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실직가정이 늘고 결식자녀가 늘어남에 따라 잉여 식품이나 먹거리(곡물, 육류, 양념, 우유 기타 모든 음식)을 모아서 전국의 필요한 빈곤가정 아동·청소년들과 어린이집, 공부방에 지원하고 있다.

④ 신나는 집

사랑의 음식나눔은행 사업의 하나로 실직/결손/위기가정의 자녀들이 마음 편하게 먹고, 쉬고, 공부할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쉼터 공간이다. 신나는 집은 초기에는 결식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무료급식서비스(조리급식)를 실시하며, 학습지도와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빈곤결손가정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에 적절히 개입하기 위한 심리정서지원(사회복지사 파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9년 현재 전국 34곳의 '신나는집'이 운영되고 있다.

⑤ 문화행사 실시

매년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글쓰기 교육의 효과와 더불어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1994년부터는 전라남도지역에 있는 농촌아동을 서울로 초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애, 비장애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⑥ 도서출판 부스러기

매달 발행되는 부스러기편지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쓴 순수하고 아름다운 글들, 빈민여성들이 쓴 글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고 있으며

결손 아동 사례 등도 책으로 반간하고 있다.

⑦ 민들레 쉼터

민들레쉼터는 빈곤/결손/위기가정의 자녀와 가출을 한 어린이를 중단 기적으로 보호하는 곳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며 보살핌을 받다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동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아동, 부모, 가족에 개입하여 가족 해체를 방지하는 지역사회내 통합적이며 가족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⑧ 교사교육

어린이집 공부방에서 사명을 가지고 아동들을 보살피고 있는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빈민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사교육을 매년 여름 2박 3일씩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교육 등 중요한 주제가 긴급하게 발생할 때마다 교육과 더불어 공동 워크숍을 실시한다.

(3) 가톨릭공부방협의회 활동

가톨릭공부방협의회는 기존의 빈민지역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업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지도와 정서지원 그리고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협의회의 생성배경과 활동목적 그리고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부방의 생성 배경

도시의 외곽지대나 판자촌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의 영향으로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건환경, 문화영역에서 소외를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1985년 산돌공부방이 처음 시작되었다. 1999년 현재 가톨릭 교회와 연관이 있거나 가톨릭의 정신으로 운영되는 공부방은 서울, 경인 지역의 경우 18군데가 활동하고 있다.

② 공부방의 활동목적

가톨릭 공부방의 목적은 지역상황과 운영의 주체에 따라 목적이 다양하나 몇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는 공부할 장소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학업지도, 정서적인 지지 등의 사회복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세습화를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로는,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로는 빈민지역내의 빈약하고 부재한 놀이문화와 문화시설을 대신해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각종 문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공부방의 성격

가톨릭 공부방의 성격은 종교적인 것 외에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복지 운동적인 성격으로, 공부방을 지역센터로 활용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주택, 의료문제를 주민교육을 통해 주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전개해 오는 것이다. 둘째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운동으로, 빈민주민들에게 제일 시급했던 자녀교육을 도와줌으로써 제도교육에서 나타나는 결점과 허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이를 통해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 교육운동이다.

(4) 서울시 공부방 연합회

1989년 10월에 발족한 서울지역 공부방 연합회는 현재 서울시내 10여 개의 공부방들의 연합회로 주로 관악지역과 노원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공부방들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지도, 급식, 정서적인 지원등의 다각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중에 있다.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학교 급식이 없는 방학동안에는 급식의 지원과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부방에 따라 저녁급식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① 심성훈련 프로그램

자아발전과 자기존중훈련, 가족과 함께 하는 대화훈련, 자기표현과 주장훈련, 믿음을 쌓는 대인관계훈련 등 집단 및 개인 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이를 통해 IMF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로 인한 학교 생활의 소외와 부적응 등 일탈 행동을 방지한다.

② 문화교실 : 조형놀이, 음악 및 기타교실, 풍물교실, 연극놀이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개발과 여가문화의 장을 열어준다.

③ 실무교사연수 : 공부방 교육 기획·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교사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상담, 부모역할 훈련, 심성훈련 등)지원 및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한다.

④ 교육자료집 발간 :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자료 발간, 문화활동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공부방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⑤ 청소년 문화제 : 서울지역의 공부방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한마당으로 신나는 공연과 문화적 경험을 한다.

⑥ 회원공부방 연합캠프 :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생태 환경, 역사 및 고적기행, 전래놀이 한마당 캠프 등을 실시한다.

(5) 지역사회복지관 활동 및 프로그램

① 태화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을 위한 신바람나는 세상만들기'

○ 프로그램의 개요

- 대상: 빈곤지역 청소년과 가족, 학교, 지역주민
- 내용: 문제별·유구별 프로그램 학교 및 지역사회접근 프로그램
- 기대되는 결과: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의식' 확산
(지역사회 문제해결의식 고조와 노력)
- 강남구 약물협의회, 강남구 청소년쉼터와의 연계사업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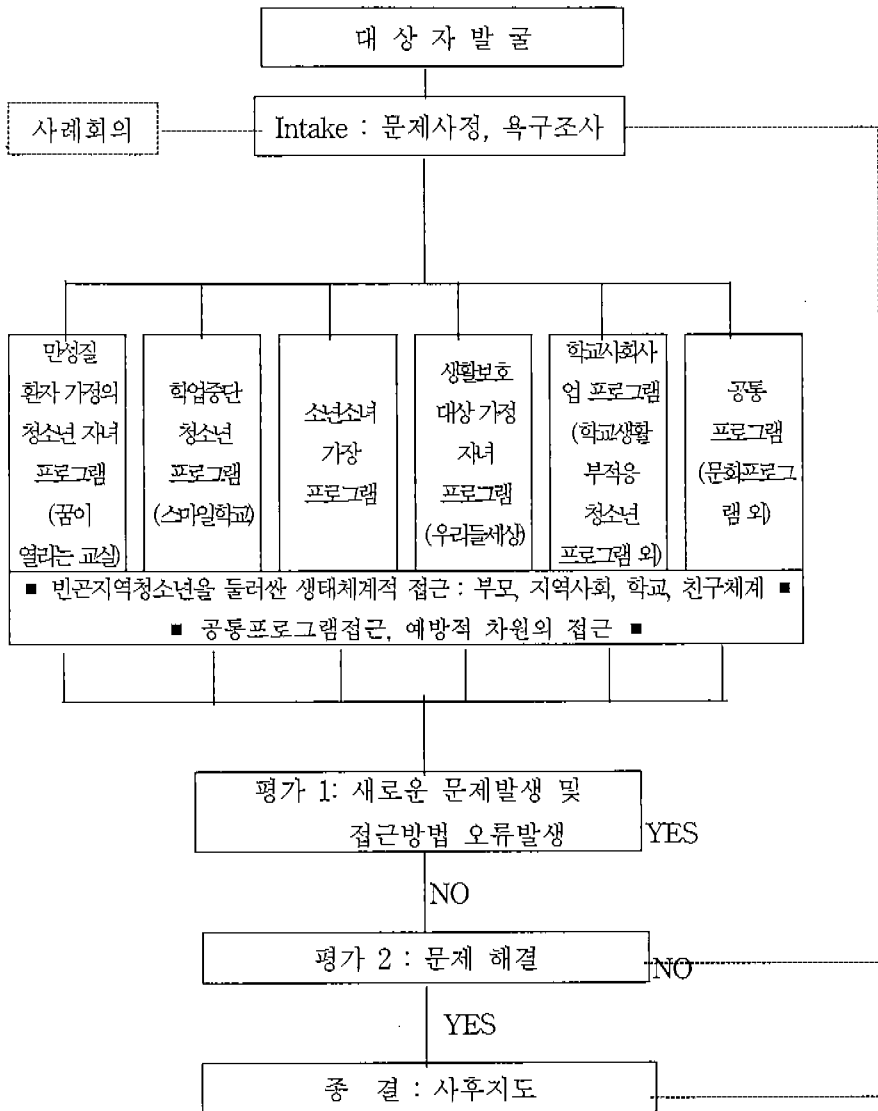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은 빈곤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심리·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행을 예방하고 문제해결을 도우며 나아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청소년을 둘러싼 외부환경체계까지 접근하는 통합적 서비스를 개발하여 빈곤지역청소년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접근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목표

- 빈곤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고 문제를 예방하며 건전한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체계 변화)
- 빈곤지역부모에게 적절한 양육태도를 갖도록 돕는다(부모체계 변화)
-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돕는다(학생 및 학교체계 변화)
- 지역사회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지역사회체계 변화)

○ 프로그램 내용

- 1단계 : 프로그램 준비단계 / 계획서 작성, 학교 연결, 참여자 확보, 자원봉사자 확보(실습생 포함), 학습지도 강사 확보, 담당자, 자원봉사자 사전 및 교육
- 2단계 : 실행단계 / 만성정신질환자 가정의 자녀지도 프로그램 (꿈이 열리는 교실), 학업중단 청소년 프로그램, 소년소녀가장 프로그램, 생활보호대상 맞벌이가정 자녀지도 프로그램, 학교사회사업프로그램, 캠프 실시, 부모교육·부모상담 실시, 각종문화활동 행사, 청소년보호작품전시회 등 실시
- 3단계 : 평가, 프로그램 보급단계 / 각 프로그램 평가, 연구발표 작업, 빈곤지역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



<그림 II-1> 주요사업 서비스모형도

② 그외 사회복지관의 지원프로그램 실태

본 ‘저소득실업가정 청소년의 문제와 대책’ 연구를 위해 서울시내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과 저소득층 거주지역에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사회복지관의 저소득층청소년에 대한 지원실태를 파악하였다.⁹⁾

조사대상 32개 복지관중 20여개의 복지관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었는데, 특히 실업가정의 청소년을 위해 결연프로그램, 중식 지원, 결식아동·청소년 도시락 배달, 급식비 지원, 무료 학습지원, 여름캠프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부방, 학습지도, 학교중퇴·학습부진아 프로그램, 실직모자 가정 지원, 컴퓨터·영어등의 기능 및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학교부적응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쉼터, 학습·기능교실 무료 이용 또는 이용료 감면, 롯데월드 관람등의 이벤트, 중식지원, 청소년캠프, 학비지원, 교복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청소년과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저소득층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공적부조 등의 극빈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이 중심을 이루며,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교육비이외에는 거의 지원이 없다.

둘째,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정책에서는 일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지원과 정책이 대부분이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약한 수준에

9) 이를 위하여 1999년 8월 한달동안 서울의 가양동, 성산동, 수서동, 노원지역등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과 봉천동, 신림동 등의 지역, 경기도의 성남과 안산지역에 위치한 32개의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을 전화 및 방문조사하였다.

머물러 있다.

셋째, 다행히 몇몇 민간단체들이 저소득층청소년들과 실업가정 청소년들의 특성과 환경을 배려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 실업가정 청소년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인적·물적자원 면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복지지원은 대부분 가정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빈곤으로 인해 겪는 청소년 개인에게는 교육적 기회의 확대와 사회심리적 상담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부가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은 청소년이 하위문화를 형성하면서 소비 등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화를 이루는 주요한 시기라는 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청소년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단선적 대응으로 보인다. 빈곤한 환경과 청소년기 발달과정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저소득층청소년의 사회적 특성인 낮은 자아정체감 이로 인한 비행 등 사회문제 그리고 유해한 문화환경 접촉기회 증대 및 양질의 문화접촉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규범의 내면화 제약 등을 해소하는 지원정책으로서는 미흡하다. 즉 저소득층청소년의 능동적인 자활을 위한 복지지원보다는 현재의 상황 개선이라는 소극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III. 조사방법

본 조사는 저소득실업가정 청소년을 포함한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문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 뿐 아니라, 이들의 생활실태를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목적에 더욱 부합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두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첫째, 저소득실업가정 청소년을 포함한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며, 둘째, 저소득가정 청소년들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비교해봄으로써 우리사회에서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검토하며, 셋째, 이러한 비교를 통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원과 대책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 조사대상

1)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은 소득계층 구조에서 하위를 차지하는 계층집단을 의미한다.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일반 가정과 저소득가정을 구별해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선행연구

들과 동일하게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는 강서, 강북, 관악, 강남의 영구임대아파트와 빈민거주 지역을 선정하였고 서울이외의 지역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경기도 지역에서는 성남과 안산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남과 안산은 수도권의 다른 도시보다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서비스 중심 도시이거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실업으로 인한 도시빈곤문제와 청소년들의 문제(비행등의)등이 심각할 수 있으리라는 예측하에 이 도시들을 조사대상 지역에 포함시켰다.

먼저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청소년들을 접촉하기 위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예측, 역추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저소득가정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공부방과 사회복지관들을 파악하여 이곳을 일차적으로 접촉하였고 각각의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또 각 기관 이용청소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강서, 관악, 강북, 강남의 영구임대아파트 및 빈민거주지역과 경기도의 성남·안산지역에서 저소득층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설문조사가 가능한 기관을 조사한 결과 <표 III-1>과 같이 최종적으로 16개 기관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 지원 받고 있거나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조사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설문조사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솔직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해당 기관의 전문가에게 본 연구와 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인지시킴으로써 보다 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부방 및 복지관등의 지원체계support system의 원조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록 회수율이 저조하더라도 이들 청소년들에게 주소지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우편조사를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정된 위의 6개 지역의 동사무소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담당직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협조를 얻어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가정으로 등록되어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파악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연령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로 하였으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이용기관을 통해 385명을 표집하였다. 우편조사용으로는 120명의 주소를 확보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경우 총 표집수는 505명을 표집하였다. 우편조사 설문지의 회수율이 매우 낮아, 총 회수된 설문지는 322부로 63.7%의 회수율을 보였다.

<표 III-1> 설문 조사 기관

지역	조 사 기 관
강북	노원가톨릭공부방연합회, 밤골공부방, 셋별공부방 미아돌산공부방, 성동바탕공부방
관악	관악부스러기, 서울공부방연합(관악)
강서	가양4 종합사회복지관, 아현나눔 신나는 집
강남	수서종합사회복지관, 태화종합사회복지관
안산	신나는집(부스러기선교회)
성남	푸른교실, 월드비전성남복지관, 은행골우리집 신나는집(부스러기선교회)

2) 일반청소년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인식과 생활실태, 그리고 이들의 욕구를 비교하기 위한 통제집단으로 일반 청소년집단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대상자의 모집단은 일반 중산층 거주 지역으로 알려진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로서 저소득가정 청소년들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 1개교씩 선정하여 남녀 비율은 50%로 맞추어 무작위로 2학급을 추출하였다. 한 학급당 평균인원은 40~45명으로 총 표집 인원은 250명이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31부로 회수율은 92%이다.

2.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

1)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대상인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서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질문내용을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 응답자의 가치관 및 장래와 주위환경에 대한 인식’, ‘학업과 진로’, ‘가정생활 및 IMF이후의 변동사항’, ‘시간활용·고민거리 및 정보화 관련’, ‘개인신상’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세부항목은 <표 III-2>와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로, ‘가치관 및 장래와 주위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는 구체적으로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과 인식, 특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일반청소년간에 차이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학업과 진로’영역도 11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희망학력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각자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셋째로, ‘가정생활 및 IMF이후의 변동사항’은 29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부모님의 양육태도와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를 파악하고,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경우 IMF 경제위기 이후 가정경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서, 이를 일반청소년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III-2> 설문 구성 내용

전체 영역	항목	세부내용
I. 가치관 및 장래와 주위환경에 대한 인식	자신과 주변세계 에 대한 인식	· 자아인식 · 가정생활만족 · 친구관계 · 학교생활만족 · 학교교사선호도
	성공의식	· 성공의식 · 성공요인
	자신의 미래 예측	· 행복도/ 이유 · 경제적 상태
	삶의 목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II. 학업과 진로	공부시간, 학교성적, 희망직업 선택	
	희망학력	· 희망학력 · 희망학력실현가능성 · 실현불가능 이유
	과외활동	· 과외활동현황 · 희망활동 조사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 아르바이트 종류 · 일을 하게 된 이유
III. 가정생활 및 IMF이후의 변동사항	부모님의 양육 행동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 자녀와의 대화 · 자녀친구관계과악 · 자녀체벌 · 가족을 위한 성실성 · 자녀에 대한 애정
	월평균용돈	· 용돈액수 · 용돈만족도
	역할모델로서 부모에 대한 평가 가정생활의 문제 파악	

넷째로, '시간활용·고민거리 및 정보화 실태' 영역은 50여 가지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저소득가정의 청소년이 원하는 여가활동

전체 영역	항목	세부내용
III. 가정생활 및 IMF이후의 변동사항	가정경제	· 가정경제수준 인식 · 가정경제인식의 이유
	가족에 대한 지원	· 지원여부 · 지원체계 · 지원종류
	IMF이후 가정 경제 실태 파악	· 학원 · 과외 교습 중단 · 결식(도시락) · 학교준비물 구입불가 · 이웃 · 공공기관의 원조 · 병원 · 생활공간 축소 · 용돈감소 · 부모의 관계 · 가족간의 다툼 · 폭력 · 가족해체(가출 · 이혼)
IV. 시간활용 · 고민거리 및 정보화 관련	시간활용 및 여가활동 실태	· 가사, 가족활동, 체육, 문화, 종교 활동, 오락, 쇼핑, 요식업 관련 항목 34가지 · 희망여가활동 조사
	컴퓨터사용	· 사용 여부 · 사용 장소
	컴퓨터교육	· 교육 경험 여부 · 교육장소 · 미 교육 이유
	일탈행동	담배, 술, 폭력, 절도, 약물사용, 가출, 음란매체 · 영상, 성적접촉, 자살충동 등
	집단따돌림	· 경험여부 · 경험이유에 대한 자기인식
	고민과 걱정거리	
	고민에 대한 대화상대	
V. 개인신상	성별/학력/가족상황/월평균수입/종교/부모학력/양육자/ 부모직업/실직여부 · 실직기간 · 실직 전 직업 등	

과 가고 싶어하는 장소를 파악하여 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 정보화, 일탈문제행동·집단따돌림, 고민거리와 대화상대의 내용에서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신상’에 대한 것으로 응답대상자와 그 부모에 대한 개인신상의 특징들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2) 자료분석

설문조사기간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11월 6일 까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553부였다. 그중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자료 28부를 제외한 525부(서울지역 저소득층청소년 199부, 경기지역 저소득 98부, 서울지역 일반청소년 228부)에 대하여 SPSS/WIN(ver.7.5)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세부계층별 배경변인에 따른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생활실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을 사용하였고, 교차분석시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모두 서울지역의 조사설문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분적으로 저소득층청소년의 연령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급별 분석을 할 때에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조사대상 설문지를 모두 활용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본 조사에서 표집한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은 <표 III-3>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일반청소년은 51.3%, 저소득층청소년은 서울지역이

46.2%, 경기지역(성남·안산)이 51.0%이며, 여자는 일반청소년은 48.7%, 저소득층청소년은 서울지역이 53.8%, 경기지역이 49.0%이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청소년이 30.7%,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는 서울이 29.8%, 경기지역이 35.7%이며, 중학교의 경우 일반청소년은 30.7%,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는 서울이 48.5%, 경기지역이 45.9%이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청소년이 38.6%, 저소득층청소년중 서울이 11.6%, 경기지역이 10.2%이며 실업계고등학교는 저소득층청소년만이 해당되며, 서울이 6.6%, 경기가 6.1%였다. 그리고 학교중단청소년은 저소득층청소년 9명이다.¹⁰⁾

동거가족별로는 조부모의 경우, 일반청소년이 16.3%, 저소득층청소년중 서울은 32.5%, 경기지역이 24.8%이며, 아버지는 일반청소년은 96.0%, 서울은 73.6%, 경기지역은 74.2%이다. 어머니의 경우는 일반청소년이 98.2%, 저소득층청소년은 서울이 84.8%, 경기지역이 66.3%이고, 양부모(계부포함)의 경우는 일반청소년이 1.3%, 저소득층청소년은 서울이 3.5%, 경기지역이 4.5%이다.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비율은 일반청소년은 88.1%, 저소득층청소년은 서울이 75.6%, 경기지역이 80.9%이다.

조사대상자 청소년의 종교에 대해서는 일반청소년은 개신교 36.8%로 응답했으며 역시 저소득층청소년도 개신교(서울44.7%, 경기 54.1%)를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

10) 각 학교급별로 표집대상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본 조사의 초기 표집시에는 각 연령대의 청소년을 고루 표집하고 또, 일반청소년과 저소득층청소년 모두 비교적 유사하게 표집하였으나, 설문지 회수과정에서 연령대별로 일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11) 저소득층청소년의 본인 종교에 대한 응답이 일반청소년의 것과 비슷하게 나타나긴 하였다. 그러나 그 비율에 있어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표집이 이들 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을 통한 것이었으므로 그 기관의 종교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3>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단위 : %(명)

항 목	세부내용	일반(서울)	저소득		전 체
			서울	경기	
성 별	남	51.3(117)	46.2(92)	51.0(50)	49.3(259)
	여	48.7(111)	53.8(107)	49.0(48)	50.6(266)
응 답 자 학 력	초등학교	30.7(70)	29.8(59)	35.7(35)	31.2(164)
	중학교	33.0(70)	45.7(97)	21.2(45)	40.3(212)
	인문계고	38.6(88)	11.6(23)	10.2(10)	23.0(121)
	실업계고	·	6.6(13)	6.1(6)	3.6(19)
	학교중단	·	3.5(7)	2.0(2)	1.7(9)
동거가족 (복수응답)	조부모	16.3(37)	32.5(64)	24.8(22)	8.5(123)
	부	96.0(218)	73.6(145)	74.2(66)	29.6(429)
	무	98.2(223)	84.8(167)	66.3(59)	31.0(449)
	양부모(계부모)	1.3(3)	3.5(7)	4.5(4)	0.9(14)
	형제자매	88.1(200)	75.6(149)	80.9(72)	29.0(421)
	기타	1.8(4)	4.1(8)	·	0.8(12)
종 교	가톨릭	19.7(45)	12.1(24)	5(5.1)	14.0(74)
	개신교	36.8(84)	44.7(89)	53(54.1)	43.0(266)
	불교	13.6(31)	9.0(18)	16.3(16)	12.3(65)
	무교 · 기타	28.5(65)	31.1(62)	16.3(16)	27.2(143)
	무응답	1.3(3)	3.0(6)	8.2(8)	3.2(17)

IV. 조사분석 및 결과

1. 가치관 및 자신과 주변환경에 대한 인식

빈곤지역의 청소년들은 중산층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많은 부정적 영향들을 다중적인 체계들로부터 받고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들이 자기자신을 포함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체계들 즉 가족, 친구, 학교 그리고 교사에 대해 갖고 있는 만족도를 통해 환경과의 긍정적·부정적 적응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희망등을 성공의식, 삶의 목표, 사회문제와 자신의 장래에 대한 예측 등에 관련된 문항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자신과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에 확립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중의 하나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생활태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알아보는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들은 43.1%가 약한 긍정인 ‘약간 그렇다’ 34.2%가 강한 긍정인 ‘매우 그렇다’에 응답함으로써 8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존중감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 차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일반청소년이 긍정적인 응답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보다 조금씩 높게, 부정적인 응답에서는 조금씩 낮게 응답함으로써 저소득층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자신과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세부계층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무응답		전 체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나는가치있는사람이다 ¹⁾	3.5	2.6	21.6	16.7	39.7	46.1	33.7	34.6	1.5	·	100.0 (199)	100.0 (228)
가정생활만족도 ²⁾	2.0	3.1	15.6	11.4	35.7	29.4	43.7	55.7	3.0	0.4	100.0 (199)	100.0 (228)
원만한친구관계 ³⁾	3.0	1.3	14.6	14.5	41.2	44.3	38.2	39.0	3.0	0.9	100.0 (199)	100.0 (228)
학교생활만족도 ⁴⁾	9.0	8.3	21.1	21.9	40.2	40.8	25.1	27.6	4.5	1.3	100.0 (199)	100.0 (228)
학 교 교 사 선호도 ⁵⁾	16.1	14.5	18.1	21.9	34.7	33.8	26.6	29.4	4.5	0.4	100.0 (199)	100.0 (228)

1) $\chi^2=6.104$, $p>.05$ 2) $\chi^2=10.500$, $p<.05$ 3) $\chi^2=4.305$, $p>.05$ 4) $\chi^2=4.245$, $p>.05$ 5) $\chi^2=1.837$, $p<.05$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생활에 만족한다”는 문항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응답과 긍정적인 응답별로 차이를 알아보면 부정적인 응답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17.6%)이, 일반청소년(14.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인 응답에서는 일반청소년(85.7%)이 저소득층청소년(79.4%)보다 높게 나타나 ‘가족사랑과 가정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저소득계층 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95%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나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들은 42.9%가 약한 긍정인 ‘약간 그렇다’ 38.6%가 강한 긍정인 ‘매우 그렇다’에 응답함으로써 81.5%의 청소년들이 친구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문항에 있어서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과 불만의 비율이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6% 정도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30%정도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가정생활과 친구관계에 비해 10% 이상의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쪽으로 응답하고 있다.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을 좋아한다”에서도 두 계층 청소년 모두 긍정적인 내용에 65% 이상이 응답하여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과의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다른 4개의 문항과 비교해 볼 때 긍정적인 응답을 한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배경변인별 통계결과를 보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초등학생은 23.4%, 중학생은 34.8%, 고등학생은 37.8%로 나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저소득층청소년의 학교급별 학교생활만족도(서울·경기)

단위: % (명)

학교급별	전혀그렇 지않다	별로그렇 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 체
초등학교	9.6	13.8	38.3	36.2	2.1	100.0(94)
중학교	6.4	28.4	36.2	25.5	3.5	100.0(141)
고등학교	17.0	20.8	45.3	13.2	3.8	100.0(53)
학교중단	22.2		66.7	11.1		100.0(9)
전체	9.8	21.5	39.4	26.3	3.0	100.0(297)

$\chi^2=24.590, p<.05$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청소년이나 일반청소년 모두 가정>친구>자신

>학교>교사 순으로 만족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과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적응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복수응답을 하게 한 결과 전체청소년의 경우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53.2%), ‘자기 혼자만 잘 되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39.1%), ‘사람들간에 서로를 믿지 못 한다’(31.5%), ‘부지런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15.3%),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14.8%),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12.5%), ‘밝고 건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10.6%)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배금주의와 이기주의, 불신주의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3> 우리 사회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

단위: %(명)

구 분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59.3	47.8	53.2
자기 혼자만 잘 되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41.2	37.2	39.1
사람들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	32.2	31.0	31.5
부지런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것.	17.1	13.7	15.3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1.1	18.1	14.8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11.6	13.3	12.5
밝고 건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	11.1	10.2	10.6
기 타	2.5	4.0	3.3
전 체	46.8(199)	53.2(226)	100.0(425)

계층간 차이를 보면 <표 IV-3>에서와 같이 다른 응답항목에서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고 있었으나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응답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이 59.5%, 일반청소년이 47.8%로 응답에 계층간에 11.5%의 차이를 보여주어 저소득층청소년들이 배금주의를 사회 문제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성공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주고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전체청소년의 경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다’(59.0%), ‘흥미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33.3%),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다’(32.6%),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31.9%),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이다’(18.3%), ‘서로 돕고 사는 것이다’(15.5%)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이웃이나 사회등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표 IV-4> 성공의식

단위: % (명)

구 분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 체
행복한 가정생활	56.3	61.4	59.0
흥미있는 직업	31.2	35.1	33.3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32.7	32.5	32.6
돈을 많이 버는 것	35.7	28.5	31.9
사회적으로 출세	15.6	20.6	18.3
서로돕고 사는 것	19.1	12.3	15.5
기 타	8.5	17.9	8.2
전 체	46.6(199)	53.4(228)	100.0(427)

의 보람과 성취감보다는 가족과 개인 차원의 행복과 즐거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계층간 차이를 보면 <표IV-4>에서와 같이 다른 응답항에서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고 있었으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라는 응답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35.7%)이 일반청소년(28.5%)보다 7.2% 더 많이 응답함으로써 배금주의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위력과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성공의식에 대해 복수응답을 하게 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노력이나 성실성’(70.0%), ‘본인능력’(69.3%), ‘경제력’(16.3%), ‘가정의 배경’(15.3%), ‘학력’(13.4%), ‘운수와 기회’(10.1%), ‘학교선후배’(0.9%) 순으로 응답하여 70% 정도의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요인이라 밝히고 있다. 계층별로 보면 ‘경제력’과 ‘가정의 배경’을 저소득층청소년이 각각 17.8%, 18.3%, 일반청소년은 15.0%, 12.8%로 응답해 저소득층청소년이 ‘경제력’과 ‘가정의 배경’을 좀 더 많이 성공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학력’(15.0%, 11.7%)과 ‘운수와 기회’(13.7%, 6.1%)에서는 일반청소년이 저소득층청소년보다 더 많이 응답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었다.

<표 IV-5> 성공을 위한 주요 요인

단위 : %(명)

구 분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노력·성실성	68.0	71.8	70.0
본인능력	73.6	66.1	69.6
경제력	17.8	15.0	16.3
가정의 배경	18.3	12.8	15.3
학 력	11.7	15.0	13.4
운수와 기회	6.1	13.7	10.1
학교선후배	0.5	1.3	0.9
기 타	2.5	3.5	3.1
전 체	46.5(197)	53.5(227)	100.0(424)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고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전체 청소년들은 ‘취미·흥미살리기’(54.6%), ‘평범한 사람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38.6%), ‘부자가 되는 것’(26.2%), ‘혼자서 자립하는 것’(19.2%), ‘사회에 공헌하는 것’(18.3%), ‘즐기며 사는 것’(17.8%),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15.7%)순으로 응답하여 성공의식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공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59.0%가 응답하고 ‘흥미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라고 33.3%가 응답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삶의 목표에서는 ‘취미·흥미살리기’가 54.6%, ‘평범한 사람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38.6%로 그 순위가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표 IV-6> 삶의 목표

단위 : %(명)

구 분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취미·흥미 살리기	55.3	55.7	54.6
평범·행복한 가정	42.2	35.5	38.6
부자가 되는 것	29.6	23.2	26.2
혼자서 자립	20.6	18.0	19.2
사회에 공헌	17.1	19.3	18.3
즐기며 사는 것	16.1	19.3	17.8
높은 사회적 지위	13.1	18.0	15.7
기 타	7.5	9.2	8.4
전 체	46.6(199)	53.4(228)	100.0(427)

계층별로 보면 <표 IV-6>에서와 같이 ‘평범한 사람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저소득층청소년42.2%, 일반청소년35.5%)과 ‘부자가 되는 것’(저소득층청소년29.6%, 일반청소년23.2%)을 저소득층청소년이 일

반청소년보다 좀 더 많이 삶의 목표로 지적하고 있는 반면 ‘사회에 공헌하는 것’(저소득층청소년19.3%, 일반청소년17.1%)과 ‘높은 사회적 지위’(저소득층청소년18.0%, 일반청소년13.1%)에서는 일반청소년이 저소득층청소년보다 더 많이 응답하여 사회에 대해 일반청소년들이 조금 더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미래에 대한 전망

“20년 후의 경제수준”에 대한 예측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44%), ‘약간 부유’(37.2%), ‘매우 부유’(13.1%), ‘약간 가난’(3.7%), ‘매우 가난’(1.4%) 순으로 나타나 5.1%만이 가난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50.3%의 청소년들이 부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94.3%의 청소년들이 보통 이상으로 잘 살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계층간의 차이를 보면 ‘매우 가난’(저소득층청소년2.0%, 일반청소년0.9%), ‘약간 가난’(저소득층청소년 5.5%, 일반청소년2.2%), ‘보통’(저소득층청소년50.3%, 일반청소년38.6%) 등

<표 IV-7> 20년 후의 경제수준

단위 : %(명)

세부계층	매우가난	약간가난	보통	약간부유	매우부유	무응답	전 체
저소득층청소년	2.0	5.5	50.3	35.2	7.0		100.0(199)
일반청소년	0.9	2.2	38.6	39.0	18.4	0.9	100.0(228)
전체	1.4	3.7	44.0	37.2	13.1	0.5	100.0(427)

$$\chi^2 = 20.076, p < .001$$

의 응답향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약간 부유’(저소득층청소년39.0%, 일반청소년35.2%), ‘매우 부유’(저소득층청소년18.4%, 일반청소년7.0%)의 응답에서는 일반청소년이 저소득층청소년

보다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20년 후의 경제수준에 대한 전망에서는 계층간의 차이가 확연함을 알 수 있었다.

“20년 후의 행복정도”에 대한 예측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매우 행복’(52.2%), ‘약간 행복’(27.9%), ‘보통’(15.2%), ‘별로 행복하지 못함’(2.3%), ‘전혀 행복하지 못함’(1.6%) 순으로 나타나 3.9%만이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80.1%의 청소년들이 부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미래에는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95.6%의 청소년들이 보통이상으로 잘 살 것이라고 응답하여 경제적 전망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계층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별로 행복하지 못함’(저소득층청소년4.5%, 일반청소년0.4%), ‘전혀 행복하지 못함’(저소득층청소년2.5%, 일반청소년0.9%), ‘약간 행복’(저소득층청소년28.6%, 일반청소년27.2%) 등의 응답항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매우 행복’(저소득층청소년55.7%, 일반청소년48.2%)의 응답에서는 일반청소년이 저소득층청소년보다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20년 후의 행복에 대한 전망에서는 계층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8> 20년 후의 행복정도

단위 : %(명)

세부계층	매우 행복	약간 행복	보통	별로 행복하 지못함	전혀 행복하 지못함	무응답	전체
저소득층청소년	48.2	28.6	15.1	4.5	2.5	1.0	100.0(199)
일반청소년	55.7	27.2	15.4	0.4	0.9	0.4	100.0(228)
전체	52.2	27.9	15.2	2.3	1.6	0.7	100.0(427)

$\chi^2 = 11.004$, $p > .05$

2. 가정생활과 부모역할

가정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삶을 마치는 장場이며, 인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체계systems이다. 모든 인간 발달 단계중에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때는 없다.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부모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과 애정을 공급받는다. 그리고 제2의 성장기인 청소년기에는 성인이 되기 전 단계에 필요한 인간의 모든 영역-신체적·심리적·사회적·지적-의 것을 가정에서 준비하고 점점받게 된다. 따라서 가정이 이러한 인간발달에 있어서의 필요한 제 기능(경제적인 필요, 자녀에 대한 애정, 양육태도, 가정의 화목 등)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현 사회와 후세대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중산층 가정보다는 저소득층 가정이 자녀성장을 위한 필요한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 저소득으로 인해 필요한 영양섭취, 주거환경, 교육비등의 부족과, 부모들이 경제적 가치에 큰 비중을 둠으로 인한 양육부재·무관심 등, 일반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청소년에게는 많은 부분에서 결핍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가정생활의 제 반사항들(가정경제,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자녀들이 보는 부모의 모습)의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1) 가정의 경제수준

(1) 가정의 경제수준과 청소년의 용돈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가정의 경제수준을 어느 정도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 결과는 <표 IV-9>과 같다.

<표 IV-9> 현재 경제수준

단위 : % (명)

세부계층	아주 잘 사는 편	잘 사는 편	보통수준	못 사는 편	아주 못 사는 편	무응답	전체
저소득층청소년	0.5	3.5	54.3	33.2	7.5	1.0	100.0(199)
일반청소년	4.8	26.8	63.6	3.9	0.4	0.4	100.0(228)
전체	2.8	15.9	59.3	17.6	3.7	0.7	100.0(427)

$\chi^2=111.073, p<.001$

저소득층청소년은 ‘아주 잘 사는 편’은 0.5%, ‘잘 사는 편’은 3.5%가 응답한 반면 일반청소년은 각각 4.8%, 26.8%라고 응답함으로써 잘 산다는 응답에서는 일반청소년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리고 ‘못 사는 편’(저소득층청소년 33.2%, 일반청소년 3.9%), ‘아주 못 사는 편’(저소득층청소년 7.5%, 일반청소년 0.4%)이라는 응답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으로써 두 계층 청소년간에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청소년중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이 54.5%나 되는 것은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실제 경제수준과 비교할 때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청소년들이 가정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체감도는 실제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달 수입에 관해 질문한 응답결과에서도 <표 IV-10>에서와 같이 무응답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응답을 기피하거나 수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특정 부분에서는 비현실적인 응답이 보이긴 하나 75%정도의 저소득층청소년이 200만원 이하에 응답했고, 54.7%의 일반청소년들이 200만원 이상에 응답한 것을 보아 가정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가정의 한달 수입

단위 : %(명)

구 분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 체
49만원	23.6	1.3	11.7
50-99만원	24.1	4.4	13.6
100-149만원	17.1	12.7	14.8
150-199만원	10.1	13.2	11.7
200-249만원	3.0	11.8	7.7
250-299만원	1.0	10.5	6.1
300-349만원	0.5	12.7	7.0
350만원 이상	2.5	19.7	11.7
무 응 답	18.1	13.6	15.7
전 체	100.0(199)	100.0(228)	100.0(427)

 $\chi^2=155.245, p<.001$

두 계층 청소년들의 경제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한 가구당 몇 개의 방을 갖고 있는가 알아 보았다. 저소득층청소년들의 가정은 '방2개'(58.3%), '방3개'(28.1%), '방1개'(7.0%), '방4개'(5.5%) 순 이었고, 일반청소년 가정은 '방3개'(51.8%), '방4개'(26.8%), '방2개'(19.3%), '방1개'(0.9%)순인 것으로 나타나 두 계층간의 경제적 차이를 확증해 주었다.

<표 IV-11> 한 가구당 방 수

단위 : %(명)

세부계층	방1개	방2개	방3개	방4개	무응답	전 체
저소득층청소년	7.0	58.3	28.1	5.5	1.0	100.0(199)
일반청소년	0.9	19.3	51.8	26.8	1.3	100.0(228)
전체	3.7	37.5	40.7	16.9	1.2	100.0(427)

 $\chi^2=96.892, p<.001$

(2) 청소년의 용돈

청소년들이 한달 동안 사용하는 용돈을 알아본 결과 <표 IV-12>와 같이 두 계층 청소년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용돈이 ‘전혀 없다’는 경우가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27.1%이고 일반청소년이 14.5%로 12.6%의 차이를 보였으며, ‘천원~만원’의 경우 저소득층청소년은 31.2%, 일반청소년은 33.3%, ‘만원~3만원’의 경우 저소득층청소년 18.1%, 일반청소년 27.3%가 응답하였다. ‘3만원~5만원’의 경우 저소득층청소년 4.5% , 일반청소년 16.7%, ‘5만원~10만원’의 경우 저소득층청소년 0.0%, 일반청소년 7.5%, ‘11만원~20만원’의 경우 저소득층청소년 0.5%, 일반청소년 0.8%, ‘20만원’의 경우 저소득층청소년 0.5%, 일반청소년 1.7%으로 응답함으로써 일반청소년이 저소득층청소년보다 월등히 많은 용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한달 용돈

단위 : %(명)

구 분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없 다	27.1	14.5	20.4
1천~5천원	7.6	10.5	9.1
6천~만원	23.6	15.8	19.5
만원~2만원	11.6	17.5	18.9
2만원~3만원	13.6	10.6	12.0
3만원~5만원	4.5	16.7	11.1
5만원~십만원	0.0	7.5	4.0
11만원~20만원	0.5	0.8	0.6
20만원 이상	0.5	1.7	1.1
무 응 답	2.0	4.4	3.3
전 체	100(199)	100(228)	100(427)

$$\chi^2 = 74.561, p < .001$$

청소년들에게 “용돈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지 물어 본 결과 ‘매우

‘넉넉·넉넉하다’는 응답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이 각각 35.2%, 17.6% 로 응답해 일반청소년의 39%, 22.4% 보다 약간 낮게 답했다. ‘매우부족·부족한 편이다’는 응답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이 30.7%, 일반청소년 28.5%로 저소득층청소년이 약간 높게 응답하여 큰소한 차이를 보이며 저소득층청소년들이 덜 만족하고 있음을 보였다.

<표 IV-13> 용돈 만족도

단위 : %(명)

세부계층	매우넉넉하다	넉넉한 편이다	보통이다	부족한 편이다	매우부족하다	무응답	전 체
저소득층청소년	16.1	19.1	17.6	14.6	16.1	16.6	100.0(199)
일반청소년	17.5	21.5	22.4	19.3	9.2	10.1	100.0(228)
전체	16.9	20.4	20.1	17.1	12.4	13.1	100.0(427)

$$\chi^2 = 10.486, p > .05$$

그러나 저소득층청소년들을 학교급별로 분석해 본 결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간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용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4> 저소득층청소년의 학교급별 용돈 만족도(서울·경기)

단위 : %(명)

학교급별	매우넉넉하다	넉넉한 편이다	보통이다	부족한 편이다	매우부족하다	무응답	전 체
초등학교	27.7	16.0	19.1	9.6	16.0	11.7	100.0(94)
중학교	12.8	19.1	21.3	19.9	14.2	12.8	100.0(141)
고등학교	5.7	7.5	26.4	20.8	17.0	22.6	100.0(53)
미진학	11.1	22.2	11.1	22.2	22.2	11.1	100.0(9)
전체	16.2	16.2	21.2	16.8	15.5	14.1	100.0(297)

$$\chi^2 = 25.377, p < .05$$

<표 IV-14>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매우넉넉·넉넉하다’의 응답에서는 초·중·고의 순으로 높았고, ‘매우부족·부족한 편이다’에서는 초·중·고 순으로 낮음으로써 고등학생들이 용돈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2) 부모역할과 양육태도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가정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이는지를 아버지, 어머니 별로 따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를 비교·분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청소년들의 무응답이 일반청소년보다 많이 나타났다. 또한 가정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느끼는지, 그리고 역할모델로서 부모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1) 아버지의 양육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5가지의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99.9%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보이며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역할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자녀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신다”에 대해 각 척도에 응답하게 한 결과, <표 I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 즉 ‘전혀 대화를 자주 나누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저소득층청소년은 10.1%, 일반청소년은 5.7%로 나타났다. 또한 ‘매우 그렇다’, 즉 ‘대화를 자주 나눈다’라는 항목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이 20.6%의 응답율을 보인 반면, 일반청소년은 32.0%로 나타나, 일반청소년들이 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잘 모른다”에 대한 항목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40.7%,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61.4%여서 저소득층청소년의 아버지가 자녀의 친구관계를 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야단치거나 때리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즉, ‘전혀 야단치거나 체벌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저소득층청소년은 44.7%, 일반청소년은 60.5%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소득층청소년은 17.6%, 일반청소년은 14%가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라고 응답해, 저소득층청소년의 아버지가 일반청소년의 아버지보다 더 자녀들을 야단치거나 체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아버지의 양육태도

단위 : %(명)

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별로 그렇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그렇다		무응답		합 계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자녀들과 자주 대화 ¹⁾	10.1	5.7	23.6	25.9	34.7	35.5	20.6	32.0	11.1	0.9	100.0 (199)	100.0 (228)
자녀친구 파악 ²⁾	17.6	20.6	23.1	40.8	31.7	31.6	17.1	6.1	10.6	0.9	100.0 (199)	100.0 (228)
자주 야단 치거나 체벌 ³⁾	44.7	60.5	26.1	24.1	14.6	9.2	3.0	4.8	11.6	1.3	100.0 (199)	100.0 (228)
가족을 위한 성실성 ⁴⁾	3.0	1.8	10.1	2.6	22.1	9.6	53.3	84.2	11.6	1.8	100.0 (199)	100.0 (228)
자녀에 대한 애정 ⁵⁾	4.5	1.8	3.5	2.6	20.1	16.2	60.3	78.1	11.6	1.3	100.0 (199)	100.0 (228)

1) $\chi^2=27.610$, $P<.001$ 2) $\chi^2=40.494$, $P<.001$ 3) $\chi^2=26.951$, $P<.001$

4) $\chi^2=51.730$, $P<.001$ 5) $\chi^2=26.945$, $P<.001$

가족에 대한 성실성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인 “가족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신다”는 질문에 대해서 역시 세부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53.3%가 ‘매우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일반청소년은 84.2%로 높

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보면, 저소득층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자신의 아버지가 가족에 대해 덜 성실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나를 매우 사랑하신다”라는 항목에서도 역시 저소득층청소년은 60.3%가, 일반청소년은 78.1%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해,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보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덜 사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두 계층 청소년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이 ‘아버지의 성실성’에 관한 문항이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가정의 경제가 아버지의 성실성에 따라 좌우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5가지의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99.9%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보이며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역할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아버지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자녀들과 자주 대화를 하신다”에 대해 전체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부계층별로는 ‘약간그렇다’와 ‘매우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69.8%, 일반청소년은 88.6%로 응답하여 저소득층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어머니와 대화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은 ‘매우그렇다’라는 응답이 12.6%, 일반청소년은 3.5%로 응답해,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청소년의 어머니가 일반청소년의 어머니보다 자녀의 친구관계를 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야단치고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라는 응답이 저소득층청소년은 18.6%, 일반청소년은 15.7%로 나와 저소득층청소년의 어머니가 더 자주 야단치고 체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위한 성실성”의 항목에서는 전체청소년의 92.5%가 어머니가 가족에 대해 성실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청소년은 87.0%가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라고 응답했고, 일반청소년은 97.4%로 거의 100%가까운 응답을 보여, 저소득층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덜 성실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를 매우 사랑하신다”에서도 위의 가족을 위한 성실성 항목과 비슷한 비율을 보여 저소득층청소년은 85.9%, 일반청소년 97.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저소득층청소년이 일반청소년들보다 자신을 어머니가 덜 사랑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어머니의 양육태도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 계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자녀들과 자주 대화 ¹⁾	5.0	2.2	16.6	8.8	29.1	27.2	40.7	61.4	8.5	0.4	100.0 (199)	100.0 (228)
자녀친구 파악 ²⁾	34.2	50.0	23.6	29.4	21.6	16.2	12.6	3.5	8.0	0.9	100.0 (199)	100.0 (228)
자주 야단 치거나 체벌 ³⁾	54.8	62.3	18.1	21.5	13.6	9.6	5.0	6.1	8.5	0.4	100.0 (199)	100.0 (228)
가족을 위한 성실성 ⁴⁾	1.0	0.4	4.0	2.2	15.1	12.3	71.9	85.1	8.0	.	100.0 (199)	100.0 (228)
자녀에 대한 애정 ⁵⁾	2.0	0.4	4.5	2.2	16.6	14.5	69.3	82.9	7.5	.	100.0 (199)	100.0 (228)

1) $\chi^2=33.145$, $P<.001$ 2) $\chi^2=33.416$, $P<.001$ 3) $\chi^2=19.848$, $P<.001$

4) $\chi^2=22.949$, $P<.001$ 5) $\chi^2=24.038$, $P<.00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5개 문항 전체에 걸쳐 전반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해 더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가정생활에서의 문제

각자의 가정생활에 있어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표 IV-17>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가정생활의 문제’의 각 항목에 대해서 일반청소년보다 저소득층청소년들이 많은 응답율을 보였는데, 이는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보다 ‘각자의 가정생활에 있어 문제가 더 많다고 보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IV-17> 가족 문제

단위 : %

항 목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 체
부모님의 이해부족	32.8	44.1	38.6
경제적 어려움	50.3	13.3	31.2
부모와의 대화부족	26.0	17.0	21.4
형제·자매간 불화	18.1	18.1	18.1
부부싸움	16.4	6.4	11.2
집안 식구의 가출	7.3	2.1	4.7
가족간의 폭력	4.5	3.7	4.1
기타	11.9	24.5	18.4
전체	48.5(177)	51.5(188)	100.0(365)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율이 나온 항목은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50.3%)이고, 일반청소년은 ‘부모님의 이해부족’(44.1%)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저소득층청소년은, ‘부모님의 이해부족’(32.8%), ‘부모와의 대화부족’(26.0%), ‘형제자매 불화’(18.1%)등을 가정

생활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은 ‘형제자매간 불화’(18.1)를 가정생활의 두 번째 문제로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와의 대화부족’(17.0%), ‘경제적 어려움(13.3%)’으로 꼽고 있다.

이렇게 저소득층청소년들과 일반청소년들간의 응답의 차이는 ‘가정생활 문제’의 우선 순위 뿐 아니라 복수응답 한 비율(%)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항목의 경우 저소득층청소년은 16.4%가 응답한 반면, 일반청소년은 6.4%만이 가정생활의 문제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역할모델로서의 부모에 대한 평가

역할모델로서의 부모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와 같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두 계층 청소년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매우 그렇다’라는 항목에서 각각 23.1%, 32%, ‘대체로 그렇다’는 32.7%, 43.9% 라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저소득층청소년이 낮았다. 반면 ‘대체로 그렇다’는 저소득층청소년이 25.6%, 일반청소년 16.7%,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 16.6%, 일반청소년은 7.5%로 나타나 부정적인 응답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이 보다 높게 응답함으로써 역할모델로서의 부모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청소년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부모에 대한 평가

단위 : % (명)

세부계층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무응답	전 체
저소득청소년	23.1	32.7	25.6	16.6	2.0	100.0(199)
일반청소년	32.0	43.9	16.7	7.5	-	100.0(228)
전체	27.9	38.6	20.8	11.7	0.9	100.0(427)

$$\chi^2 = 22.704, p < .001$$

그러나 저소득층청소년들에 대한 학교급별 분석결과에서는 용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간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9>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응답을 양분했을 경우, 초·중·고생의 긍정적인 응답은 각각 61.8%, 53.2%, 52.8% 이고 부정적인 응답은 35.1%, 44.7%, 47.2% 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초등학교 30.9%, 중학교 22.7%, 고등학교 7.5% 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는 초등학교 12.8%, 중학교 22.0%, 고등학교 30.2% 로 역순으로 높게 응답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원만한 초등학교시기에 부모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 봄직하다.

<표 IV-19> 저소득층청소년의 학교급별 부모에 대한 평가(서울·경기)

단위 : % (명)

학교급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무응답	전 체
초등학교	30.9	30.9	22.3	12.8	3.2	100.0(94)
중학교	22.7	30.5	22.7	22.0	2.1	100.0(141)
고등학교	7.5	45.3	17.0	30.2	·	100.0(53)
학교중단	·	22.2	44.4	33.3	·	100.0(9)
전체	21.9	33.0	22.2	20.9	2.0	100.0(297)

$\chi^2=24.067$, $p<.05$

3. IMF이후의 가정생활과 지원실태

IMF 경제위기(1997년 12월)는 우리나라 전 사회의 각 부분에 엄청난 파장을 미쳤는데, 특히 대량 해고로 인한 실직사태는 각 가정에까지 경제

적, 심리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각 언론과 매스컴에서는 '실업자, 노숙자'의 증가비율을 연일 보도했는데, 바로 그 실업자와 노숙자는 각 가정을 책임졌던 가장들이었다.

이렇게 경제·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움은 매우 깊었으며, 이 저소득가정속의 청소년들 역시 많은 고통을 겪었다. 물론 최근(1999년 12월 현재)에는 언론을 중심으로 "IMF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실업자, 실업가정이 있으며, 또 만성실업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저소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다.

본 절에서는 IMF경제위기가 청소년들의 가정·학교생활과 그 외의 개인생활 및 경제적인 수준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IMF이후의 가정생활 변화, 주위체제로부터의 원조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또한 이를 계층별로 살펴 보기 위하여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분석하였다.

1) IMF이후의 가정생활 변화

(1) 학원이나 과외교습의 축소 및 중단 경험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학생청소년들은 대학입시의 부담감으로 학교수업외에도 학원수강이나 과외교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로 인해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게 되었다'라는 질문에서 전체 청소년들의 절반 가까운 수가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에서 보듯이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약간그렇다'와 '매우그렇다'의 응답율이 29.2%이고, 일반청소년은 23.6%로서 저소득층청소년이 학원·과외교습의 축소와 중단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학원과 과외교습 축소·중단

단위 : %(명)

세부계층	전혀 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저소득층청소년	50.3	17.1	11.6	17.6	3.5	100.0(199)
일반청소년	58.3	16.7	17.5	6.1	1.3	100.0(228)
전체	54.6	16.9	14.8	11.5	2.3	100.0(427)

$\chi^2= 18.198, p<.001$

그러나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학원이나 과외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두 계층 청소년간의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2) 결식 경험

IMF경제위기 때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내용중의 하나가 아동과 청소년의 결식에 관한 문제였다. 본 조사에서 “식사를 거르거나 도시락을 못 싸 갈 때가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 <표 I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

<표 IV-21> 결식경험(도시락포함)

단위 : %(명)

세부계층	전혀그렇 지않다	별로그렇 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저소득층청소년	70.4	16.1	9.0	3.5	1.0	100.0(199)
일반청소년	94.7	3.5	0.4	0.4	0.9	100.0(228)
전체	83.4	9.4	4.4	1.9	0.9	100.0(427)

$\chi^2= 48.590, p<.001$

소득층청소년은 70.4%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반면, 일반청소년은 94.7%의 응답율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01$)를 보였다. 또,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저소득층청소년은 12.5%,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0.8%로, 저소득층청소년의 결식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저소득층청소년의 연령별 결식경험을 보기 위한 서울과 경기지역의 조사대상 저소득층청소년을 포함한 학교급별 배경변인 분석결과인 <표 IV-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식경험에 있어서 고등학생의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공부방으로부터 급식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결식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22> 저소득층청소년의 학교급별 결식경험(서울·경기)

단위 : %(명)

세부계층	전혀그렇지 않다	별로그렇 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 체
초등학교	71.3	12.8	10.6	4.3	1.1	100.0(97)
중학교	72.3	14.9	8.5	4.3	·	100.0(141)
고등학교	56.6	22.6	11.3	5.7	3.8	100.0(53)
학교중단	66.7	22.2	·	·	11.1	100.0(9)
전체	69.0	15.8	9.4	4.4	1.3	100.0(297)

$$\chi^2 = 16.474, p < .05$$

(3) 준비물, 학용품, 생활용품 등의 준비 미비 경험

또한 “준비물, 학용품, 생활용품 등을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한다”의 문항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의 51.3%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 일반청소년은 75.9%로 나타나 역시 저소득층청소년들이 학

교생활과 기타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지 못한 경험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23> 준비물, 학용품, 생활용품 구입 못해본 경험
단위 : % (명)

세부계층	전혀그렇 지않다	별로그렇 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 체
저소득층청소년	51.3	20.6	19.1	8.0	1.0	100.0(199)
일반청소년	75.9	13.2	10.1	-	0.9	100.0(228)
전체	64.4	16.6	14.3	3.7	0.9	100.0(427)

$\chi^2=37.929, p<.001$

(4) 주위의 사회체계로부터의 지원 여부

IMF경제위기 이후 ‘이웃이나 친척, 또는 공공기관의 원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표 IV-24>에서 보듯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저소득층청소년에게는 48.2%,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92.1%로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웃이나 친척, 공공기관등의 사회체계social systems로부터 원조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4> 이웃이나 친척,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원조
단위 : %(명)

세부계층	전혀그렇 지않다	별로그렇 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 체
저소득층청소년	48.2	17.1	25.6	8.0	1.0	100.0(199)
일반청소년	92.1	4.8	1.3	0.9	0.9	100.0(228)
전체	71.7	10.5	12.6	4.2	0.9	100.0(427)

$\chi^2=106.302, p<.001$

(5) 건강 및 의료분야의 변화

<표 IV-25>는 IMF경제위기가 건강관리 및 치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의 실태를 알 수 있는 도표이다. “아픈 사람이 있어도 병원에 못 간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청소년의 7%만이 ‘약간그렇다’와 ‘매우그렇다’고 응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병원에는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층별로 살펴보았을 때 일반청소년의 경우 1.8%인데 반해,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13.1%의 청소년들이 병원조차도 가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25> 질병발생시 병원이용을 못하는 정도

단위 : %(명)

세부계층	전혀그렇 지않다	별로그렇 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 체
저소득층청소년	68.8	16.6	11.1	2.0	1.5	100.0(199)
일반청소년	93.9	3.5	1.8	-	0.9	100.0(228)
전체	82.2	9.6	6.1	0.9	1.2	100.0(427)

 $\chi^2=47.045, p<.001$

또한 질병발생시 병원이용도에 대해 저소득층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차이를 본 결과 “아픈 사람이 있어도 병원에 못 간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초동학생 66.0%, 중학생 73.0%, 고동학생 50.9%라고 나타나 고동학생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저소득층청소년의 학교급별 병원이용도(서울·경기)

단위 : %(명)

학교급별	전혀그렇 지않다	별로그렇 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 체
초등학교	66.0	13.8	16.0	4.3	·	100.0(94)
중학교	73.0	14.2	9.9	2.1	0.7	100.0(141)
고등학교	50.9	26.4	17.0	1.9	3.8	100.0(53)
학교중단	66.7	22.2	·	·	11.1	100.0(9)
전체	66.7	16.5	12.8	2.7	1.3	100.0(297)

$\chi^2 = 22.323, p < .05$

(6) 생활공간의 축소

경제적인 위기가 주거공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집을 축소해서 이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역시 저소득층청소년은 12.0%, 일반청소년은 5.7%가 ‘약간·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일반청소년보다 두배 이상 많은 비율의 저소득층청소년이 IMF이후 집을 줄여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주거생활공간의 축소

단위 : %(명)

세부계층	전혀그렇 지않다	별로그렇 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저소득층청소년	69.8	16.1	8.0	4.0	2.0	100.0(199)
일반청소년	87.3	6.1	3.1	2.6	0.9	100.0(228)
전체	79.2	10.8	5.4	3.3	1.4	100.0(427)

$\chi^2 = 20.293, p < .001$

(7) 용돈의 감소

IMF이후 용돈이 감소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표 IV-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청소년의 29.8%가 용돈이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청소년이 40.2%, 일반청소년이 그 절반 정도인 20.6%로 응답하여 저소득층청소년이 IMF로 인해 용돈사용이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28> 용돈의 감소

단위 : %(명)

세부계층	전혀그렇 지않다	별로그렇 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 체
저소득층청소년	44.2	13.1	19.6	20.6	2.5	100.0(199)
일반청소년	69.7	8.3	15.8	4.8	1.3	100.0(228)
전체	57.8	10.5	17.6	12.2	1.9	100.0(427)

$$\chi^2 = 37.630, p < .001$$

(8) 경제적인 수입감소로 인한 부모관계 악화

IMF경제위기가 가정생활에까지, 특히 부모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한 '수입이 줄어 부모님 사이가 나빠졌다' 질문에서 일반청소년이 '전혀 그렇지않다'는 강한 부정적인 응답에서 80.3%의 높은

<표 IV-29> 수입감소로 인한 부모관계 악화

단위 : %(명)

세부계층	전혀그렇 지않다	별로그렇 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 체
저소득층청소년	57.3	19.1	14.6	6.0	3.0	100.0(199)
일반청소년	80.3	8.3	7.9	1.8	1.8	100.0(228)
전체	69.6	13.3	11.0	3.7	2.3	100.0(427)

$$\chi^2 = 27.495, p < .001$$

응답율을 보인 반면, 저소득층청소년은 57.3%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청소년은 20.6%, 일반청소년은 9.7%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어 경제적인 수입감소로 인해 일반청소년들보다, 저소득층청소년의 부모관계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9) 가족간의 폭력·다툼 경험

“IMF이후 가족간의 폭력 사용”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90%를 차지했으나, 아주 강한 부정인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일반청소년(88.2%)이 저소득층청소년(70.4%)보다 높게 응답하고 폭력·다툼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9.5%)이 일반청소년(3.1%)보다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청소년들이 가정폭력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 가족간에 다툼 및 폭력사용

단위 : % (명)

세부계층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무응답	전체
저소득층청소년	70.4	19.1	7.5	2.0	1.0	100.0(199)
일반청소년	88.2	7.5	1.8	1.3	1.3	100.0(228)
전체	79.9	12.9	4.4	1.6	1.2	100.0(427)

$$\chi^2 = 23.782, p < .001$$

(10) 부모의 실직으로 인한 가정해체

실직으로 인한 가정해체현상에 대해서 전체청소년의 5.8%만이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계층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표 IV-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청소년이 0.8%의 극히 미미한 응답을 보인 반면,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는 11.5%로 나

타나 역시 저소득층청소년의 ‘부모의 실직으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31> 부모님의 실직으로 인한 가정해체

단위 : %(명)

세부계층	전혀그렇 지않다	별로그렇 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저소득층청소년	79.9	6.0	6.0	5.5	2.5	100.0(199)
일반청소년	96.9	0.4	0.4	0.4	1.8	100.0(228)
전체	89.0	3.0	3.0	2.8	2.2	100.0(427)

$\chi^2 = 35.369, p < .001$

이상의 10개의 문항을 통해 IMF이후의 가정생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 결과 모든 문항의 응답결과들은 저소득층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열등하고 결핍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결식경험, 준비물등의 구입, 주위로부터의 지원, 병원 이용, 용돈의 감소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입감소로 인한 부부관계의 악화, 가족간의 폭력사용, 부모의 실직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의 문항의 결과는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의 문제들을 검증해 주고 있어 이러한 가정의 문제들이 청소년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2) 주위체계로부터의 지원·원조에 관한 사항

(1) 원조여부

조사대상 청소년과 청소년의 가족이 주위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이 93.0%, 일반청소년

이 4.4%로 응답해 두 계층 청소년간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공부방이나 복지관등 기관을 통한 표집이므로 대부분 그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V-32> 외부 지원체계의 원조여부

단위 : %(명)

세부계층	있다	없다	무응답	전 체
저소득층청소년	93.0	7.0	-	100.0(199)
일반청소년	4.4	94.3	1.3	100.0(228)
전체	45.7	53.6	0.7	100.0(427)

$$\chi^2 = 336.055, p < .001$$

(2) 지원체계

<표 IV-33> 지원체계

단위 : %(명)

항 목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 체
민간복지단체	49.5	9.1	47.2
사회복지관	34.8	27.3	34.4
구청·동회	31.5	18.2	30.8
종교기관	21.2	9.1	20.5
학 교	12.5	9.1	12.3
친 척	10.3	27.3	11.3
이 웃	2.7	27.3	4.1
병원·의원	1.6	9.1	2.1
개인독지가	2.2	0.0	2.1
기 타	3.3	18.2	4.1
전 체	94.4(184)	5.6(11)	100.0(195)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등의 지원체계에 대해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민간복지단체’가 49.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관’이 34.8%, ‘구청·동회’등의 정부기관이 31.5%로 응답되었으며, 이외에도 ‘종교기관’(21.2%), ‘학교’(12.5%), ‘친척’(10.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청소년의 경우, 친척과 이웃이 동일하게 27.3%로 응답되었는데, 이 항목들은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주 낮은 응답율을 보인 것들이다.

(3) 지원종류

어떠한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역시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표 IV-34>와 같이 저소득청소년의 경우 상담·정서적 지원이 81.0%, 놀이방·공부방·신나는집이 65.2%, 경제적도움(현금지원)이 37.5%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이외에도 생활보호대상자 33.2%, 무료급식 28.8%로 나타났다.

<표 IV-34> 지원종류

단위 : %(명)

항 목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33.2	50.0	33.5
한시생활보호자	5.4	0.0	5.3
경제적 도움(현금지원)	37.5	25.0	37.2
물품지원	6.5	0.0	6.4
일자리 알선	3.3	0.0	3.2
직업훈련,기술교육	2.2	25.0	2.7
놀이방, 공부방,신나는집	65.2	0.0	63.8
실업자를 위한 쉼터	0.0	0.0	0.0
상담 또는 정서적 지원	81.0	25.0	79.8
무료급식(식사)	28.8	0.0	28.2
전체	97.9(184)	2.1(4)	100.0(188)

역시 이 조사항목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공부방이나 복지관등의 기관을 통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지원이나 서비스를 많이 응답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중 아주 적은 숫자만이 생활보호지원, 현금지원, 상담 또는 정서적 지원으로 응답했다<표 IV-34 참조>.

4. 청소년의 고민과 문제행동

신체적·정서적인 면에서 청소년기 자체가 주는 고민과 갈등은 매우 많다. 그러나 주변환경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과 더불어 청소년기 특유의 불안정한 감정과 충동적인 행동은 바로 문제행동으로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들 주변에 고민거리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의논할 수 있는 어떤 의미있는 타자他者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의 경험과, 최근 이슈화된 집단따돌림(왕따)실태, 그리고 고민거리와 이를 위한 대화상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하였으며, 역시 모든 항목에 대해 일반청소년의 경우와 비교·분석하였다.

1)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담배, 술, 폭력, 절도, 약물복용, 가출, 음란매체경험, 성접촉, 자살충동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표 IV-35>와 같이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배경변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폭력’행동에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을 뿐 다른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비교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35>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경험

단위 : %

항 목	한번도해본 적이 없다		한두번해본 적이 있다		가끔한다		자주한다		무응답		전 제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흡연경험 ¹⁾	65.8	73.2	19.6	11.0	5.0	5.3	9.0	10.5	0.5	·	100.0 (199)	100.0 (228)
음주경험 ²⁾	48.7	41.2	35.2	33.8	10.5	14.0	5.0	11.0	0.5	·	100.0 (199)	100.0 (228)
폭력사용 (대인·대물) ³⁾	42.2	63.6	45.7	28.5	8.4	4.4	3.5	3.5	0.5	·	100.0 (199)	100.0 (228)
절도 (돈·물건) ⁴⁾	66.8	67.5	29.1	29.8	2.5	2.2	1.0	0.4	0.5	·	100.0 (199)	100.0 (228)
약물복용,본드 부탄가스 ⁵⁾	94.5	95.5	4.5	4.4	1.0	·	·	·	·	·	100.0 (199)	100.0 (228)
가출경험 ⁶⁾	84.4	89.5	12.6	8.3	2.5	1.8	0.5	0.4	·	·	100.0 (199)	100.0 (228)
음란만화· 잡지 구독 ⁷⁾	59.3	63.5	30.7	26.7	7.0	7.0	3.0	1.7	·	0.9	100.0 (199)	100.0 (228)
음란영화· 비디오 시청 ⁸⁾	60.8	60.5	28.1	30.2	7.5	5.7	3.5	2.2	·	1.3	100.0 (199)	100.0 (228)
이성과의 성적인 접촉 ⁹⁾	86.9	87.7	10.0	6.6	1.5	3.5	1.0	1.3	0.5	0.8	100.0 (199)	100.0 (228)
자살충동 ¹⁰⁾	36.2	45.6	45.2	36.4	11.1	11.4	7.5	6.1	·	0.4	100.0 (199)	100.0 (228)

1) $\chi^2 = 6.369$, $p > .05$ 2) $\chi^2 = 7.014$, $p > .05$ 3) $\chi^2 = 20.020$, $p < .001$ 4) $\chi^2 = .554$, $p > .05$

5) $\chi^2 = 2.310$, $p > .05$ 6) $\chi^2 = 2.455$, $p > .05$ 7) $\chi^2 = 1.596$, $p > .05$ 8) $\chi^2 = 1.355$, $p > .05$

9) $\chi^2 = 3.307$, $p > .05$ 10) $\chi^2 = 4.649$, $p > .05$

대부분의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많은 비행과 문제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 일반청소년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조사대상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이용기관(복지관, 공부방 등)을 통해서 많은 지도와 지지 support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폭력’행동에 대해서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응답결과를 살펴 보면,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각각 42.2%, 63.6%, ‘한두번 해본 적이 있다’ 54.1%, 32.9%, ‘자주 한다’는 동물로 나타나 저소득층청소년이 더 ‘폭력’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소득층청소년의 연령대별에 따른 문제행동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경기지역의 조사대상자 저소득층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급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약물사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고등학생보다는 학교중단 청소년의 경우가 더 높은 비율로 문제행동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이 낮을 때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담배, 술, 음란인쇄물, 음란영상물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일탈행동 빠지기 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표 IV-36> 저소득층청소년 학교급별 문제행동경험(서울·경기)

단위 : %(명)

문제 행동	학 교	한번도해본 적이없다	한두번해본 적이있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무응답	전체	비 고
담 배 경험	초등학교	83.0	14.9	·	1.1	1.1	100.0(94)	$\chi^2=111.832$ p<.001
	중학교	64.5	25.5	4.3	5.7	·	100.0(141)	
	고등학교	56.6	17.0	13.2	13.2	·	100.0(53)	
	학교중단	·	11.1	·	88.9	·	100.0(9)	
	전 체	67.0	20.0	4.3	8.1	0.3	100.0(297)	

문제 행동	학 교	한번도해본 적이없다	한두번해본 적이있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무응답	전 체	비 고
음주 경험	초등학교	70.2	25.5	2.1	1.1	1.1	100.0(94)	$\chi^2=111.400$ $p<.001$
	중학교	55.3	38.3	3.5	2.8	·	100.0(141)	
	고등학교	22.6	35.8	32.1	9.4	·	100.0(53)	
	학교중단	·	11.1	44.4	44.4	·	100.0(9)	
	전 체	52.5	32.9	9.4	4.7	0.3	100.0(297)	
폭력 사용	초등학교	52.1	36.2	8.5	2.1	1.1	100.0(94)	$\chi^2=18.438$ $p>.05$
	중학교	44.7	45.4	6.4	3.5	·	100.0(141)	
	고등학교	43.4	47.2	5.7	1.9	1.9	100.0(53)	
	학교중단	11.1	55.6	11.1	22.2	·	100.0(9)	
	전 체	45.7	43.0	7.0	3.3	0.6	100.0(297)	
절도 경험	초등학교	74.5	23.4	1.1	·	1.1	100.0(94)	$\chi^2=32.503$ $p<.001$
	중학교	66.0	30.5	0.7	1.4	1.4	100.0(141)	
	고등학교	50.9	39.6	9.4	·	·	100.0(53)	
	학교중단	44.4	33.3	11.1	11.1	·	100.0(9)	
	전 체	65.3	29.9	2.6	1.0	0.6	100.0(297)	
약물 사용	초등학교	92.6	5.3	2.1	·	·	100.0(94)	$\chi^2=51.122$ $p<.001$
	중학교	97.2	2.1	·	·	0.7	100.0(141)	
	고등학교	94.3	3.8	·	·	1.9	100.0(53)	
	학교중단	66.7	22.2	·	11.1	·	100.0(9)	
	전 체	94.3	4.0	0.7	0.3	0.7	100.0(297)	
가출 경험	초등학교	91.5	6.4	1.1	·	1.1	100.0(94)	$\chi^2=35.353$ $p<.001$
	중학교	80.9	15.6	1.4	1.4	0.7	100.0(141)	
	고등학교	73.6	18.9	3.8	1.9	1.9	100.0(53)	
	학교중단	44.4	22.2	22.2	11.1	·	100.0(9)	
	전 체	81.8	13.5	2.4	1.3	1.0	100.0(297)	

문제 행동	학 교	한번도해본 적이없다	한두번해본 적이있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무응답	전체	비 고
음란 인쇄 물 구독	초등학교	84.0	12.8	1.1	2.1	·	100.0(94)	$\chi^2=61.846$ $p<.001$
	중학교	53.9	39.7	3.5	2.8	·	100.0(141)	
	고등학교	37.7	41.5	18.9	1.9	·	100.0(53)	
	학교중단	11.1	44.4	33.3	11.1	·	100.0(9)	
	전 체	59.3	31.6	6.4	2.7	·	100.0(297)	
음란 영상 물 시청	초등학교	81.9	11.7	3.2	2.1	1.1	100.0(94)	$\chi^2=55.183$ $p<.001$
	중학교	61.0	32.6	2.8	3.5	·	100.0(141)	
	고등학교	35.8	43.4	18.9	1.9	·	100.0(53)	
	학교중단	11.1	55.6	22.2	11.1	·	100.0(9)	
	전 체	61.6	28.6	6.4	3.0	0.3	100.0(297)	
성접 촉	초등학교	94.7	4.3	1.1	·	·	100.0(94)	$\chi^2=41.533$ $p<.001$
	중학교	90.1	7.1	0.7	1.4	0.7	100.0(141)	
	고등학교	81.1	15.1	1.9	·	·	100.0(53)	
	학교중단	22.2	55.6	·	11.1	11.1	100.0(9)	
	전 체	87.9	9.1	1.0	1.0	1.0	100.0(297)	
자살 충동	초등학교	56.4	30.9	8.5	4.3	·	100.0(94)	$\chi^2=25.365$ $p<.05$
	중학교	32.6	47.5	9.9	9.2	0.7	100.0(141)	
	고등학교	22.6	50.9	17.0	9.4	·	100.0(53)	
	학교중단	33.3	33.3	11.1	22.2	·	100.0(9)	
	전 체	38.4	42.4	10.8	8.1	0.3	100.0(297)	

2) 집단따돌림(왕따)

(1) 집단따돌림의 실태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왕따)를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표 IV-37>에서와 같이 전체청소년의 7.9%만이 집단따돌림의 경험이 '있

다'라고 응답했으며, 90.1%의 청소년이 '없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세부 계층 변인별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은 왕따를 경험한 적이 '있다'가 13.0%, 일반청소년은 3.5%만이 응답하여 저소득층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4배 정도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조사대상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를 <표 IV-38>에서와 같이 학교급별로 살펴보았을 때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왕따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초등학교생이 22.3%, 중학생이 8.5%, 고등학생이 9.4%, 학교중단청소년이 11.1%로 나와, 특히, 나이 어린 초등학교생이 집단따돌림(왕따)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경험유무실태

단위 : %(명)

세부계층	있다	없다	무응답	전 체
저소득층청소년	13.0	83.9	3.0	100.0(199)
일반청소년	3.5	95.6	0.8	100.0(228)
전체	7.9	90.1	1.8	100.0(427)

$$\chi^2 = 13.772, p < .001$$

<표 IV-38> 저소득층소년의 학교급별 집단따돌림 경험실태(서울·경기)

단위 : %(명)

학교급별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초등학교	22.3	75.5	2.1	100.0(94)
중학교	8.5	88.6	2.8	100.0(141)
고등학교	9.4	88.6	1.8	100.0(53)
학교중단	11.1	88.8	.	100.0(9)
전체	13.1	83.8	2.3	100.0(297)

$$\chi^2 = 10.238, p < .05$$

(2) 집단따돌림의 이유

“집단따돌림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방적인 질문을 한 결과, 저소득층청소년에게서는 주로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조용해서’, ‘얼굴(외모)가 못생겨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공부를 못해서’라는 응답이 나온 반면,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로 ‘잘난척해서’, ‘다른 아이들이 시기해서’등의 응답이 나왔다.

3) 고민 · 걱정거리와 대화상대

(1) 고민·걱정거리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3가지 선택의 복수응답을 하게 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39>와 같다. 전체적으로 조사응답대상 청소년이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은 유사한 다른 연구결과¹²⁾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공부 · 학업성적’(22.9%)이었다. 이 항목에 대해, 세부계층별인별로 보면, 저소득층청소년이 21.7%, 일반청소년이 24.0%의 응답율을 보여 일반청소년이 조금 더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조사대상청소년의 13.1%가 응답한 ‘진학 · 취업’항목인데, 세부계층별로는 저소득층청소년이 12.5%, 일반청소년의 13.6%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로는 ‘성격’이 11.2%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청소년의 9.0%가, 일반청소년의 13.6%가 응답하였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외모가 그 다음항목으로 꼽혔는데 전체 청소년의 10.1%가 답하였다. 세부계층별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11.1%가, 일반청소년의 9.1%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용돈부족’(7.9%), ‘가족(7.7%)’, ‘경제적어려움’(7.7%)등을 꼽았으며, 일반청소년은

12) 한 · 중 · 일 청소년 의식 비교연구(1997. 한국청소년개발원)

학생 생활 · 의식 실태조사(199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민이 없다’(6.3%), ‘이성교제’(5.9%), ‘용돈’(5.2%)과 ‘건강부족’(5.2%)을 꼽았다. 전체적으로 ‘공부·학업성적’, ‘진학·취업’에서는 일반청소년이 높은 응답율을 보인 반면, ‘용돈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항목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응답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9> 조사대상청소년들의 고민·걱정거리

단위 : %(명)

항 목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 체
공부·학업성적	57.4	61.4	59.5
진학·취업	33.0	35.0	34.0
성격	23.9	33.6	29.0
외모	29.4	23.3	26.2
용돈부족	20.8	13.5	16.9
가족	20.3	10.3	15.0
건강	14.2	13.5	13.8
이성교제	11.2	15.2	13.3
경제적 어려움	20.3	3.1	11.2
학교	9.6	9.0	9.3
동성친구	3.0	9.9	6.7
성(sex)문제	4.1	4.0	4.0
기타	2.5	6.3	4.5
없다	13.2	16.1	14.8
전 체*	46.9(197)	53.1(223)	100.0(420)

* 복수응답하게 한 것임

이외에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 저소득층청소년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과 ‘가정불화’, ‘성적이

안 좋은 것'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외에 '부모의 지나친 기대로 인한 부담감', '친구들의 수군거림' 등의 응답이 나왔다. '희망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IMF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아빠가 술 취하지 않고 욕도 안 했으면 좋겠다', '내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배우고 싶은 학원에 다니고 싶다', '아버지가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응답도 나왔다.

이렇게 저소득층청소년이 주로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불화등에 대해 힘들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해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성적이 떨어져 고민이다', '하루에 1시간씩은 놀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용돈을 더 받고 싶다', '우리 나라 교육방식이 싫다', '놀러 갈 곳이 없다',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부모님의 간섭이 싫다', '학원에 가는 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잠을 많이 자고 싶다', '이 사회가 싫다'등의 응답이 나와, 저소득층청소년의 주요 고민과 희망사항과는 차이를 보였다.

(2) 대화상대

청소년들이 위와 같은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40>과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또래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을 반영하듯 전체적으로 41.9%의 청소년이 '친구'를 대화상대로 응답했다. 세부계층별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42.4%, 일반청소년의 41.3%로 나타나 계층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 다음으로 고민의 대화상대를 전체청소년 모두 '부모님'(24.5%)으로 꼽았으며, 계층별인별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19.6%, 일반청소년의 29.0%가 응답해, 저소득층청소년이 일반청소년들보다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 '부모'와 대화를 적게 하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앞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분석에서 부·모 모두 저소득층청소년이 일반청소년들보다 부

모와의 대화를 덜 하고 있다고 나온 결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진술되어질 ‘여가활동’에 대한 분석에서도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서 ‘가족대화·모임’, ‘가족여행’등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온 결과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표 IV-40> 걱정·고민거리 대화 대상

단위 : %(명)

항 목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 체
부모님	33.0	48.2	41.1
친구	71.6	69.2	70.3
형제자매	13.9	14.3	14.1
이성친구	8.2	8.9	8.6
전문상담원(카운셀러)	0.5	0.4	0.5
성직자(목사, 신부, 스님)	2.6	1.3	1.9
학교선생님	4.6	0.9	2.6
공부방(복지관)선생님	6.7	0.4	3.3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11.3	12.5	12.0
대화할 사람이 없다	13.4	9.4	11.2
전체	46.4(194)	53.6(224)	100.0(418)

* 복수응답하게 한 것임

이외의 고민에 대한 대화상대에 대해서 계층별로 살펴본 결과, ‘형제자매’(저소득층청소년8.3%, 일반청소년8.5%), ‘대화할 사람이 없다’(저소득층청소년7.9%, 일반청소년5.9%),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는다’(저소득층청소년6.7%, 일반청소년7.5%), ‘이성친구’(저소득층청소년4.9% 일반청소년5.3%)로 나타났다.

5. 학업과 진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가장 큰 문제는 학업과 진로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것은 진로가 단순히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직업이라기 보다는 한 개인이 일생을 통해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거쳐가는 모든 체험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학업은 이러한 진로를 선택하고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 기초를 마련해 주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의 목표인 자신의 흥미와 취미를 살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올바른 진로선택과 학업성취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저소득층청소년들의 학업과 진로에 관련된 실태와 욕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희망 학력

희망학력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하는가?”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67.7%가 ‘대학교졸업’을, 22%가 ‘대학원 졸업’을, 8.9%가 ‘고교졸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표 IV-41> 희망학력

단위 : %(명)

세부계층	중학교졸업	고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이상	무응답	전 체
저소득층청소년	1.0	13.6	71.4	13.6	0.5	100.0(199)
일반청소년	0.4	4.8	64.5	29.4	0.9	100.0(228)
전체	0.7	8.9	67.7	22.0	0.7	100.0(427)

$$\chi^2 = 22.646, p < .01$$

이를 계층별로 보면 ‘대학교졸업’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71.4%)이 일반청소년(64.5%)보다 6.9% 높게 응답했으나 ‘대학원이상’에서는 일반청소년(29.4%)이 저소득층청소년(13.6%)보다 15.8% 높게 응답하였고 ‘고등학교졸업’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13.6%)이 일반청소년(4.8%)보다 높게 응답해 희망학력에 있어 계층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이 희망하는 단계까지 학교를 마칠 수 있다고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저소득층청소년(45.7%)과 일반청소년(39.9%) 모두 ‘약간 확신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매우 확신한다’에서 일반청소년(36%)이 저소득층청소년(20.6%)보다 15.4%나 많이 응답하고 ‘별로 확신하지 않는다’에서 일반청소년(20.2%)이 저소득층청소년(26.6%)보다 6.4% 적게 응답하여 희망하는 단계까지 학교를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저소득층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음이 발견되었다.

<표 IV-42> 희망학력 성취에 대한 확신정도

단위 : % (명)

세부계층	매우확신	약간확신	별로 확신않함	전혀 확신않함	무응답	전체
저소득층청소년	20.6	45.7	26.6	1.5	5.5	100.0(199)
일반청소년	36.0	39.9	20.2	0.9	3.1	100.0(288)
전체	28.8	42.6	23.2	1.2	4.2	100.0(427)

$$\chi^2 = 13.342, p < .01$$

이어서 확신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는데 저소득층청소년은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30.8%), ‘노력부족’(29.5%), ‘능력부족’(16.7%), ‘경제적 곤란’(7.7%) 순으로 응답했고, 일반청소년의 경우 ‘노력부족’(43.5%),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31.9%), ‘능력부족’(11.6%), ‘부모님의 이해부족’(1.4%)로 나타났다. 일

반청소년이 ‘노력부족’에 치중한 반면 저소득층청소년은 ‘능력부족’과 일반 청소년이 한 명도 응답하지 않은 ‘경제적곤란’은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청소년들의 한정된 여건과 환경의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IV-43> 희망학력 불성취 이유

단위 : %(명)

항 목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 체
노 력 부 족	29.5	43.5	36.1
능 력 부 족	16.7	11.6	14.3
공부에 흥미없음	30.8	31.9	31.3
부모님의 이해부족	.	1.4	0.7
경제적 곤란	7.7	.	4.1
기 타	3.8	2.9	3.4
무 응 답	11.5	8.7	10.2
전 체	100.0(78)	100.0(69)	100.0(147)

$\chi^2=9.487, p>.05$

2) 희망 직업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고 2가지씩 선택하게 한 결과 <표 IV-44>와 같은 응답을 얻었다. 많이 선택한 순으로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원하는 직업을 10가지씩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청소년은 ‘연예인’(34.8%), ‘교사’(16.2%), ‘운동선수’(15.2%), ‘컴퓨터프로그래머’(13.6%), ‘의상디자이너’(13.1%), ‘만화가’(8.1%), ‘경찰·군인’(7.6%), ‘판사·변호사·검사’(6.6%), ‘의사’(6.1%), ‘과학자’(5.6%) 순으로 응답했고, 일반청소년은 ‘연예인’(19.5%), ‘교사’(15.4%), ‘의사’(12.7%), ‘아나운서·PD’(12.7%), ‘과학자’(12.2%), ‘사업가·전문경영인’(11.3%), ‘판

사·변호사·검사'(10.9%), '컴퓨터프로그래머'(10.4%), '의상디자이너'(10.4%), '운동선수'(8.1%) 순으로 응답했다.

<표 IV-44> 희망 직업

단위 : % (명)

직업명	저소득	일반 청소년	전체	직업명	저소득	일반 청소년	전체
교사	16.2	15.4	15.8(66)	경찰·군인	7.6	4.5	6.0(25)
교수	3.0	16.3	4.8(20)	작가	5.1	5.0	5.0(21)
과학자	5.6	12.2	9.1(38)	화가	2.0	1.4	1.7(7)
공무원	4.0	4.5	4.3(18)	만화가	8.1	4.5	6.2(26)
정치인·외교관	2.5	2.3	2.4(10)	아나운서·PD	3.5	12.7	8.4(35)
판사·변호사	6.6	10.9	8.8(37)	기자	1.5	5.9	3.8(16)
의사	6.1	12.7	9.5(40)	광고인	3.5	7.2	5.5(23)
간호사	3.0	1.8	2.4(10)	컴퓨터프로그래머	13.6	10.4	11.9(50)
약사	0.5	1.8	1.2(5)	의상디자이너	13.1	10.4	11.7(49)
농·축·수산업	0.0	0.0	0.0(0)	헤어디자이너	3.5	0.9	2.1(9)
상업	2.0	0.9	1.4(6)	연예인	34.8	19.5	26.7(112)
사업가·전문경영인	4.0	11.3	7.9(33)	영화감독	0.5	1.8	1.2(5)
회사원·은행원	4.0	3.6	3.8(16)	운동선수	15.2	8.1	11.5(48)
기술자	4.0	1.8	2.9(12)	사회복지가	3.5	2.3	2.9(12)
건축가	4.0	0.9	2.4(10)	성직자	3.0	0.0	1.49(6)
파일럿	3.5	5.0	4.3(18)	기타	10.1	11.3	10.7(45)
비행기승무원	1.0	0.9	1.0(4)	전체	47.3(198)	52.7(221)	100.0(419)

10위 안에 드는 희망직업이 대체로 유사했으나 그 중 2 직종씩 차이를 보였다. 일반청소년들이 '사업가·전문경영인'과 '아나운서·PD'를 많이

선택한 반면, 저소득층청소년들은 ‘만화가’와 ‘경찰·군인’을 많이 선택하였다. 두 계층의 청소년들 모두 ‘연예인’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는데 18.6%라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 월등히 많은 수가 연예인을 희망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3) 과외활동

청소년들이 학교공부 외에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 지도 받고 있는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공부 외에 현재 학원에 다니거나 개인(집단)지도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대로 선택하게 한 결과 양 계층 청소년들이 지도받고 있는 활동은 <표 IV-45>에서와 같이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45> 현재 하고 있는 과외활동

단위 : %(명)

항 목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공부방·신나는집	57.1	5.8	29.9
가정교사·과외	3.0	30.4	17.5
학습지 구독	5.6	29.5	18.2
영어학원	4.0	31.7	18.7
속셈·주산학원	8.1	25.0	17.1
진학을 위한 학원	3.5	17.4	10.9
지역사회복지관(피아노, 영어등)	18.7	4.0	10.9
체육관	5.1	11.6	8.5
컴퓨터학원	6.1	7.1	6.6
피아노학원	4.5	7.1	5.9
없다	14.6	12.5	13.5
기타	5.6	18.8	12.6
전체	46.9(198)	53.1(224)	100.0(422)

저소득층청소년들이 ‘공부방’(57.1%)과 ‘지역사회복지관 프로그램’(18.7%)에 주로 의존하고 ‘속셈·주산학원’(8.1%), ‘컴퓨터학원’(6.1%), ‘학습지구독’(5.6%), ‘체육관’(5.1%)등에 소수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일반청소년들은 비교적 다양한 활동에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일반청소년들은 ‘영어학원’(31.7%), ‘가정교사·과외’(30.4%), ‘학습지구독’(29.5%), ‘속셈·주산학원’(25%), ‘진학을 위한 학원’(17.4%), ‘체육관’(11.6%)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업을 보완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고 있었다.

현재 하고 있는 과외활동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과외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활동”에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컴퓨터학원’(42.3%), ‘운동(태권도·헬스등)’(33.9%), ‘피아노학원’(18.5%), ‘수영’(13.1%), ‘진학학원’(11.9%), ‘영어학원’(11.3%), ‘댄스’(5.4%), ‘미술’(3.0%)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V-46> 희망 과외활동

단위 : %(명)

항 목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컴퓨터학원	42.3	42.5	42.4
운동(태권도·헬스 등)	33.9	24.3	28.9
피아노학원	18.5	8.8	13.5
수영	13.1	11.6	12.3
영어학원	11.3	10.5	10.9
진학학원	11.9	5.5	8.6
댄스	5.4	5.0	5.2
미술	3.0	10.5	6.9
기타	54.2	61.3	57.9
전체	48.1(168)	51.9(181)	100.0(349)

반면, 일반청소년들은 ‘컴퓨터학원’(42.5%), ‘운동(태권도·헬스등)’(24.3%), ‘수영’(11.6%), ‘영어학원’(10.5%), ‘미술’(10.5%), ‘피아노학원’(8.8%), ‘진학학원’(5.5%), ‘댄스’(5.0%) 순으로 응답하여 진학학원과 미술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희망하는 과외활동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로써 두 계층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원하는 과외활동은 ‘컴퓨터’와 ‘운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을 운동에 포함시킬 때 우리 나라 청소년 특히 저소득층청소년들이 가장 배우기를 원하는 과외활동은 ‘운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컴퓨터 활용과 교육

조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즈음의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활동이 컴퓨터임을 알 수 있다. 컴퓨터와 관련된 영역은 또한 청소년세대에게 가장 다양한 직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직업전선에서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컴퓨터의 활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할 결과 ‘예’라고 응답한 저소득청소년은 68.8%, 일반청소년은 89.5%, ‘아니오’라고 응답한 저소득청소년은 30.2%, 일반청소년은 9.6%로 나타나 두 계층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표 IV-47> 컴퓨터 활용여부

단위 : %(명)

세부계층	예	아니오	무응답	전 체
저소득층청소년	68.8	30.2	1.0	100.0(199)
일반청소년	89.5	9.6	0.9	100.0(228)
전체	79.9	19.2	0.9	100.0(427)

$\chi^2 = 28.938, p < .001$

미래 사회에서의 컴퓨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저소득층청소년에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주로 어느 곳에서 사용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장소를 모두 선택하게 한 결과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집, PC방, 학교의 순으로 이용장소를 응답했다. 그러나 일반청소년들은 저소득층청소년보다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27.5%나 많았으며, 학교에서의 이용율은 저소득층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10%정도 높게 나타나 일반청소년의 컴퓨터 이용환경이 잘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48> 컴퓨터 사용장소

단위: %(명)

항 목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 체
집	64.0	91.2	80.1
P C 방	56.6	51.5	53.7
학 교	39.0	28.9	32.8
청소년회관/복지관	6.6	1.5	3.5
컴퓨터학원	2.9	4.9	4.1
기 타	5.1	3.4	4.1
전 체	40.0(136)	60.0(205)	100.0(341)

컴퓨터 교육여부를 알아 본 결과 두 계층 청소년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저소득층청소년(68.8%)이 일반청소년(75.4%)보다 6.6%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9> 컴퓨터 교육여부

단위 : %(명)

세부계층	있다	없다	무응답	전 체
저소득층청소년	68.8	30.2	1.0	100.0(199)
일반청소년	75.4	23.2	1.3	100.0(228)
전체	72.4	26.5	1.2	100.0(427)

$\chi^2=2.641, p>.05$

컴퓨터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받은 장소를 알아 본 결과 두 계층 모두 65%가 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컴퓨터 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적인 교육장소가 저소득층청소년에게는 ‘청소년기관·복지관’(23.5%)임에 반해 일반청소년들은 ‘사설학원’(3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0> 컴퓨터 교육장소

단위 : %(명)

구 분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 체
학 교	67.4	65.3	66.2
사설학원	13.6	32.4	24.2
청소년기관·복지관 등	23.5	7.1	14.2
정보통신 회사의 교육	2.3	3.5	3.0
학교부설기관 등	3.8	1.2	2.3
방송프로그램	1.5	1.8	1.7
기 타	5.3	17.6	6.6
전 체	43.7(132)	56.3(170)	100.0(302)

컴퓨터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 본 결과 저소득층청소년들이 ‘관심·필요성이 없어서’(23.3%), ‘교육비용이 비싸서’(20.0%), ‘시간이 없어서’(10.0%)에 주로 응답한 반면 일반청소년들은 ‘시간이 없어서’(17.0%), ‘가족·친구에게 배우므로’(17.0%),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하므로’(17.0%), ‘관심·필요성이 없어서’(15.1%)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컴퓨터의 실용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교육과 경제적인 지원이나 여건조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51> 컴퓨터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 분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관심·필요성이 없음	23.3	15.1	19.5
교육비용이 비싸서	20.0	5.7	13.3
시간이 없어서	10.0	17.0	13.3
가족·친구에게 배움	5.0	17.0	10.6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	5.0	17.0	10.6
교육기관을 못찾음	3.3	3.8	3.5
기 타	5.0	3.8	4.2
무 응 답	28.3	20.8	22.8
전 체*	100.0(60)	100.0(53)	100.0(113)

$$\chi^2 = 14.745, p < .05$$

* 컴퓨터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만의 통계결과임

5)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신분에 적합한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에게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실

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청소년에게는 더 더욱 아르바이트가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알아 본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34%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층간 차이를 보면 저소득청소년(43.7%)이 일반청소년(25.4%)보다 18.3% 높게 일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만을 볼 때 ‘미진학 청소년’(66.7%), ‘중학생’(56%), ‘고등학생’(50.9%), ‘초등학생’(26.6%) 순으로 학교급별로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52>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명)

세부계층	예	아니오	무응답	전 체
저소득층청소년	43.7	54.8	1.5	100.0(199)
일반청소년	25.4	72.8	1.8	100.0(228)
전체	34.0	64.4	1.6	100.0(427)

$$\chi^2 = 15.861, p < .001$$

<표 IV-53> 저소득층청소년의 학교급별 아르바이트 경험(서울·경기)

단위: %(명)

학교급별	예	아니오	무응답	전 체
초등학교	26.6	72.3	1.1	100.0(94)
중학교	56.0	41.1	2.8	100.0(141)
고등학교	50.9	49.1	·	100.0(53)
미진학	66.7	33.3	·	100.0(9)
전체	46.1	52.5	1.7	100.0(297)

$$\chi^2 = 25.561, p < .001$$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경험해 본 일을 있는 대로 응답”하라고 한 결과 저소득층청소년이나 일반청소년 모두 가장 많이 해 본 일이 ‘전단돌리기’로 50%이상의 청소년들이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음식서빙’(15%), ‘신문배달’(12%), ‘음식배달업’(12%), ‘물품판매’(10%), ‘주유소주유원’(3.0%)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결과에서는 아르바이트직종에 관한 한 두 계층 청소년간의 차이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저소득층청소년들의 학교급별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볼 수 없었고 단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초등학교생의 경우 80%가 넘는 청소년들이 ‘전단돌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4> 경험 아르바이트의 종류

단위: %(명)

구 분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전단돌리기	55.2	50.0	53.0
음식서빙	18.4	9.0	15.0
신문배달	12.6	11.0	12.0
음식배달업	10.3	14.0	12.0
물품판매	11.5	7.0	10.0
주유소주유원	3.4	2.0	3.0
기 타	16.1	21.0	19.0
전 체	59.6(87)	40.4(58)	100.0(145)

아르바이트를 한 사유로는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의 50% 이상이 ‘용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했으며, 14.5%의 청소년이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 2.6%의 청소년들이 ‘학교등록금이나 학원비에 보태기 위해’, 1.3%의 청소년들이 ‘가정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라고 응답했다.

계층별로는 <표 IV-55>와 같이 큰 차이가 없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 높은 반면, 저소득층청소년들이 ‘학교등록금이나 학원비에 보

태기 위해'와 '가정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라는 응답이 1.3%, 2.2%씩 높은 것으로 보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가정의 경제형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5> 아르바이트 사유

단위: %(명)

구 분	저소득층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용돈이 필요해서	57.8	51.6	55.3
학교등록금·학원비에 씀	3.3	1.6	2.6
가정의 생활비에 보탬	2.2	.	1.3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	12.2	17.7	14.5
기 타	17.8	22.6	19.7
무 응 답	6.7	6.5	6.6
전 체	100.0(90)	100.0(62)	100.0(152)

 $\chi^2=3.248, p>.05$

6. 청소년의 여가활동

정해진 시간의 틀 속에서 벗어난 이후의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인 모든 '여가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유익함은 매우 크다. 여가활동 자체가 아동이건, 어른이건 모든 대상에게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청소년기 자체가 안고 있는 많은 변화와 고민, 불만들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더 나아가, 숨겨진 재능과 창조성을 발견해주시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치열하고 경쟁적인 입시위주의 학교 체제속에서 '여가활동'의 필요성은 더할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여가활동'중 상당수는 경제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여행이나 캠프 등에 참가하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 외에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는 결국 이런 '여가활동'에의 접근과 참여의 기회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청소년들이 평소 자유시간(방과후나 휴일 및 방학기간 등)에 '여가활동'으로 주로 무엇을 하며 또 어떤 장소에 자주 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각 기관, 체육시설, 문화공간 등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오락실, 만화가게, 콜라텍, 쇼핑장소, 패스트푸드 점 등의 다양한 장소와 활동등을 <표 IV-56>에서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이를 일반청소년들의 경우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복수응답을 통하여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하기 원하는 활동과 가고 싶은 장소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역시 계층별변인으로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분석하였다.

1) 여가시간 활용실태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가장 '자주' 하는 활동으로는 'TV시청·라디오 청취'가 61.1%(저소득층청소년63.8%, 일반청소년53.8), '친구만나기'가 55.0%(저소득층청소년58.3%, 일반청소년52.2%), '종교활동'이 31.4%(저소득층청소년36.2%, 일반청소년27.2%), '길거리 돌아다니기'가 24.1%(저소득층·일반청소년 모두 24.1%), '책읽기'는 22.5%(저소득층청소년17.6%, 일반청소년26.8%)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시간에 '자주' 가는 장소는 분식집이 27.4%(저소득층청소년28.6%, 일반청소년26.3%), PC방이 26.7%(저소득층청소년28.6%, 일반청소년26.0%), '전자오락실'이 25.2%(저소득층청소년29.6%, 일반청소년21.1%), 만화가게는 24.6%(저소득층청소년22.6%, 일반청소년26.8%)으로 나타났다.<표 IV-56>

세부계층별(저소득층/일반청소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p<.001$)

분석된 활동과 장소로는 <표 IV-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화관람’, ‘수련활동·캠프활동 등’, ‘가족여행’, ‘쇼핑센터’, ‘패스트푸드점’, ‘경양식집·패밀리 레스토랑’, ‘카페·스탠드바’로 나타났다. ‘영화관람’을 ‘가끔 간다’, ‘자주한(간)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저소득층청소년은 37.2%인 반면,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67.6%로 나타났다.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척도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은 37.7%, 일반청소년은 26.3%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여기서 저소득층청소년의 ‘수련활동·캠프활동 등’ 경험이 더 높게 나온 것은 조사대상 저소득층청소년들이 복지관이나 공부방 등 기관 이용대상자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름 캠프나 수련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일반청소년들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족여행’에 대해서는 ‘가끔 간다’, ‘자주 간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저소득층청소년은 25.6%, 일반청소년은 50.9%로 나타났으며, ‘밀리오레나 두타와 같은 쇼핑센터’에 대해서 ‘가끔 간다’, ‘자주 간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저소득층청소년은 40.2%, 일반청소년은 57.0%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들이 특히 선호하는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은 54.3%, 일반청소년은 76.2%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경양식집·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이 12.1%, 일반청소년은 42.9%의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그리고 유흥업소로 분류되고 있는 ‘카페·스탠드바’ 출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은 6.5%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 일반청소년은 18.8%로 더 많은 응답율을 보였다.

그 외에도 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차이($p<.05$ 유의도 수준)를 보이고 있는 활동으로는 ‘책읽기’, ‘아르바이트’, ‘동아리활동’이 있다. 이 활동들에 대해서 ‘가끔한다’와 ‘자주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계층별로 살펴 보면, ‘책읽기’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이 55.3%, 일반청소년이 68.0%로 응답해 일반청소년이 여가시간에 더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이 14.1%, 일반청소년은 6.1%로 응답해 저소득층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56>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활용실태

단위 : %

항 목	한번도해(가) 본적이었다		한두번해(가) 본적이있다		가끔한(간)다		자주한(간)다		무응답		전 체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TV·라디오 ¹⁾	7.5	3.5	7.0	7.5	19.6	28.9	63.8	58.8	2.0	1.3	100.0 (199)	100.0 (228)
집안일 ²⁾	4.5	3.5	19.6	28.9	50.8	50.9	25.1	16.7	·	·	100.0 (199)	100.0 (228)
가족대화· 모임 ³⁾	17.1	10.5	31.7	28.1	36.7	39.9	14.1	21.5	0.5	·	100.0 (199)	100.0 (228)
책읽기 ⁴⁾	14.6	4.8	29.1	26.3	37.7	41.2	17.6	26.8	1.0	0.9	100.0 (199)	100.0 (228)
아르바이트 ⁵⁾	59.8	74.1	24.1	18.9	11.1	4.8	3.0	1.3	2.0	0.9	100.0 (199)	100.0 (228)
가만히 있기 ⁶⁾	36.7	36.0	22.6	25.9	25.6	22.4	11.6	14.5	3.5	1.3	100.0 (199)	100.0 (228)
사설독서실 ⁷⁾	49.2	36.4	26.6	33.3	18.1	23.2	5.5	7.0	0.5	·	100.0 (199)	100.0 (228)
서점·도서관 ⁸⁾	22.1	15.4	35.2	36.8	34.7	39.5	7.0	8.3	1.0	·	100.0 (199)	100.0 (228)
친구만나기 ⁹⁾	3.0	2.6	7.5	11.0	31.2	33.8	58.3	52.2	·	0.4	100.0 (199)	100.0 (228)
동아리활동 ¹⁰⁾	33.7	48.2	24.6	21.1	23.6	19.3	16.6	11.4	1.5	·	100.0 (199)	100.0 (228)
종교활동 ¹¹⁾	22.1	28.1	22.1	18.4	18.1	26.3	36.2	27.2	1.5	·	100.0 (199)	100.0 (228)
수영장 ¹²⁾	29.6	27.2	38.7	38.2	27.1	28.1	3.0	6.6	1.5	·	100.0 (199)	100.0 (228)
볼링장 ¹³⁾	60.3	50.4	26.1	34.6	11.1	11.8	2.0	3.1	0.5	·	100.0 (199)	100.0 (228)
당구장 ¹⁴⁾	62.3	60.5	20.1	22.4	13.1	11.8	3.5	4.8	1.0	0.4	100.0 (199)	100.0 (228)
인형극·연극 ¹⁵⁾	29.1	29.8	49.7	48.7	19.1	16.7	2.0	4.8	·	·	100.0 (199)	100.0 (228)
영화관람 ¹⁶⁾	16.6	5.7	46.2	26.3	33.7	54.4	3.5	13.2	·	0.4	100.0 (199)	100.0 (228)
콘서트·운동 경기 관람 ¹⁷⁾	40.7	32.9	38.2	41.2	16.6	21.5	4.5	4.4	·	·	100.0 (199)	100.0 (228)

1) $\chi^2 = 7.760$, $p > .05$ 2) $\chi^2 = 7.741$, $p > .05$ 3) $\chi^2 = 8.505$, $p > .05$ 4) $\chi^2 = 15.413$, $p < .01$ 5) $\chi^2 = 12.376$, $p < .05$ 6) $\chi^2 = 3.841$, $p > .05$ 7) $\chi^2 = 8.587$, $p > .05$ 8) $\chi^2 = 5.887$, $p > .05$ 9) $\chi^2 = 3.202$, $p > .05$ 10) $\chi^2 = 12.474$, $p < .05$ 11) $\chi^2 = 11.580$, $p < .05$ 12) $\chi^2 = 6.449$, $p > .05$ 13) $\chi^2 = 6.058$, $p > .05$ 14) $\chi^2 = 1.356$, $p > .05$ 15) $\chi^2 = 2.789$, $p > .05$ 16) $\chi^2 = 45.983$, $p < .001$ 17) $\chi^2 = 3.357$, $p > .05$

항 목	한번도해(가))본적이없다		한두번해(가))본적이있다		가끔한 (간)다		자주한(간)다		무응답		전 제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전시회 ¹⁸⁾	26.6	25.4	45.2	50.0	24.1	18.9	3.0	5.3	1.0	0.4	100.0 (199)	100.0 (228)
수련활동 ¹⁹⁾	17.6	26.8	44.7	46.1	27.6	23.2	10.1	3.1	·	0.9	100.0 (199)	100.0 (228)
놀이동산 에버랜드등 ²⁰⁾	8.5	4.8	40.7	40.8	42.2	43.4	7.0	10.1	1.5	.9	100.0 (199)	100.0 (228)
가족여행 ²¹⁾	32.2	1.3	40.7	36.4	20.6	40.4	5.0	10.5	1.5	0.4	100.0 (199)	100.0 (228)
전자오락실 ²²⁾	12.6	18.9	21.1	33.8	35.7	25.4	29.6	21.1	1.0	0.9	100.0 (199)	100.0 (228)
PC방 ²³⁾	25.6	26.8	19.6	21.1	25.1	27.2	28.6	25.0	1.0	·	100.0 (199)	100.0 (228)
비디오방 ²⁴⁾	79.4	73.2	10.1	17.5	8.0	7.5	2.5	1.8	·	·	100.0 (199)	100.0 (228)
만화가게 ²⁵⁾	26.1	25.4	20.1	22.8	30.7	25.4	22.6	26.3	0.5	·	100.0 (199)	100.0 (228)
콜라텍 ²⁶⁾	78.4	88.6	13.1	7.5	4.5	1.8	4.0	2.2	·	·	100.0 (199)	100.0 (228)
디스코텍 ²⁷⁾	89.9	86.8	5.0	7.5	4.0	4.4	0.5	1.3	0.5	·	100.0 (199)	100.0 (228)
노래연습장 ²⁸⁾	14.1	14.0	29.6	30.3	42.2	34.2	14.1	21.5	·	·	100.0 (199)	100.0 (228)
쇼핑센터 ²⁹⁾	31.7	21.1	28.1	21.9	30.7	40.8	9.5	16.2	·	·	100.0 (199)	100.0 (228)
길거리돌아다 나기 ³⁰⁾	16.6	27.2	26.1	20.2	33.2	28.5	24.1	24.1	·	·	100.0 (199)	100.0 (228)
분식집 ³¹⁾	5.5	9.6	21.6	23.2	43.7	40.8	28.6	26.3	0.5	·	100.0 (199)	100.0 (228)
패스트푸드점 ³²⁾	9.5	2.6	35.7	20.6	44.2	41.2	10.1	35.1	0.5	0.4	100.0 (199)	100.0 (228)
경양식· 레스토랑 ³³⁾	53.8	24.6	32.2	32.0	11.6	31.1	0.5	11.8	2.0	0.4	100.0 (199)	100.0 (228)
카페· 스탠드비 ³⁴⁾	79.4	57.5	13.6	22.8	6.0	11.8	0.5	7.0	0.5	0.9	100.0 (199)	100.0 (228)

- 18) $\chi^2 = 3.704$, $p > .05$ 19) $\chi^2 = 14.756$, $p < .001$ 20) $\chi^2 = 3.780$, $p > .05$ 21) $\chi^2 = 38.641$, $p < .001$
 22) $\chi^2 = 15.602$, $p < .01$ 23) $\chi^2 = 3.155$, $p > .05$ 24) $\chi^2 = 5.111$, $p > .05$ 25) $\chi^2 = 3.156$, $p > .05$
 26) $\chi^2 = 8.479$, $p > .05$ 27) $\chi^2 = 3.039$, $p > .05$ 28) $\chi^2 = 5.051$, $p > .05$ 29) $\chi^2 = 12.892$, $p < .001$
 30) $\chi^2 = 7.770$, $p > .05$ 31) $\chi^2 = 4.034$, $p > .05$ 32) $\chi^2 = 46.082$, $p < .001$ 33) $\chi^2 = 65.334$, $p < .001$
 34) $\chi^2 = 27.931$, $p < .001$

‘동아리활동’은 저소득층청소년이 40.2%, 일반청소년이 30.7%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시 저소득층청소년들의 조사대상이 기관이용청소년들이라서 각 기관(복지관, 공부방 등)의 동아리에 가입·활동할 기회가 일반청소년들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계층별로 95%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이에 가깝게 나타난 활동으로 ‘청소·빨래·식사준비 등의 집안일 돕기’, ‘가족과의 대화·모임’, ‘종교활동’ 등이 있다

이 활동들에 대해서 ‘가끔한다’와 ‘자주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비율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소·빨래·식사준비 등의 집안일 돕기’는 저소득층청소년은 75.9%, 일반청소년은 67.6%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대화·모임’은 저소득층청소년 50.8%, 일반청소년은 61.4%로 응답해 ‘가족간의 대화와 모임’은 저소득층청소년의 가정에서 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분석한 ‘가족여행’에서도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경험비율이 낮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외에도 ‘종교활동’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의 54.3%가, 일반청소년에서는 53.5%가 ‘가끔한다’, ‘자주한다’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2) 희망하는 여가활동과 장소

희망하는 여가활동과 장소에 대해 복수응답 하게 한 결과, 전체청소년들이 15%이상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콘서트·운동경기관람’(39.9%), ‘콜라텍’(36.1%), ‘서울랜드·롯데월드와 같은 놀이동산’(33.7%), ‘경양식·패밀리 레스토랑’(26.1%), ‘아르바이트’(23.8%), ‘영화관람’(22.6%), ‘가족여행’(22.0%), ‘비디오방’(19.4%), ‘디스코텍’(19.4%), ‘전시회·박물관·과학관’(16.7%), ‘쇼핑센터’(16.4%), ‘볼링장’(16.1%)으로 조사되었다.<표 IV-57>참조

이 활동과 장소를 계층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콘서트·운동경기관람’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은 46.8%, 일반청소년은 32.9%로, 저소득층청소년이 일반청소년들보다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7> 청소년들의 희망여가활동

단위 : % (명)

활동명	저소득층 청소년	일반 청소년	전 체	활동명	저소득층 청소년	일반 청소년	전 체
TV·라디오	2.3	2.9	2.6	전시회·박물관	5.8	7.6	16.7
집안일	0.6	1.2	0.9	수련·캠프활동	12.9	18.2	15.5
가족대화·모임	0.6	1.2	0.9	놀이동산 (에버랜드 등)	43.3	24.1	33.7
책읽기	1.2	2.9	2.1	가족여행	19.3	24.7	22.0
아르바이트	24.0	23.5	23.8	전자오락실	4.7	11.2	7.9
가만히 있기	0.6	0.0	0.3	PC방	19.9	28.2	24.0
사설독서실	5.3	7.6	6.5	비디오방	18.7	20.0	19.4
서점·도서관	2.9	4.1	3.5	만화가게	1.8	14.1	7.9
친구만나기	2.3	4.1	3.2	볼라텍	45.6	26.5	36.1
동아리활동	4.7	13.5	9.1	디스코텍	15.8	22.9	19.4
종교활동	1.2	5.9	3.5	노래연습장	15.2	9.4	12.3
수영장	11.1	10.6	10.9	쇼펍센터	17.5	15.3	16.4
볼링장	15.2	17.1	16.1	길거리돌아다니기	5.3	11.2	8.2
당구장	10.5	12.9	11.7	분식집	4.7	5.3	5.0
인형극·연극	11.7	11.2	11.4	패스트푸드점	12.9	10.0	11.4
영화관람	25.1	20.0	22.6	경양식·레스토랑	24.6	27.6	26.1
콘서트· 운동경기 관람	46.8	32.9	39.9	카페·스탠드바	14.0	15.3	14.7
전체*	50.1 (171)	49.9 (170)	100.0 (341)	* 복수응답한 결과임			

이에 대해서는 앞서 여가활동 실태조사에서 ‘가끔한다’, ‘자주한다’라는 응답이 저소득층청소년이 21.1%, 일반청소년이 25.9%로 저소득층청소년이 더 낮은 응답율을 보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의 많은 선호를 받고 있는 ‘콜라텍’은 저소득층청소년은 45.6%, 일반청소년은 24.1%로, 그리고 ‘서울랜드·롯데월드와 같은 놀이동산’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은 43.3%, 일반청소년은 24.1%로 저소득층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양식·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고 싶다고 응답한 저소득층청소년은 24.6%, 일반청소년은 27.6%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응답한 저소득층청소년은 24.0%, 일반청소년은 23.5%로 나타났다. 또한 ‘영화관람’은 저소득층청소년이 25.1%, 일반청소년은 20.0%가 희망해서 저소득층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는 앞서 분석한 ‘여가활동’실태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영화관람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여행’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청소년은 19.3%, 일반청소년은 24.7%로 나타났으며, ‘비디오방’은 저소득층청소년이 18.7%, 일반청소년은 20.0%로 응답했고 ‘디스코텍’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이 15.8%, 일반청소년이 22.9%로 나타났다. 이외에 여가시간에 가길 원하는 장소로 ‘전시회·박물관·과학관’(저소득층청소년5.8%, 일반청소년7.6%), ‘쇼핑센터’(저소득층청소년17.5%, 일반청소년15.3%) ‘볼링장’(저소득층청소년 15.2%, 일반청소년 17.1%)을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7> 참조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함축성

이 연구는 1997년 후반기에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상징되는 경제위기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준 대량실업과 빈곤의 상황에서, 실업을 경험한 저소득 가정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이 직면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특징은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을 실업 경험이 없거나 실업의 영향이 미미한 일반가정의 청소년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문제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실증적 조사연구에서 발견한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그 함축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를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사이에는 가치관, 환경에 대한 인식, 가정생활과 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IMF 이후의 가정생활의 변화에서도 두 집단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많은 부분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발견되고 있다.

2) 청소년들이 가진 가치관과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

로 실업가정의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세상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우선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문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두 집단, 즉 실업가정의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설령 차이가 있어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가 없다. 즉,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가정생활의 만족도에서는 두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특히 친구관계, 학교생활, 그리고 교사에 대한 애착과 선호도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에 응한 청소년들의 세상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자신과 주위환경,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의 매체인 학교상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금번 조사에 포함된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들이 대부분 지역사회와 공부방이나 복지관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포함한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이러한 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처지가 아주 곤란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조사에 응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현재나 미래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는 지역사회중심의 복지관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은 일반 청소년에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임을 추정하게 한다.

3) 청소년들은 성공이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흥미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집단 청소년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은 최근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풍조를 잘 반영하면서 커다

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은 최근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풍조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배금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불신감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연구조사에서 비교 분석한 두 집단 사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성공이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흥미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두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일반 청소년들은 행복한 가정을 강조하는 데 반해, 저소득계층의 청소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많은 청소년들이 배금주의를 사회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으로 인식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공의식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취미와 흥미를 살려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공헌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강조는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일반 청소년들이 저소득계층의 청소년들보다 삶의 목표에서 사회성이나 공적인 삶의 측면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 흥미롭다.

4) 미래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의 전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미래의 경제상황과 행복의 전망에 대해 덜 긍정적이다.

미래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의 전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20년 이후의 경제상황과 행복의 정도에 관한 전망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보통 이상의 부유함이나 행복함을 예측하고 있다.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일반 청소년집단이 저소득실업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미래의 경제상황과 행복의 전망에 대해 더욱 긍정적이다. 이는 현재의 실업과 저소득이라는 가정의 상황이 청소년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인식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저소득계층의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사이에는 경제적 수준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기 집안의 경제사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연구의 두 번째 영역에서는 가정의 경제사정과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그리고 부모역할과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와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가정의 경제사정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해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화된 숫자로 나타나는 한달 평균 수입,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대체로 잘 반영한다고 믿어지는 가구 당 현재 사용하는 방의 숫자를 조사하였다.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저소득계층의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사이에는 경제적 수준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기 집안의 경제사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청소년들의 경제적 기반의 차이는 두 집단의 청소년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용돈의 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오만원 이상의 용돈을 쓰는 청소년의 비율은 일반청소년이 10% 정도이지만 저소득계층의 청소년은 1%에 불과해서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용돈의 부족현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용돈에 대한 각 청소년들의 만족도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저소득계층의 청소년 가운데 학년이 높아갈수록 용돈의 부족함을 심각하게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을 시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가정의 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우면서 자신의 용돈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건전한 아르바이트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청소년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금품강탈 등의 청소년 비행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용돈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에 기인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주선은 청소년의 비행을 줄이고 노동의 의미와 건전한 사회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부모의 역할과 양육태도는 금번 조사연구에서 연구대상 집단인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사이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영역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와의 대화빈도, 자녀의 친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녀에 대한 처벌의 정도 등의 항목에서 확인되었는데,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집단간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난 저소득계층의 가족문화는 일반 청소년의 가정에 비해 대화를 적게 하며, 자녀가 어떤 친구와 사귀는지에 대한 관심이 적고, 꾸중이나 체벌의 빈도가 높으며, 가정에 대한 헌신이나 자녀에 대한 애정이 적은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정생활의 문제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나 역할 모델로서의 부모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계층의 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빈번히 호소하고 부부싸움과 부모님의 지나친 음주를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일반 청소년 가정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형제 자매 사이의 불화나 가족 사이의 폭력에 대해서는 가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두 집단 사이에 의미 있

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저소득계층의 가정을 위해 절실히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청소년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의 중요성과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화의 기술이나 자녀지도의 기술 *parenting skill*을 배우는 것이 매우 시급함을 말해준다.

결국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생활의 문제점 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항목에서 일반청소년보다 저소득층청소년의 부모가 부모역할에 있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 자녀의 주변생활에 대한 관심도, 가정생활에서의 성실, 자녀에 대한 애정, 체벌문제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소득층청소년의 부모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을 위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또한 체벌이나 가정 폭력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 그 외의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7) 경제위기 이후 여러 측면의 가정생활의 변화가 저소득계층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비의 축소, 결식, 학용품 준비부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수수여부, 건강 및 의료혜택의 축소, 생활공간의 축소, 용돈의 감소, 부모관계의 악화, 가족간 폭력의 증가, 그리고 실업으로 인한 가정해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 조사연구의 핵심은 우리 나라의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과 대안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기존의 저소득에다 실업의 이중고를 당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각각의 가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

으며,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삶에 어떠한 충격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교육비의 축소, 결식, 학용품 준비 부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수수여부, 건강 및 의료혜택의 축소, 생활 공간의 축소, 용돈의 감소, 부모관계의 악화, 가족간 폭력의 증가, 그리고 실업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의 항목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가정생활의 변화가 대부분의 많은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의 전 항목에서 저소득계층 가정에서의 변화가 일반가정에서의 변화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계층의 초등학생들은 같은 계층의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결식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을 위한 무료급식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저소득 실업가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특히 그 가운데 가정의 불화와 가정해체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과 아울러 위기극복을 위한 가족복지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다.

8) IMF 경제위기 이후 저소득계층의 가정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 특히 민간복지단체와 사회복지관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받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저소득 계층의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을 도운 대표적인 기관은 민간복지단체와 사회복지관으로서 기존의 복지지원체계에서 중요하게 간주되어온 정부나 친척의 역할은 축소되고, 민간 비영리조직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제공받은 지원의 종류는 상담이나 정서적 지원을 핵심으로 하

고 있으며, 놀이방이나 공부방과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이나 보호서비스가 주도적인 지원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현금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은 것이 주요 지원체계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9) 담배, 술, 폭력, 절도, 약물복용, 가출, 음란매체경험, 성접촉, 자살충동 등 주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폭력행동의 경우는 그 빈도가 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문제행동의 경우는 두 집단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의 고민 또한 계층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다만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경우 용돈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일반청소년의 경우보다 흔한 것이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고민과 문제행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10가지 주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그 빈도를 조사한 결과 폭력행동의 경우는 그 빈도가 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문제행동의 경우는 두 집단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분석하면 앞의 경향과는 반대로 폭력행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급별로 문제행동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가운데 최근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왕따에 관련된 것이다. 누가 왜 왕따를 당하며 왕따를 당하는 빈도에 있어서 계층적 집단별로, 그리고 학교 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조사한 결과 다른 문제행동과는 다르게 왕따의 경우에는 저소득계층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초등학생이나 학교중단 청소년이 다른 중고생들에 비해 왕따를 더 빈번히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수준에서 왕따를 방지

하는 홍보교육이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고민은 계층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두 집단에 공통적으로 공부나 학업성적, 진학이나 취업, 그리고 성격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 고민을 이루고 있다. 다만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경우 용돈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일반청소년의 경우보다 흔한 것이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을 의논하는 대화상대에 대해서도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 친구가 가장 흔한 대화상대이고 부모나 형제자매가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거나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실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10) 마지막으로 조사한 항목은 청소년들의 학업과 진로, 그리고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원하고 있으며 두 집단 사이에는 그 패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 학력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력을 실제로 다 마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이 학업성취에 대한 확신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에 있어서도 두 집단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예인이나 교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의상 디자이너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이며, 교사나 군인, 그리고 의사나 판검사과 같이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았던 직업뿐만 아니라 만화가나 운동선수와 같이 최근에 인기가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의 경우와는 달리 가정의 경제적 능력과 계층적 특징을 잘 반영하는 과외활동에 대해서는 두 집단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저소득계층의 청소년들은 공부방이나 신나는 집,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피아노나 영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과외활동을 수행하는 반면,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가정교사나 과외학습, 그리고 학습지구독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과외활동을 골고루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우고 싶은 과외 활동에서는 집단별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특히 컴퓨터와 운동을 공통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에서는 집단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저소득계층의 청소년들은 콘서트나 운동경기관람, 영화관람이나 전시회, 박물관, 과학관 등에 대해 일반청소년에 비해 이용빈도는 낮지만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선호도가 높아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여가기회를 선용토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2. 결 론

IMF 경제위기는 기존의 저소득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정에 실업이라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더해주었다. 이 연구는 IMF 경제위기가 실업 저소득가정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야기시키는지 밝히고, 특히 이러한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이 직면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로서 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문제를 탐구하고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와 또래집단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비교집단과 연구대상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가 절대적인 기준에서만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밝히려고 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가장 표준적인 실업 저소득 가정을 선정해서 조사하기보다는 청소년 공부방이나 저소득 청소년을 돕기 위한 단체 및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성과 적용가능성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는 이러한 종류의 숨은 연구대상을 조사할 경우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며, 제한된 표본 조사를 통해서도 실질저소득 가구와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과 일반청소년 사이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 환경에 대한 인식, 가정생활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IMF 이후의 가정생활의 변화에서도 두 집단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가치관, 일탈행동, 여가활동 등의 부분에서 두 집단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도 또한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가정의 경제수준의 측면에서 저소득계층의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기 집안의 경제사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사이의 차이가 가장 현저한 영역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이다. 자녀와의 대화빈도, 자녀의 친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녀에 대한 처벌의 정도 등의 항목에서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두 집단간 분명히 드러난다.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난 저소득계층의 가족문화는 일반 청소년의 가정에 비해 대화를 적게 하며, 자녀가 어떤 친구와 사귀는지에 대한 관심이 적고, 꾸중이나 체벌의 빈도가 높으며, 가정에 대한 헌신이나 자녀에 대한

애정이 적은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정생활의 문제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나 역할 모델로서의 부모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 이후 실업 저소득 가정에서는 일반가정에 비해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저소득계층의 초동학생들은 같은 계층의 중고등학생이나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결식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결국 이 연구가 발견한 것은 우리 사회의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정책적 도움과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저소득가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것이 바로 저소득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직접적인 급여를 시행하는 것이다.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라는 옛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물론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계비에 모자라는 부분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진일보한 빈곤정책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대책이 바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 자체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 실업가정을 돕고 이들 가정에 속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핵심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대책에 모아져야 한다. 물론 국가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거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에 의한, 가족을 위한,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실업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아동청소년 문제도 결국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래

서 가정과 가족성원을 중심으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저소득 가정이라는 환경 그 자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몇 가지 주요한 측면에서는 실업 저소득 가정의 하층문화(underclass)적 특징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 가장 현저한 것이 바로 저소득 가정의 경우 구조적 문제나 의사소통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발견은 가족치료를 포함하는 가족복지가 이제 몇몇 병리적 현상을 보이는 가족뿐만 아니라 저소득가정 전체에 걸쳐서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족치료센터의 설립으로 문제학생이나 문제가족을 돕는 가족복지적 시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가정이 청소년의 사회화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사회문제를 조장시킨다면 사회에서는 이것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가족에게 그 기능을 무조건 떠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문적인 가정복지기관이나 청소년 복지기관을 통해 약화된 가족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료해 주며, 그 부모들과 청소년 자신, 그리고 전문가의 개입으로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문제를 방치할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부수적인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가 강력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가장 거시적으로는 빈곤정책과 부의 재분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특히 최저생활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국가만의 힘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다양한 종류의 민간단체나 복지단체 등은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중간 영역에서 특수한 계층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소규모적으로 저소득 실업 가정을 돕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VI. 정책 제언

이 연구는 저소득 실업가정이 직면하는 청소년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저소득 실업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실업가정의 문제와,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직면하는 문제점들은 이들을 돕기 위한 대책이 당장 우선적으로는 경제적 차원에 집중되어야 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가정이나 가족구성원을 돕기 위한 미시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실업가정과 저소득실업가정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경제적, 심리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지원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1. 현 정부정책의 문제점

저소득 실업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은 크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 안전망으로 분리워지는 생활보장정책으로 구분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구조개선 대책과 고용안정, 직업훈련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99년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취업능력 제고, 실업대책 전달체계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는 구조개혁과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발전, 중소기업 안정, 해외취업 활성화 및 채용장려금제를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취업능력 제고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훈련과정 확충과 취업을 제고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대책 전달체계 확립은 직업안전망과 실업자 D/B 및 Profiling, 노동시장 정보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이

루어 지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대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장기실업자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 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고, 셋째 일부 실업대책 프로그램(대부사업)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넷째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기관간의 서비스 연결망이 부족하다. 다섯째, 정부의 지원이 단기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업가정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 프로그램이 미약하며, 마지막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김미곤, 1999; 박순일, 1999)

우리 나라 사회안전망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 둘째 일을 시키고 임금의 형태로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공공근로사업, 특별취로사업, 셋째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사업인 공공부조, 넷째 금융보조 사업으로서 실업자 대부사업, 귀농정착금,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둘째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저 생활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가구들이 매우 많으며, 셋째 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노동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지역간·계층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2. 저소득 실업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저소득 실업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하면 한마디로 현재 저소득 실업가정의 기초생활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가구에게 기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초생

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은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이나 현물을 그 가구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법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일 자리를 제공·알선하여 스스로 필요한 비용을 획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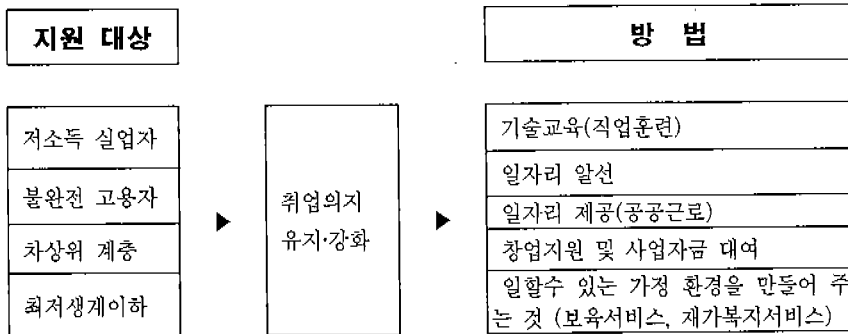
1) 취업지원사업의 강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일자리를 제공·알선하여 스스로 소득을 확보하게 하는 방법이 저소득 실업가정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불황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저소득 실업가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혹은 취업)지원 대상자와 취업지원 방법별 세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VI-1>과 같이 지원대상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기술교육(직업훈련), 일자리 제공(공공근로 포함) 및 알선, 창업지원, 자활공동체와 사회연대 금고, 일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보육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과 관련된 구체적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 실업가정의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대량 실업 이후에 정부에서는 벤처산업 지원과 기술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것은 고학력자나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일 뿐이다. 경제위기 하에서 일자리는 한정되어 결국 기술, 자본,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해서 살아 갈 수밖에 없다. 여러 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다. 저소득층이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영세사업자의 몫을 나누

어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빈민을 만들어 낼 뿐이다. 따라서 자활공동체나 저소득 창업자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소규모 공사나 일거리를 발주하거나 생산물을 우선 구매해 주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림 VI-1> 취업지원의 대상과 방법

셋째, 노동능력, 연령 등에 따라 차별화 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김수현, 1999). 연령별로 노동능력이 많고 적음을 구분하여 어떤 형태의 취업지원을 하고, 그러한 지원은 어떤 부서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 세부적인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유지시키되 현재의 취로사업과 통합하여, 민간부문과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하고 근로능력배양 및 재취업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근로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근로 대상자 선정은 저소득층을 우선시 하여야 하며, 빈곤계층, 실업자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목표집단을 구분하여 특성화된 사업별로 배치함으로써 사업의 생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기업체에서 저소득 실업자를 채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은 실업자 특성에 따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직업교육훈련 기관 별로 프로그램을 특성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근로 참여자를 비롯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는 산재보험가입 등과 같은 노동인권보호장치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착

일자리를 제공알선하고, 창업을 지원해서 저소득 실업자가 소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피부양자가 많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00년 10월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착이 저소득 실업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받느냐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8월에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게 된 것은 앞에서 언급한 충분치 못한 정부대책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 상황,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위기는 누구나 실업자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주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최소한도로 보호하는 전 근대적인 제도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노숙자, 결식아동, 생계문제로 인한 이혼율, 자살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성을 더해 갔고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이의제기와 새로운 법의 청원을 정부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은 <표 VI-1>과 같은데, 예전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규정되었고, 노동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생계급여를 통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고, 긴급급여를 통하여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부 공제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선정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선정기준을 현실화·합리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비교하여 획기적인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그것은 2000년도 기초생활보장예산이 올해보다도 4.0%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업자수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수를 줄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업률 감소가 빈곤율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수급자수가 현행 생활보호대상자수보다 대폭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못한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하고, 수급자로 선정한 가구는 가구 총소득(급여액 포함)이 최저생계비를 넘어 설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

<표 VI-1>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생활보호제도	비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시혜성 보호	법적성격	○ 국가 의무와 시민의 권리
○ 시혜성 용어 피보호자, 보호기관, 보호대상자	법률용어	○ 권리성 용어 -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등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 제활동 가능자	대상자 구분	○ 대상자 구분 폐지 - 취업여부·연령 불문, 보호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 능
○ 부양의무자 ∩ 소득 ∩ 재산 ○ 소득과 재산기준의 이원적 기준 * '99년 : 월소득 1인당 23만원 재산 가구당 2,900만원	대상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 (소득인정액 단일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 액을 합산한 금액
○ 생계보호-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교육보호 ○ 해산보호 ○ 장제보호 ○ 자활보호	급여종류 및 내용	○ 생계급여 확대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 는 자활관련사업에 참여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 ○ 긴급급여 신설 ○ 기타 종전보호(5종) 유지
(신설)	급여방법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을 통한 자활지원
○ 중앙생활보호위원회, 시도, 시군 구,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	생활보장 위원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존치 ○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 폐지 ○ 시·도,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는 유 사기능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음
○ 사회복지전문요원 : 복지대상자 417명당 1인 수준(4,200명) ○ 전문요원 수작업에 의한 대상자 조사 및 행정체계, Work-Net 미연계 ○ 관련전산망과 미연계된 소득· 재산 조사 ○ 자활지원센터 20개소 ○ 읍면동에서단순복지서비스(금 여등) 제공	전달체계 등	○ 복지대상자 250명당 1인 수준으로 확대 (3,000여명 추가 소요) ○ D/B 구축, 전산망과 연계를 통한 대상 자 관리 및 조사, Work-Net 연계 ○ 지방행정전산망, 토지·건물·국세등 관 련전산망과 연계하여 소득·재산조사 (정확성 제고) ○ 자활후견기관 확대 - 270개소 ○ 읍면동, 직업안정센터, 민간복지기관등과 연계하여 고용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언급이 없음	보장비용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분담비율을 차등적용

출처 :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까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제 15호, 나눔출판, 1999. 12

소득 실업가정은 이 제도에 포괄되어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에 시발점이 될 수 있다.

3) 취업알선 : 실업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을 돕기 위한 대책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실업해소와 직장구하기라는 빈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실직한 가장이나 노동능력이 있는 가족구성원에게 직장을 알선해주고, 생활적응과 재취업을 위한 정보제공과 훈련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물론 당장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도 무시할 수 없는데,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생활자금이나 자녀의 학자금, 의료비 지원이나 주택자금 지원의 필요성이다.

저소득 계층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돕는 길은 그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직장을 직접 알선하거나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노동부를 중심으로 실업자 재취업 상담소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노동 능력과 노동 의지가 있는 가족성원이나 청소년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 유용한 정책적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고교를 갓 졸업한 경우 취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매년 20만명에 이르는 실업고 졸업생들이 거대한 실업예비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취업을 원다해도 단순직이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종류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3. 가족을 중심으로 한 심리사회적 지원방안

저소득 실업가정을 돕고 이들 가정에 속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핵심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족복지에 모아져야 한다. 물론 국가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거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에 의한, 가족을 위한,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실업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아동·청소년 문제도 결국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가정과 가족성원을 중심으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실업으로 인한 저소득과 빈곤의 문제에 직면한 가정의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실업과 저소득이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가장 현저한 영향은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가출에 의해 야기되는 가족해체의 문제이다. IMF 경제위기이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가족붕괴의 사례는 기존의 저소득에 실업까지 보태어져서 생활비의 부족, 부채증가, 채권자의 빚독촉 및 압류로 인해 가정의 불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여기에 음주와 가정폭력이 더해져서 결국 배우자의 가출과 별거,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혼에 이르게 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한 가정의 해체는 결국 아동이나 청소년의 삶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1) 가족치료 ·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우선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내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술을 익히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치료에 초점을 두고 스트레스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중심의 복지를 실현하고 특히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가족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 서비스기관이 가족치료, 가족상담, 부부 사이 또는 부모-자녀 간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적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식과 행동을 개선하고 이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2) 결식 청소년을 위한 급식프로그램 개발

실업과 빈곤은 구조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정해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문제가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학대나 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경제위기 이후에 가정에서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식아동들이 늘어나고, 부모 양쪽 모두 직장에 가야하는 경우에는 의식주의 모든 측면에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IMF가 가져온 사회현상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하나는 결식아동의 증가이다. 마치 몇십

년 전 모든 국민이 가난했던 시절 보리고개나 춘궁기에 일어날 수 있음직한 일이 급세기 말에 경제위기를 당한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식아동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한국교총의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중반에 전국적으로 약 1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파악한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초중고생 817만명 가운데 1.8%인 약 15만명을 결식아동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식아동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사례로는 부모의 실업이나 부도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나 상점이나 가게를 운영하다가 시장 전반의 침체로 판매가 극히 부진한 경우가 많다. 나아가 가정불화로 어머니가 가출한 경우 자녀가 결식아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식아동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성장기에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지 못해 야기되는 발육부진과 면역약화, 영양실조 등 신체상의 문제와 배고픔으로 인한 소외감이나 정서적 상처, 그리고 일탈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결식아동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은 정책적 대책과 민간단체의 자발적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각 교육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중식지원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며, 각 학교 단위로도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음식점과 연계한 식사제공, 복지관의 급식 프로그램,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의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이 결식아동을 위한 민간 중심의 사업으로 권장할 만하다.

이 가운데 복지관의 여름학교 및 겨울학교 프로그램은 방학기간중의 결식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추천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은 중식만 제공하는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방학 기간 중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사와 교육을 동시에 해결하는 목적을 가진다. 프로그램의 중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결식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배려에 있다. 식사뿐만 아니라 방학중의 학원공부나 과외활동의

경험도 아동청소년들 사이의 주요한 이야기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또래 문화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식아동을 지원 하되 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3) 가출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경제위기가 저소득계층의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출 및 이로 인한 학업중퇴 청소년의 증가이다. 사실 가정을 경제적으로 돕는 대책이나 부부나 부모-자식 사이의 스트레스 대처법이나 위기관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가정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책이다. 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간 경우 이러한 가정 중심의 대책이 커다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민간지원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범사회적으로 가출 및 중퇴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비영리 청소년단체가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회적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퇴나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적 보호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나 종교기관에서 연계망을 형성해서 활동을 하면 청소년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기관들끼리 자연스럽게 분업이나 역할분담, 그리고 전문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지만 공적영역이 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비영리 민간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관계partnership를 맺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으며 재정 및 보조금 지원, 서비스 위탁 및 용역, 그리고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운영은 비영리단체

가 하는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쉼터와 같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피난처나 일시적 보호 시설은 학업을 중퇴하거나 가출해서 무작정 방황할 때, 즉 유해환경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을 때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서비스나 문화활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어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충동적인 가출의 경우에 특히 이러한 쉼터의 역할이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돌아갈 만한 집이 없거나 있다해도 집안에서 청소년들을 가출이나 중퇴로 이끄는 요소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는 무작정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다시 재가출해서 이로 인해 중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몇몇 뜻 있는 청소년기관의 대표자들이 청소년을 돕는 사회적 지지망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상호간에 연대 및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4.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지원

저소득가정 청소년이 빈곤의 세습을 끊고 더 나은 미래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을 위한 진로 및 자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지원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소득층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미래를 위한 진로와 직업선택에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활동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부 유사한 프로그램(직업체험센터)이 일반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도 확대·개방하여 적성을 미리 찾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 저소득계층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활성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청소년들은 문화적 결핍과 사회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학교생활에서의 소외감 및 부적응을 겪으며 많은 학생들이 제도교육으로부터 탈락되고 무방비 상태로 사회에 떠밀려 나가고 있다. 현재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공부방들은 지난 10여년간 빈민지역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학습공간이 없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기초 학습지도 및 음악, 미술, 공동체놀이 등의 문화활동, 다양한 심성훈련과 상담 및 권익보호활동, 아울러 학부모 교육과 지역활동을 병행해 왔다.

공부방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구립청소년공부방과 민간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구립청소년공부방은 전반적으로 사설독서실과 같이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으로서의 기능만을 하고 있으며, 민간청소년공부방은 복습·예습을 포함해 학습지도를 기본으로 위에서 언급한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습능력 향상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통해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과 비교해 심리사회적 정서나 자아존중감, 주위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공부방에서의 지원덕분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이 모여 사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을 활성화시켜 저소득층청소년들이 학습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미래를 위한 진로와 직업선택에 있어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하드웨어 중심의 구립공부방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청소년 공부방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부방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

2) 저소득가정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환경적 특징의 하나는 가정과 부모로부터 충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청소년들이 가정에서의 부모에 의한 숙제지도와 학습지도, 가정방문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지도, 학교에서의 방과후 특별활동, 가정교사에 의한 과외활동, 사설학원에서의 과외활동과 특기활동 등으로 학습능력과 재능을 키우고 있는 반면 저소득가정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가정에 방치되거나 또래친구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통해 미래를 위해 능력과 자질을 함양해야 하는 청소년기의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에 재학중인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해 가장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지원방법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방과후 특별활동’은 일반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활동이겠지만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권장할만한 활동이라 하겠다.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특별활동’으로 실시하는 교육내용으로는 과학실험, 미술, 색종이접기, 구연동화, 영어, 바이올린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 청소년들의 지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 달에 2만원~3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용은 저소득가정의 부모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지원불가능한 금액이므로 이를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재원으로 불충분할 경우 교사, 학부모, 특별활동 지도교사가 협의하여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컴퓨터 교육 지원

조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즈음의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활동이 컴퓨터임을 알 수 있다. 컴퓨터와 관련된 영역은 또한 청소년세대에게 가장 다양한 직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직업전선에서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컴퓨터의 활용이 일반청소년 비해 저소득층청소년에게 있어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미래 사회에서의 컴퓨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저소득층청소년에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는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활동이고, 특히 저소득층청소년에게는 학교가 컴퓨터를 이용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장소임을 감안할 때 학교의 환경과 여건을 활용한 저소득층청소년의 컴퓨터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관광부가 협의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4) 직업체험활동 활성화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방학 등 일정기간 학생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일과 학습을 결합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청소년직업 체험센터 '하자'가 개설되었다. 이 곳은 서울시의 위탁으로 연세대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10대들의 문화 작업장이다.

이 곳에서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5개의 문화작업과 각

종 프로젝트들을 실시하고 있다. 대중음악 작업장, 여기에는 힙합강좌, 생활속의 음악찾기, 자기언어놀이, 뮤직메거진 제작, 내가 만드는 CD, 뮤지션 프로젝트 등 6개 프로젝트가 있다. 이 곳에서 운영하는 문화작업장은 대중음악 이외에도 영상디자인, 시각디자인, 시민문화, 웹 디자인 분야가 있고 각 분야마다 관련 첨단 설비와 공간을 확보하고 각 전문가 그룹과 10대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놀면서 배우기’와 ‘직접 체험 - 나 찾기’의 과정을 실험한다.

이러한 직업체험센터는 국가의 지원 하에 여러 곳에서 운영될 예정인데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여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모색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직업체험센터의 경우 일부 계층의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참여할 뿐 정작 이러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청소년들처럼 소외계층 청소년의 경우 관련정보와 자신감 부족,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건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24.0%의 저소득가정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43.7%)에게 그 직종을 조사한 결과, 전단(광고물)돌리기, 음식서빙, 신문배달, 음식배달업동의 단편적인 일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생활에 경제적인 보탬을 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것을 돕고 또, 자립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방과후나 방학중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겸한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청소년고용프로그램을 참고해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생활여건을 고려한 그들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고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

5. 여가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문화적 지원

본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소득가정 청소년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그들의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부분적으로 지역사회 공부방이나 복지관을 통한 무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일반청소년들이 누리고 있는 영화·연극·콘서트·운동경기등의 관람, 가족여행·수련활동, 컴퓨터교육 및 이용등의 문화적인 삶의 양과 질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여가시간에 희망하는 활동으로는 ‘콘서트·운동경기관람’, ‘콜라텍’, ‘영화관람’, ‘가족여행’, ‘비디오방’, ‘전시회·박물관·과학관’, ‘볼링장’등을 다수가 꼽았고, 희망과외활동 항목에서도 저소득층청소년들은 ‘컴퓨터학원’, ‘운동(태권도·헬스등)’, ‘피아노학원’, ‘수영’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문화·체육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지원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것과 심리·사회적인 지원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지원 뿐만 아니라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적인 유익환경의 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가정 청소년 개개인에게 뿐 아니라 이들 청소년 이용기관을 통한 영화·연극관람, 콘서트·운동경기관람, 전시회·박물관·과학관등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1999년 12월 말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컴퓨터 교육의 확대 실시와 지역사회 체육 시설에 대한 이들 청소년의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생활에 있어 일반청

소년들과의 간격을 좁히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욕구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와 사회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충분한 문화·체육 활동을 통해 여가시간을 바람직하게 사용함으로써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저소득층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쿼터제

수련시설 이용쿼터제란 각 시설에서 일정한 시간을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할당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즉, 전체 프로그램의 3~5% 정도를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현재 국·공립 수련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사립시설에도 확대하여 사립시설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가족과 부모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반해 저소득층청소년들이 가족과의 여행경험이 적고 대화시간도 부족한 것을 감안할 때 '저소득가정을 위한 가족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이들에게 부모와 자녀간 이해와 일치의 기회를 제공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립평창수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푸름이 가족사랑 한마당' 같은 프로그램을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할 때에는 일반가정의 프로그램보다 더 세심하고 많은 배려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저소득가정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한 청소년회관 프로그램 활용방안

청소년회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질과 재능을 키우며 정서적 심리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들도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자라나는 세대임을 생각할 때 일반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대치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청소년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실무자들 즉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요원이나 지역사회복지관의 청소년담당 실무자는 청소년회관이나 구민체육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합한 대상의 선정과 지원방법을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을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저소득층청소년들을 위한 수영, 영어, 컴퓨터, 피아노, 악기 등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문화공연물·운동경기 관람쿠폰제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에 희망하는 활동으로 '콘서트·운동경기관람'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것을 저소득층청소년들이 희망직업으로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꿈은 것과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수련시설 이용쿼터제와 마찬가지로 운동경기나 공연물 관람권의 일정을 이러한 문화공연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해 할당함으로써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고,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특히 국가가 지원하는 공연물일 경우 일정 부분을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 즉 저소득층청소년이나 장애청소년, 특정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할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대상선정과 지원방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한 청소년회관 프로그램 활용방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실무자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4) 저소득계층 지역에서의 청소년 콜라텍 운영

저소득가정 청소년들도 여가시간에 희망하는 활동으로 ‘콘서트·운동경기관람’, 다음으로 ‘콜라텍’에 가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콜라텍은 말 그대로 콜라를 마시며 춤추는 작은 무도장 같은 곳이다. 이러한 콜라텍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춤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푸는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청소년은 물론 기성세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호응을 반영하여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동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콜라텍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부나 집안문제로 쌓인 스트레스를 한 번에 풀 수 있고, 술과 담배가 없고, 공부를 잘하는 못하든 친구와의 다툼이나 왕따란 없다”라고 청소년들도 콜라텍을 환호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청소년의 원의와 생활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정부

가 청소년들을 위한 콜라텍을 지원할 때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운영 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다.

또한 청소년학과나 사회복지학과 등 청소년관련 학과의 대학생들을 인턴이나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고 문헌

■ 국내문헌

- 강무섭(1998). 청소년실업자를 위한 교육대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권순원(1993).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대책.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금재호(1997). 도시근로자의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경혜(1998). 서울시 저소득시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연구. 서울: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 김미곤(1999).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신정부의 사회정책평가.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
회복지정책학회 · 공동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 서울: 한국사회정
책학회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성이(1993).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의의.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복
지론.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수현(1999). 취약계층의 자활지원대책.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토론회 자료집.
- 김영모(1998). 한국청소년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방안. 사회정책연구, 제10
집.
- 김정명 외(1989). 요지원 무직 미진학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
국청소년연구원.
- 김준호 외(1996).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김태련(1992). 청소년기의 발달과 발달과정. 청소년 심리학. 서울: 한국청
소년연구원.
- 김태진(1995).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초(1991). 청소년복지 및 관련서비스 고찰. 청소년학대회. 서울: 한국 청소년학회, 1991.
- 나병균(1998). IMF시대의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실업자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 남세진·조홍식(1995).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 노 혁(1998).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개선정책 연구-공동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성희(1999). 실직자 가족의 해체가능성에 관한 연구-실직가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인철 외(1995).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자활지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교육원.
- 류진아(1999). 아버지의 실직경험 유무와 청소년의 진로의식 및 직업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편 (1997). 주요업무추진계획. 서울: 문화체육부.
- 박기원(1998). 빈곤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박문수 외(1998). 저소득층지역 청소년 여가문화와 소집단 활성화. 서울: 집문당.
- 박순일(1999). 실업대책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보건복지포럼 제33호, 1999. 6.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 박순일 외(1990). 우리 나라의 빈곤화 요인분석과 대책방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순일(1994). 선진경제의 문턱에서 본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서울: 일신사.
- 박종헌(1999). 한국사회 중산층 가족의 가장 실직에 따른 적응과 갈등.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춘자(1999). 실직자 가족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제 37호.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 보건복지부 편(1996). '96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사회부 편(1996). 보건사회백서. 서울: 보건사회부.
- 부스리기선교회 · 빈민여성교육선교원 편(1996). 공부방 현황 및 교육활동. 서울: 부스리기.
- 부스리기선교회 · 빈민여성교육선교원 편(1998). 부스리기선교회 신나는집 활동백서. 서울: 부스리기.
- 부스리기선교회 · 빈민여성교육선교원 편(1998). 빈곤가정 여성과 아동에 관한 세미나. 서울: 부스리기
- 부스리기선교회 · 빈민여성교육선교원 편(1999). 결식아동 및 빈곤가정을 위한 제도 마련 공청회. 서울: 부스리기
- 송영숙(1998). 가톨릭 공부방 활동의 변천과정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산 시립 어린이 청소년 쉼터 편(1999) 예은 신나는집 사업보고서. 경기도 : 안산 시립 어린이 청소년 쉼터.
-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명용(1999). 빈곤지역 청소년문제 접근 연구 세미나(pp. 1-18). 서울: 태 화기독교사회복지관.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1990). 한국가족론. 서울: 도서출판 까치.
- 유은상(1994). 복지국가, 사회주의와 보수주의. 서울: 대학촌.
- 윤영득(1995). 복지경제학. 서울: 형설출판사.
- 이명숙 외(1996).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기능의 강화.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무근(1998) IMF시대의 청소년 실업문제, 그 진단과 대책, 21세기 청소년 포럼.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이문숙(1998). 한 도시지역 저소득층주민의 정신건강수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록(1997) 한국 청소년 노동자의 현황과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장원 외(1998). 실업과 빈곤화(IMF체제 이후 성남지역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우(1992). 소득분배론. 서울: 비봉출판사.
- 이정은(1997).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상호작용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가족응집성과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1999). 가정의 실직과 자녀의 학습 의욕과의 관계. 목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호(1993).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 한국개발연구, 제 15권 제3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임영식(1999). 청소년발달의 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학회 편, 청소년학 총론(pp. 57-86). 서울: 양서원.
- 임창호 외(1989). 도시빈곤층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 임희섭(1978). 빈곤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12집.
- 장신재(1997). 저소득층의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자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무성(1998). 실직자와 그 가족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방향,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3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정복란 외(1990). 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인수(1998). 청소년실업현황과 고용촉진대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정진백(1999). 실직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가정특성과 자아개념 비교.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인(1998). 부모의 실업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1998). 실직으로 인한 가정분위기, 부모양육태도 및 아동정서의 연관성 연구 - 비실직가정과 비교하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희(1998). 실직자 가족의 해체가능성에 관한 연구 : 실직 가정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흥식(1998). 대량실업에 따른 민간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개발, 경제위기상황하에서의 민간복지서비스 확충방안 모색, 사회복지통원 제137호(1998.여름).
- 조흥식(1999). 청소년 복지적 소외와 정책과제. 한국청소년학회 편, 소외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pp. 57-80).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주학중 편(1988). 한국의 소득분배의 결정요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최 현 외(1990). 요지원 청소년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최일섭·김광익(1982). 한국사회에 있어서 빈곤문제연구의 성과와 과제. 사회과학정책, 제4권 제2호.
- 최일섭·최성재 (199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출판.
- 최향순(1993). 복지행정론. 서울: 신원문화사.
- 한국사회보장학회 편(1999). 기초생활과 생산적 복지. 서울: 한국사회보장학회.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3). 청소년복지론.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4). 청소년의 발달과 지역사회의 참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허 선(1999).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 대책, 사회복지, 1999년 가을.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허 선(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까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제15호. 서울: 나남출판.
- 허승연(1998). 경제위기로 인한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와 가족응집성 변화가 아동의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규 외(1989).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성남,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외국문헌

- Angel, Ronald, and Jacqueline Worobey. 1988. *Single motherhood and children's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 38-52.
- Bowen, Gary, Chapman, Mimi(1996). *Poverty, neighborhood danger social support, and the individual adaptation among at-risk youth in urban areas* In Journal of Family issues. Sage Publication inc..
- Bronfenbrenner, U. & Morris, P. A.(1997).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es*. In R. M. Lerner(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5th ed., vol. 1). New york: Wiley.
- _____. (1995). *The bioecological model from a life course perspective*. In P. Moen, G. H. Elder, & K. Luscher(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_____.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s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 Carter, B., & McGoldrick, M. (Eds.)(1989). *The family life cycle :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2nd ed)*> Needham Heights, MA:Allyn & Bacon.
- Cicchetti, D., & Toth, S. L. (199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3 pp221-241
- Connell, J. P., Spencer, M. B., & Aber, J. L. (1994). Educational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american youth: Context, self, action and outcomes in school. *Child Development*, 65 pp493-506.
- Elder, G. H., & Caspi.(1986). *Problem behavior and family relationships: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themes*. In A.B. Sorenson, F. Weinert, & L. Sherrod(Eds.), *Human development and the life course: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Hillsdale, NJ:Eribaum.
- Elder, G.(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lder, G., & Rockwell, R.(1985). *Children of hard times: Perspectives from the social change project*. In J. Boulet et al.(Eds.), *Understanding the economic crisis: The impact of poverty and unemployment on children and families*. Ann Arbor, MI: Bush Program on Child Development and Social Policy.
- Elder, G., Van Nguyen, T., & Caspi, A.(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s*, 56, 361-375.
- Fraser, M. W.(1996). *Aggressive behavior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n ecological-developmental perspective on youth violence..* *Social Work*, 41(4) pp347-361.
- Friday, P.C., and J. Hage.(1976). *Youth crim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An intergrated perspective*. *Criminology* 14:347-368.

- Hertherington, E. M.(1995, March).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and the well being of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fo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 Hertherington, E. M., Cox, M., & Cox, R.(1982). *Effects of divorce on children and parents*. In M. E.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hillsdale, NJ: Erlbaum.
- Hill, M. S., Sandfort, J. R.(1995). *Effect of Childhood Poverty on Productivity Later in Life,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17, No. 1/2.
- Ho, Camilla, Lempers, Jacques, et al(1995). *Effects of economics hardship on adolescent self-esteem*. In A Family Mediation Model.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1997). *Lessons learned effectiveness of employment: related programs for yout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1998). *a resource booklet for 15 to 30 year old as well as counsellors, parents, educators, employers and community groups*. In Youth Link.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Hutchings, Judy, Gower, kathy(1993).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In Journal of Mental Health. Carfax Publishing Company.
- Kadushin, A(1980). *Child Welfare Servic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Kaplan, H.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Kazdin, A. E. (1987). *Conduct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Komarovsky, M. (1940). *The unemployed man and this family*. New

York: Dryden Press.

Lempers, Jacques D., Clark-Lempers, Dania S.(1997). *Economic hardship, family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distress: An evaluation of a stress-distress mediation model in mother-daughter and mother-son dyads*. In Adolescence. Libra Publishers inc..

Mcloyd, V. C., & Wilson, L. (1991). *The strain of living poor: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In A. C. Huston (Ed.),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pp. 102-135). New York: John Wiley & Sons.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Moffitt, T. E., & Caspi, A. (1993). Recited in Science News, 143(18) pp282-285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y. *Psychological Review*, 100 pp647-701

O'Donnell, J., Hawkins, J. D., & Abbott, R. D. (1995). *Predicting serious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among aggressive bo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pp529-537

Ogbu, John.(1978). *Minority Education and Caste: The American System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Olson, D., McCubbin, H., et al.(1983). *Family inventories*. S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Stern, S. B., & Smity, C. A. (1999).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 antisocial behavior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delinquency intervention*. Families in Society, 80 pp169-181
- Stern, S. B., & Smity, C. A., & Jang, S. J. (1999). *Urban familie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ocial Work Research, .23(1) pp15-26
- Townsend, P.(1987). *Deprivation*.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16, No. 2.
- Trone, Kerstin(1998).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In Family & Conciliation Courts Review. Sage Publications inc.,

■ 인터넷자료

- 교육부 홈페이지(1999). <http://www.moe.go.kr>(검색일: 1999.12.13.)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1999). <http://www.mot.go.kr>(검색일: 1999.12.13)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1999). <http://www.mohw.go.kr>(검색일:1999.12.13.)
- 복지인마을 홈페이지(1999). <http://www.maeul.welfare.net>(검색일: 1999. 12.13)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1999). <http://www.mic.go.kr>(검색일:1999.12.13.)

Abstract

The Youth Problems of Unemployed Low-Income Families and Polycies Ulnternatives

This study explores the general effects of economic crisis on the unemployed low-income families, and identifies in particular the problems and difficulties of young people in those families.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recommends various policy alternatives to partly solve or at least alleviate those problems.

The significance and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introduced in the outset of the report. We suggested, as the relevant theoretical basis of this study in the chapter two, the ecological perspective which emphasizes the dynamics of family, community, school, and the peer group in affecting the young people's life. Comparative method is employed to compare and contrast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wo groups, youth in low-income families and those of middle-income families. Accessibility limitation to the target population inevitably has hampered the level of generalization and applicability of this study, that is typical when one surveys the hidden population. The following is what we have found in the survey research.

Firstly, there have been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youth of low-income families and those of middle-income families since the crisis, in the areas of general value system, the perception of surrounding environment, family life including young people's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In particular, we have found clear

contrast between two groups in the degree of change in family life. Also we fou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erms of economic level measured by the self-reported family income, and most young people seemed to correctly identify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ir families.

Secondly,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cted between two groups in the parental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and child rearing practice such as frequency of dialogu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concern about their children's friends, corporal punishment to children. The family culture of low-income group includes that 1) they talk less to each other; 2) parents are less concerned about their kid's friends; 3) they use more often the corporal punishment to discipline their child; and 4) they are generally less devoted to their family and children. These trends are also identified in the youth's evaluation about their parents as their role model. Additionally, more rapid change of family life and structure has been taken place in the low-income families than in their comparison group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particular,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of low-income class seemed to be more often exposed to the danger of missing the lunch than those of their middle-income counterparts.

What this study has found is that we need various kinds of policy measures to solve the youth problems of low-income famil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of policy alternatives not only in economic dimension but also in socio-cultural areas to solve the youth problem caused by the crisis. This study more specificall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and program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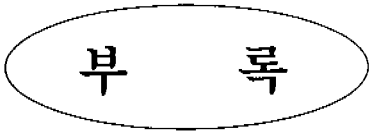
- 1) We suggest the needs of economic support for the

crisis-stricken unemployed families, that include the full realization of newly-established social security law, job training and information services, the strengthening of part time daily work for the jobless people.

2) We also recommend the psycho-social programs focused on family setting, that include family therapy services, family counselling programs, food supports for the youth in danger of lunch missing, and the support system for drop-out youth and run-away children.

3) We propose the educational support programs for the low-income families. Those can be implemented by, for example, the supply of reading room for the poor youth, the after-school support for the youth of the low-income families, computer education program and job experience.

4) We finally emphasize the need of cultural support programs which are specified as the quota system of the youth training facilities for the youth from the low-income families, more active use of community youth center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youth, and so forth.



부록

부록 1 - 조사 설문지

부록 2 -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 사례

부록 -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 실태 관련 신문기사

부록 1 - 조사 설문지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자 양성을 위해 지난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개발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원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 할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청소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일상생활 안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희망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많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 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청소년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한 국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만 사용되니 성
의있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137-715)

복지정책연구실 : 이해연 · 김희진

(☎ 02-2188-8834, 8854, FAX : 2188-8869)

1999. 10.

한국청소년개발원

※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것 하나만을 골라 해당번호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2가지, 3가지, 있는대로 등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는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I. 다음은 여러분의 전반적인 생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응답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2.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 2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1)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 2)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이다
☐ 3)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는 것이다
☐ 4) 흥미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
☐ 5)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다
☐ 6) 서로 돕고 사는 것이다
☐ 7) 기타 ()

- 2-1.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2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1) 본인능력 ☐ 2) 가정의 배경 ☐ 3) 노력이나 성실성
☐ 4) 학 력 ☐ 5) 학교선후배 ☐ 6) 운수와 기회
☐ 7) 경제력(돈) ☐ 8) 기 타 ()

3.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2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1)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
- ☐ 2) 부자가 되는 것
- ☐ 3)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
- ☐ 4) 혼자 힘만으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 ☐ 5) 평범한 사람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 ☐ 6)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살리며 사는 것
- ☐ 7) 그날 그날을 즐기며 사는 것
- ☐ 8) 기타 ()

4. 우리 사회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1)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 ☐ 2) 사람들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
- ☐ 3)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 ☐ 4) 밝고 건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
- ☐ 5) 대부분의 일에 가문이나 뒷배경이 중시된다
- ☐ 6)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 7) 부지런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 ☐ 8) 자기 혼자만 잘 되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 ☐ 9) 기타 ()

5. 20년 후에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 ☐ 1) 매우 행복할 것이다
- ☐ 2) 약간 행복할 것이다
- ☐ 3) 그저 그럴 것이다
- ☐ 4) 별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 ☐ 5) 전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5-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6. 20년 후에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 ☐ 1) 매우 가난할 것이다
- ☐ 2) 약간 가난할 것이다
- ☐ 3) 보통 정도일 것이다
- ☐ 4) 약간 잘 사는 편일 것이다
- ☐ 5) 매우 잘 사는 편일 것이다

II. 다음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여러분은 학교 이외에 집(개인과의 포함), 학원, 공부방, 독서실 등에서 하루 평균 몇 시간 공부합니까 ?

(약 _____ 시간)

2.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합니까

- ☐ 1) 중학교 졸업
- ☐ 2) 고등학교 졸업
- ☐ 3) 대학교 졸업
- ☐ 4) 대학원 이상

2-1. 실제로 여러분이 바라는 단계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

- ☐ 1) 매우 확신한다(→ 3번으로)
- ☐ 2) 약간 확신한다(→ 3번으로)
- ☐ 3) 별로 확신하지 않는다(→ 2-2번으로)
- ☐ 4)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 2-2번으로)

2-2. 마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1) 노력이 부족해서
- ☐ 2) 능력이 부족해서
- ☐ 3)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 ☐ 4) 부모님의 이해부족
- ☐ 5) 돈이 없어서
- ☐ 6) 기타 (_____)

3. 여러분이 희망하는 직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2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_____, 2 _____)

- | | | |
|----------------------|--------------------|-----------------|
| 1) 교사 | 2) 교수 | 3) 과학자 |
| 4) 공무원 | 5) 정치인(국회의원·외교관) | 6) 판사·변호사·검사 |
| 7) 의사 | 8) 간호사 | 9) 약사 |
| 10) 농·축·수산업 | 11) 상업 | 12) 사업가·전문경영인 |
| 13) 회사원·은행원 | 14) 기술자 | 15) 건축가 |
| 16) 파일럿(비행기조종사) | 17) 비행기 승무원 | 18) 경찰·군인 |
| 19) 작가 | 20) 화가 | 21) 만화가 |
| 22) 아나운서·방송국PD | 23) 기자 | 24) 광고인 |
| 25) 컴퓨터프로그래머 | 26) 의상디자이너 | 27) 헤어디자이너(미용사) |
| 28) 연예인(텔런트·가수·개그맨등) | 29) 영화감독 | 30) 운동선수 |
| 31) 사회복지전문가 | 32) 성직자(목사·신부·승려등) | 33) 기타 (_____) |

4. 여러분은 학교공부 외에 현재 학원에 다니거나 개인(집단)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있는데로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___ 1) 가정교사 과외 | ___ 2) 학습지 구독 | ___ 3) 속셈·주산학원 |
| ___ 4) 컴퓨터 학원 | ___ 5) 체육관(태권도, 수영 등) | ___ 6) 진학을 위한 학원 |
| ___ 7) 영어학원 | ___ 8) 지역사회복지관(피아노, 태권도, 영어, 컴퓨터, 수영 등) | |
| ___ 9) 피아노 학원 | ___ 10) 공부방·신나는집(학습지도, 피아노, 미술 등) | |
| ___ 11) 없다 | ___ 12) 기타 (_____) | |

4-1. 위에서(4번) 제시된 항목을 참고하여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것이
나 하고 싶은 것을 2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_____)

5. 여러분의 학교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 ___ 1) 1등~10등 | ___ 2) 11등~20등 | ___ 3) 21등~30등 |
| ___ 4) 31등~40등 | ___ 5) 41등 이하 | |

6. 여러분은 원(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있습니까?

___ 1) 예(→ 6-1번으로)

___ 2) 아니오

6-1. 어떤 일로 돈을 벌었었는지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___ 1) 신문배달

___ 2) 주유소 주유원

___ 3) 물품 판매

___ 4) LPG 가스배달

___ 5) 음식점에서 배달업(예, 중국집 등)

___ 6) 음식점에서 서빙(햄버거 가게, 패스트푸드점 등)

___ 7) 티켓다방

___ 8) 기타/꼭 적어주세요(_____)

6-2.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선택해 주세요

___ 1) 용돈이 필요해서(학용품 구입이나 친구만남을 위해)

___ 2) 학교등록금이나 학원비에 보태기 위해서

___ 3) 가정의 생활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___ 4)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

___ 5) 기타 (_____)

Ⅲ. 다음은 가정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여러분 부모님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응답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우리 아버지께서는

- | | | | | |
|---------------------------------|---|---|---|---|
| 1) 자녀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신다 | ① | ② | ③ | ④ |
| 2) 내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잘 모르신다 | ① | ② | ③ | ④ |
| 3) 내가 잘못된 일이 없는데도 자주 야단치거나 때리신다 | ① | ② | ③ | ④ |
| 4) 가족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신다 | ① | ② | ③ | ④ |
| 5) 나를 매우 사랑하신다 | ① | ② | ③ | ④ |

우리 어머니께서는

- | | | | | |
|---------------------------------|---|---|---|---|
| 1) 자녀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신다 | ① | ② | ③ | ④ |
| 2) 내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잘 모르신다 | ① | ② | ③ | ④ |
| 3) 내가 잘못된 일이 없는데도 자주 야단치거나 때리신다 | ① | ② | ③ | ④ |

5-1.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6.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IMF이후(1997년 12월) 최근까지 여러분의 생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응답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2) 식사를 거르거나 도시락을 못 싸 갈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3) 준비물, 학용품, 생활용품 등을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4) 이웃이나 친척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5) 아픈 사람이 있어도 병원에 못 간다	①	②	③	④
6) 집을 줄여 이사해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7) 용돈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8) 수입이 줄어 부모님 사이가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9) 가족간에 폭력을 쓰며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10) 부모님의 실직으로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다(기출·이혼 등)	①	②	③	④

7. 현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주위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___ 1) 있다(→ 7-1번으로) ___ 2) 없다

7-1.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___ 1) 친척 | ___ 2) 구청·동회 |
| ___ 3) 사회복지관 | ___ 4) 민간복지단체 또는 사회단체 |
| ___ 5) 교회, 성당, 절 등 종교기관 | ___ 6) 이웃 |
| ___ 7) 학교 | ___ 8) 병원·의원 |
| ___ 9) 개인독지가, 자원봉사자 | ___ 10) 기타 () |

7-2. 어떤 종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___ 1) 생활보호대상자 ___ 2) 한시생활보호대상자
 ___ 3) 경제적 도움(현금지원) ___ 4) 물품지원
 ___ 5) 일자리 알선 ___ 6) 직업훈련, 기술교육
 ___ 7) 놀이방, 공부방, 신나는집 ___ 8) 실업자를 위한 쉼터
 ___ 9) 상담 또는 정서적 지원 ___ 10) 무료급식(식사)
 ___ 11) 기타 (무엇? _____)

IV. 다음은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자유시간(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등)에 하는 활동과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을 선택해 주십시오.

한번도 해(가) 본 적이 없다	한두번 해(가) 본 적이 있다	가끔 한(간)다	자주 한(간)다
------------------------	------------------------	-------------	-------------

- | | | | | |
|----------------------------------|---|---|---|---|
| 1)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 ① | ② | ③ | ④ |
| 2) 집안일 돕기(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 ① | ② | ③ | ④ |
| 3) 가족과의 대화·모임 | ① | ② | ③ | ④ |
| 4) 책읽기 | ① | ② | ③ | ④ |
| 5) 아르바이트 | ① | ② | ③ | ④ |
| 6)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냄 | ① | ② | ③ | ④ |
| 7) 사설독서실(개인독서실) | ① | ② | ③ | ④ |
| 8) 서점·도서관 | ① | ② | ③ | ④ |
| 9) 친구만나기 | ① | ② | ③ | ④ |
| 10) 동아리활동(학교, 청소년회관 및 복지관 등에서) | ① | ② | ③ | ④ |
| 11) 종교활동(교회, 성당, 절에 다니기) | ① | ② | ③ | ④ |
| 12) 수영장 | ① | ② | ③ | ④ |
| 13) 볼링장 | ① | ② | ③ | ④ |
| 14) 당구장 | ① | ② | ③ | ④ |
| 15) 인형극·연극관람 | ① | ② | ③ | ④ |
| 16) 영화관람 | ① | ② | ③ | ④ |
| 17) 대중가요콘서트·운동경기 직접관람(농구장, 축구장등) | ① | ② | ③ | ④ |

- | | | | | |
|---|---|---|---|---|
| 18) 전시회(미술·유적·사진 등)·박물관·과학관 | ① | ② | ③ | ④ |
| 19) 수련활동·캠프활동·문화답사·역사기행 등 | ① | ② | ③ | ④ |
| 20) 놀이동산(서울랜드·롯데월드·에버랜드 등) | ① | ② | ③ | ④ |
| 21) 가족여행 | ① | ② | ③ | ④ |
| 22) 전자오락실 | ① | ② | ③ | ④ |
| 23) PC방(인터넷 플라자) | ① | ② | ③ | ④ |
| 24) 비디오방 | ① | ② | ③ | ④ |
| 25) 만화가게(대여점 포함) | ① | ② | ③ | ④ |
| 26) 콜라텍(콜라등 음료수 마시며 춤추는 곳) | ① | ② | ③ | ④ |
| 27) 디스코텍 | ① | ② | ③ | ④ |
| 28) 노래연습장·노래방 | ① | ② | ③ | ④ |
| 29) 쇼핑센터(밀레오레, 두타 등) | ① | ② | ③ | ④ |
| 30) 길거리 돌아다니기(길거리 아이쇼핑) | ① | ② | ③ | ④ |
| 31) 분식집 | ① | ② | ③ | ④ |
| 32) 패스트푸드점(맥도날드, 롯데리아, KFC, 버거킹 등) | ① | ② | ③ | ④ |
| 33) 경양식집·패밀리 레스토랑
(베니건스, T·G·I Friday's, 스카이라 등) | ① | ② | ③ | ④ |
| 34) 카페·스텐드바 | ① | ② | ③ | ④ |

1-1. 위의 활동이나 장소 중 해보고 싶거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5 가지 정도를 선택해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여러분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___ 1) 있 다 (→ 2-1번으로)

___ 2) 없 다

한번도 해(가) 본 적이 없다	한두번 해(가) 본 적이 있다	가끔 한(간)다	자주 한(간)다
------------------------	------------------------	-------------	-------------

- | | | | | |
|----------------------------|---|---|---|---|
|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 폭력을 쓴 적이 있다(사람이나 물건) | ① | ② | ③ | ④ |
| 4)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 약물복용·본드·부탄가스를 사용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6) 가출해 본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7) 음란만화·잡지 등을 본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8) 음란영화·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9) 이성과 성적인 접촉 경험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0)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5. 여러분은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___ 1) 있다 (→ 5-1번으로) ___ 2) 없다

5-1. 집단따돌림을 당해본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6. 요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다음 중에
 서 3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 ___ 1) 가족 | ___ 2) 성격 | ___ 3) 진학·취업 |
| ___ 4) 외모 | ___ 5) 학교 | ___ 6) 공부·학업성적 |
| ___ 7) 이성교제 | ___ 8) 용돈부족(돈문제) | ___ 9) 동성친구 |
| ___ 10) 성(sex)문제 | ___ 11) 경제적 어려움 | ___ 12) 건강 |
| ___ 13) 없다 | ___ 14) 기타 (_____) | |

7. 여러분은 위에서 말한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주로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_
2 사람만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 ___ 1) 부모님 | ___ 2) 친구 | ___ 3) 형제자매 |
| ___ 4) 이성친구 | ___ 5) 전문상담원(카운셀러) | ___ 6) 성직자(목사, 신부, 스님) |

- ___ 7) 학교선생님 ___ 8) 공부방(복지관)선생님 ___ 9)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___ 10) 대화할 사람이 없다 ___ 11) 기타 다른 사람(_____)

V.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여러분의 성별은 ?

- ___ 1) 남자 ___ 2) 여자

2.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

- ___ 1) 초등학교 ___ 2) 중학교 ___ 3) 인문계고등학교
___ 4) 실업계고등학교 ___ 5) 학교에 안 다닌다

3. 현재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형제자매의 경우 2명 이상이면 () 안에 그 숫자를 적어 주십시오.

- ___ 1) 할아버지 ___ 2) 할머니 ___ 3) 아버지 ___ 4) 어머니
___ 5) 계부 ___ 6) 계모 ___ 7) 양아버지 ___ 8) 양어머니
___ 9) 형제자매() ___ 10) 기타 (_____)

4. 여러분 가족의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 각각의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 1) 아버지 ① 가톨릭(천주교) ② 개신교(기독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2) 어머니 ① 가톨릭(천주교) ② 개신교(기독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3) 본인 ① 가톨릭(천주교) ② 개신교(기독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5. 여러분 가족의 한달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 ___ 1) 49만원이하 ___ 2) 50~99만원 ___ 3) 100~149만원 ___ 4) 150~199만원
___ 5) 200~249만원 ___ 6) 250~299만원 ___ 7) 300~349만원 ___ 8) 350만원이상

6. 여러분 부모님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 각각의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 1) 아버지 ① 무학 ② 국졸,국퇴 ③ 중졸,중퇴 ④ 고졸,고퇴 ⑤ 대졸,대퇴 ⑥ 대학원졸
2) 어머니 ① 무학 ② 국졸,국퇴 ③ 중졸,중퇴 ④ 고졸,고퇴 ⑤ 대졸,대퇴 ⑥ 대학원졸

7.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방수는 ?

- ___ 1) 방 1개 ___ 2) 방 2개 ___ 3) 방 3개 ___ 4) 방 4개 이상

8. 현재 여러분 부모님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쓰시오.

- 1) 아버지 () 2) 어머니 ()

① 무직(→ 8-1번으로)

② 빌딩관리 및 수위직, 화물취급원, 건설관련 단순노동자 등(단순노동직)

③ 판매직, 소규모 가게주인 등(장사)

④ 농업 및 축산업, 수산양식, 농축산 가공업 등(농업·어업·축산업)

⑤ 제품조립원, 기계장치 조작 운전원, 운전기사 등(기계·조립원)

⑥ 광부, 목수, 용접공, 배선공, 도배사, 정비원, 인쇄공 등(기능 및 기술근로자)

⑦ 식당, 숙박업, 이발소·미용업 등(서비스직)

⑧ 과장 이하 회사원, 은행원, 사회단체 직원, 기타 사무직 등(사무직)

⑨ 엔지니어, 건축사, 토목기사, 기타 기술직 등(기술전문직)

⑩ 의사, 변호사, 교수, 예술가, 언론방송인, 연구원, 회계사, 세무사 등(전문직)

⑪ 경영자, 기업체 중역, 사회단체 간부 등(고위 임원직 및 관리직)

⑫ 주부

⑬ 기타

⑭ 안 계심

★ 부모님이 실직한 사람만 응답해 주십시오.

8-1. 여러분의 부모님이 실직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각각의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1) 아버지 ___ ① 1개월~6개월 ___ ② 7~12개월 ___ ③ 1년 이상

2) 어머니 ___ ① 1개월~6개월 ___ ② 7~12개월 ___ ③ 1년 이상

8-2. 여러분 부모님의 실직전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위의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쓰시오.

1) 아버지 () 2) 어머니 ()

9. 현재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나 희망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많은 문항을 작성하느라 수고했습니다.

부록 2 -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 사례¹³⁾

이 름 : 김태영

성별 / 나이 : 남 / 16세

학 년 : 중학교 2학년

주 소 : 부산시 진구

의뢰일시 : 1999. 1. 29

1. 가족 배경

가족으로는 부(실직), 모, 형이 있다. 아버지는 주방장 일을 하다가 IMF로 인해 그만둔 상태이고, 어머니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것질거리를 파는 일(월 평균 40만원)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족의 주거상황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만원의 월세방에서 거주, 1층 안쪽 집 방 2개를 사용하고 있다. 방이 2개라 형제가 같이 생활하고 큰방에 TV가 있어 하루의 학교 생활 나머지 대부분은 큰방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

2. 청소년의 문제상황

학습능력이 월등히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로 인한 같은 또래들의 놀림과 열등감으로 자폐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태영이가 어릴 때부터 성장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여러 가지 특수교육을 시켜 보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특수교육을 하는 기관이 적었고 또 그 교육비가 비싸 아이를 계속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심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집안 전체가 어두운 상황이다.

- 13) 본 사례들은 부스러기 선교회와의 협의에 따라 본 선교회와 관련 공부방 및 신나는 집의 빈곤/결손/위기/실직가정 사례들을 엮은 「난 밖에가 방이예요 II」 (1999. 도서출판 부스러기)에서 발췌·정리한 것임.

이 름 : 김신수

성별 / 나이 : 남 / 14세

학 년 : 중학교 1학년

주 소 : 부산시 진구

의뢰일시 : 1999. 1. 28

1. 가족 배경

부(실직), 모, 그리고 동생이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는 선반 가공 관련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가끔 선반관련 일을 해주고 돈을 조금씩 벌어들이고 있다. 부도로 인해 사정상 합의 이혼을 하였지만 계속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가 1998년 12월 공공근로를 한달 하고 1999년에는 공공근로 신청에서 제외되어 집에 계시는 중이다. 따라서 월 평균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은 보증금 400만원에 월 7만원을 주고 있고 방은 2개이며 1층 단독 주택인데 집주인이 집을 새로 지을 동안만 살기로 해 집이 형편없이 낡았고 나머지 방은 근처에 있는 가내 수공업업을 하는 곳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 상태이다. 화장실은 마당 한 구석에 있는데 거의 낡아 있는 재래식이고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2. 청소년의 문제상황

신수는 2남 중 장남인데 어머니가 동생을 편애하는 경향이 있어 신수는 집에서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서 친구들과끼리 모였을 때 돈이나 알팍한 지식으로 자신을 내세우려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로는 공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이며 약간의 도벽이 있다. 또 욕을 잘하고 친구들에게 허세를 부리는 것이 습관화 되어있다.

이 름 : 이영희

성별 / 나이 : 여자 / 14세

학 년 : 중학교 1학년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의뢰경위(일시) : 1997.11

1. 가족 배경

어머니는 가출한 상태이며, 아버지와 언니, 2명의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1997년 12월과 1998년 11월간 전기, 수도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수도가 없고 겨울동안은 보일러가 가동이 되지 않아서 냉방에서 지냈다. 이후 후원금으로 전기 수도를 개설하여 냉방 거주를 면할 수 있었다. 자녀교육비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월 21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월 평균 수입은 일일고용으로 불규칙하며 최근 일을 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여 생활이 더욱 어렵다.

아버지는 19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음식을 얻어서 음식을 얻어오거나 집안 정리를 하지 않거나 거짓말, 도둑질을 할 경우 손발에 피멍 자국이 생기고 팔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아이들을 때렸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아버지는 술을 먹을 때 아이들을 심하게 나무라고 고아원에 보낸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

2. 청소년의 문제상황

영희는 모의 가출이전부터 도박이 심했다. 음식점에서 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 오기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오기도 했다. 친구들의 가방을 뒤지기도 하는데, 도둑질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친구들이 자기만 따돌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자신이 못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고 눈치를 본다.

이 름 : 박영주

성별 / 나이 : 여 / 16세

학 년 : 중학교 1학년 퇴학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의뢰일시 : 1999. 2. 10

1. 가족 배경

가족으로는 부(36, 실직), 계모(32, 친모는 가출), 동생(14)이 있다. 부는 실직 전에는 건축 일을 하였으며, 그당시 생활정도는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 생모가 집과 재산을 가지고 가출을 하여 그 이후부터 술을 자주 먹기 시작했다고 한다. 실직 전에는 성실한 편이었으나 실직 후에는 술을 자주 마시고 나쁜 술버릇이 있다고 한다(모가 없을 때 큰아이를 때리는 것 같다고 함). 부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잘 주지 않는 것 같으며 실직 후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한다. 계모는 91년도에 중국에서 온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95년도에 친척 소개로 영주의 부를 만났다고 한다. 남편이 실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모는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한다.

가족의 주 수입원은 계모이며 모의 고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다닌다(일당 3만원). 현재 계모의 고모네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고모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살고 있는 동안만 거주하게 되며 그 기간은 불확정상태이다.) 3층 건물에 방 2칸, 거실, 화장실은 집 내부에 있다.

2. 청소년의 문제상황

영주는 학교부적응과 가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인관계 면에서는 조용한 편이며 학교 다닐 때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 소극적 이어서 별명이 소심이었다고 한다. 중1때 잦은 결석으로 퇴학처분을 받게 되었고 집에서 방청소 등 집안 일에는 소홀한 편이라고 한다.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할 때는 잘하나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름 : 최범식

성별 / 나이 : 남 / 13세 학 년 : 초등 6년

주 소 : 관악구 봉천 5동

1. 가족배경

3년 전 어머니가 가출했고, 아버지는 알콜 중독은 아니지만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다. 1주일에 2-3번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응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온 적도 있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는 비교적 허용적 이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는 실직 상태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98년 12월 말 까지)로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주 수입원은 생계보호비로 월평균 30만원 가량이다. 전세 2,300만원 방이 2개이며 부엌은 실내에 있고 화장실은 실외에 있으며 보일러가 고장나서 난방 및 온수 사용이 불가능하다(전기 장판으로 난방).

2. 청소년의 문제 상황

모의 가출 이후로 범식이에게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출이 가장 큰 문제이다. 아버지 몰래 집에 있는 돈을 찾아내어 돈을 다 쓸 동안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범식이의 이러한 가출에 대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름 : 이준형

성별 / 나이 : 남자 / 13세 학 년 : 초등학교 6학년

주 소 : 대전시 중구 의뢰일시 : 1998. 8

1. 가족 배경

아버지(42, 실직), 어머니(40, 일용직), 동생 2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실직과 알콜 문제(경미한 알콜중독 증세)로 인해 가족기능의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또한 부모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녀양육은 방임형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아버지는 가출 중에 있다. 주 수입원은 어머니로 일용직 노무 일을 하여 월 평균 60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약 8평 가량의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원의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으로 오래되어 낡았고, 시장에 인접해 있다.

2. 청소년의 문제상황

준형이는 주위가 산만하여 집중력이 떨어지며 신장과 체중이 평균에 비해 떨어진다.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기능이 불안정하다. 그러나 어려운 생활환경에 비해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으며, 동생들도 잘 돌본다고 한다.

이 름 : 한정태, 정현

성별 / 나이 : 남/15, 여/8

학 년 : 중학교 1학년, 유치부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의뢰일시 : 1999. 1. 21

1. 가족 배경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 할머니, 남매 2명이 가건물과 비슷한 집에서 살고 있다. 부모가 이혼한지는 몇 년 되었고 아버지는 용접기술이 있지만 일을 안한 지 꽤 되었다. 지금은 공공근로를 가끔 하고 있는데, 과음을 자주하고 있다. 한정태, 정현 남매가 어머니와 가끔 연락이 되어서 아이들이 연락하고 만나면 아버지가 매우 야단을 치고 있어 아이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주 수입원은 할머니가 돌일을 나가 버는 것인데 일당이 약 10,000원이며 이웃들이 보조를 조금씩 해 준다고 한다. 월 평균 수입은 20~30만원에 해당하는 할머니의 일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가건물의 문칸방으로 3평 정도의 방이 2칸(아버지 방과 할머니와 아동들의 방)이 있고, 재래식 화장실은 옥외에 대충 설치되어 있으며, 실외 부엌 1개가 있고, 약간의 월세를 지급한다.

2. 청소년의 문제상황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 면에서 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들의 양육에 방치하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과업수행이나 방과후 과제에 신경 쓰지 않는다. 한정태는 중학생으로 학습분위기가 되지 않아서 전혀 공부를 못하고 집에서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하루 식사 중 한끼 이상은 굶고 있다. 한정현은 할머니에게 때로 심하게 맞는지 위축되어 있으며, 남매가 둘 다 어머니와의 감정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심한 편이다.

이 름 : 이미선

성별 / 나이 : 여 / 14세 학 년 : 중학교 1학년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의뢰일시 : 1997. 12

1. 가족 배경

아버지는 막노동 일을 하며, 어머니의 정신분열 증세로 현재 입원 중이고 형제는 없다. 미선이가 1살 때 아버지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술을 먹은 후 취중에 어머니를 위에서 찌르려하여 어머니는 기절한 후 깨어났는데, 그 이후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켰다. 단칸방에서 13년 동안 아버지, 정신질환자인 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며, 아버지는 아침 5-6시에 막노동 철근 일을 하러 나가고 밤 12시가 다되어 들어왔으므로, 미선은 그 동안 정신질환자인 어머니와 둘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미선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진 5학년까지 하루 1끼 식사도 먹지 못하고 지냈으며, 아침에 아버지가 주고 가는 하루식비 2천원으로 빵, 우유 등의 군것질을 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날, 여름 장마기간에는 정신발작이 극심하여 미선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밟고 구타가 심하여 피멍이 돌 정도였다고 한다. 미선은 영양실조와 빈혈이 심하여 97년, 98년 3차례 쓰러진 적이 있다.

2. 청소년의 문제상황

아버지의 지방취업과 어머니의 정신병원 입원으로 미선이가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혼자 생활하는 것을 아는 집 주위의 자퇴청소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무서워서 자주 울었다. 스스로 왕따라고 생각하며, 학습시 산만하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의존적이다.

이 름 : 김지은

성별 / 나이 : 여 / 14세

학 년 : 중학교 1학년

주 소 : 안산시 원곡동

의뢰일시 : 1998. 9

1. 가족배경

아버지가 목수로 일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목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물리치료 등의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위 친척들에게 빌려서 한번에 3만원 정도 소요되는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다. 4년 전 어머니는 가출했고, 이따금씩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 사실을 알게되면 아버지가 화를 내고 할머니와도 갈등상황이 된다. 남동생은 친구들과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대개 밝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생활한다. 가출한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상반적인데, 보고싶은 감정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작은아버지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의 13평 짜리 서민아파트에 얹혀 살고 있다. 원래 세 들어있던 집(보증금 200만원, 월 15만원)은 전기와 수도가 끊어져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청소년의 문제상황

학교급식비가 밀려 있어 학교 가기를 어려워했다. 폭력적인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면에선 솔직하다. 학습과제를 충실하게 하는 등 아무진 면도 있으나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따돌리거나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름 : 김지숙

성별 / 나이 : 여 / 13세

학 년 : 중학교 1학년

주 소 : 경기도 광주군

의뢰일시 : 1999. 3. 2

1. 가족 배경

부모님과 두 동생이 함께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실직된 상태로 1개월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오신다고 한다. 어머니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나 수입이 좋지 않아 요즘은 남대문에서 옷을 사다가 돌아다니며 아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어머니가 낮에는 보험회사에 출근해야 하고 밤에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사와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는 지숙이가 몸이 아픈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 지숙은 건강하고 활발하지만 동생들로 인한 마음고생과 부모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많이 어두워졌다.

어머니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보험회사에서의 수입이 200,000~300,000원 정도이고 옷장사로 인한 수입은 외상이 많아 별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주택은 월세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200,000원이며 방은 3개, 실내 화장실이지만 방 3개는 전부 냉방이다. 난방비가 많이 나가 보일러를 다 끄고 마루에만 난방이 되게 작동시켜 놓았으며, 마루도 전체적으로 따뜻하지 않다.

2. 청소년의 문제상황

가정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동생의 병으로 인해 많이 상처를 받았다.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워져 있으며,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어 민감한 편이다.

부록 3 - 저소득 실업가정 청소년 실태 관련 신문기사

실직아버지 두딸 앵벌이로

한겨레신문. 1998. 12. 13.

인천 부평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앵벌이'를 시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한광수(38·무직·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씨의 구속영장과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8월께 다니던 목재공장에서 실직한 뒤 11살과 6살난 두 딸을 시켜 “죄송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라고 적힌 종이를 들게 한 뒤 동인천 중앙상가를 돌며 하루 1만5천~2만원씩 3개월 동안 100여만원어치의 불펜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인과 이혼한 한씨는 실직 뒤 딸들을 뒤통에 자주 폭행해왔고 초등학교 5년생인 큰 딸의 학교 담임교사가 면담과정에 이런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청소년들 "우리도 IMF고통 커요"

한겨레신문 1998. 4. 21

“컵라면 주세요.” 식권을 들이밀자 매점 직원이 힐끗 결눈질을 했다. 찬수(가명·17·부평공고 2년)는 행여 눈길에 마주칠새라 컵라면을 받아 들고는 도망치듯 식수대로 향했다. 부러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지만, 다른 아이들이 자꾸만 쳐다보는 것 같아 여간 찜찜한 게 아니다. “쪽팔리잖아요. 어떤 때는 차라리 굶는 게 속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나마 안먹으면 오후에 너무 지쳐서...”

찬수는 요즘 학교에서 기존 예산에다 교사 78명이 다달이 교직수당 1만원씩을 보태 마련한 하루 1000원 짜리 무료 식권으로 점심을 때운다. 올해 들어 도시락을 못 싸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이른바 ‘결식 지원 대상’이 된 것이다. 지난해 말 석재공장에 다니던 아버지(44)가 실직한 뒤로 찬수네는 5개월째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다. 올해 초 아버지가 어렵게 다시 일자리를 얻었지만 월급 한푼 못 받고 두 달만에 회사가 부도를 맞았다. 아버지는 일거리를 찾는다면 지방을 전전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 어머니(40)마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서 집안 살림은 완전히 엉망이 됐다.

이 학교에서 찬수처럼 점심값을 지원받는 아이들은 모두 50여명. 지난해보다 정확히 5배가 늘었다. “학부모 대부분이 인근 공단의 생산직 근로자들입니다. 애초에 저소득층인 데다 올해 초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 채 자연 실직한 경우가 부지기수죠. 한 반에 10명 정도는 가장이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2학년 순권(가명·17)이는 아직 이번 학기 등록금을 내지 못했다. 공사관 일을 하는 아버지(38)는 일감이 없다며 몇 달째 집에만 붙어 있다. 얼마전 여러 차례 망설이다 어렵게 등록금 얘기를 꺼내자 아버지는 얼굴도 돌리지 않은 채 “알았다”고만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다.

교사들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개학 초 등록금 미납률이 절반을 넘었지만 담임 교사들은 속만 태워야 했다. “예년 같으면 아이들을 불러다 닭아세우기라도 했겠지만 요즘은 그러지도 못해요. 숫자가 워낙 많은 데다 혹 아이들 마음을 다칠까봐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찬수는 또 얼마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현수막을 거래처에 배달하는 일인데, 아직 별이가 일정치는 않지만 일이 끝나면 사장이 1만~1만5000원 정도를 쥐어준다. “집안이 어려워진 게 부모님 탓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제 저금통장에 손을 댈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최소한 용돈은 스스로 벌기로 마음을 먹었죠.” 찬수는 능력이 되면 지방에 계신 아버지에게 돈을 부쳐드리고 싶단다.

실직 40대 가장 자녀셋 살해후 자살

문화일보. 1998. 12. 27

12월 26일 오후 7시40분쯤 부산 사하구 당리동 에덴동산타워아파트 6동 608호 윤환씨(47) 집에서 안씨는 안방 목걸이에 목을 매 숨져 있고 큰 딸 은진양(17·고1)과 작은 딸 선민양(16·중3)은 각각 자기 방에서, 아들 재철군(11·초등5)은 안방에서 목졸려 숨져 있는 것을 안씨의 형 창환씨(50)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창환씨는 「동생 집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직접 찾아가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는 데다 아이들 학교에 확인해도 이틀째 등교하지 않았다고 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가족 모두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은진양이 25일부터 결석한 것으로 미뤄 24일 밤 안씨가 자녀 3명의 목을 졸라숨지게 한 뒤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2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직장을 잃었고 회사 빚보증을 서준 집마저 압류돼 고통을 받았다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판,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배고프고 창피...방학이 싫어요”

문화일보. 1999. 7 26

서울 O중학교 2학년인 이은영(가명·여.15)양의 아버지는 올 3월 구속됐다. 막노동을 하던 아빠는 일자리가 없자 빚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최근 노점상을 할 예정이었지만 채권자들의 고소로 구속됐다. 은영이네 가족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월 12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 엄마가 공공근로사업에 나가 월 50만원 안팎을 번다고는 하지만 은행

빚을 갚고 6남매와 엄마가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학기중에는 학교 급식을 무료로 받았지만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급식은 중단됐다. 지금은 동생들과 함께 밥을 직접 해먹고 있다. 쌀이야 있지만 반찬이 시원치 않아 균형있는 식단은 아예 꿈꿀 수 없다.

방학은 은영같은 결식학생들에게는 맛있는 점심을 빼앗는 알미운 존재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생활고로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학교 급식비를 지원받는 결식학생을 17만명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겨울방학때 조사된 13만1천3백33명, 지난 2월의 15만1천3백75명보다 훨씬 늘었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이정일(李楨一.33) 부장은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탓인지 지난해 겨울방학보다 이번 여름방학은 결식학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결식학생의 숫자는 줄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결식문제는 정부와 언론에서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사회적인 과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구청등에서는 방학중 결식학생의 점심해결을 위해 지원금을 주거나 인근식당과 연계,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받도록 주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파악한 17만명이 아니고 지난 2월 조사된 약15만명분의 예산만 시·도 교육청에 지급,산술적으로 2만여명에 대한 급식지원에는 공백이 생긴 상태다.

또 점심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마음이 편할리 없다. 단체로 밥을 먹는 학교와는 달리 결식아동들끼리, 또는 식당과 자매결연 형태로 연결돼 점심을 때우는 탓이다.결식학생의 경우 열등감에 휩싸이게 마련. 결식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수치심을 느끼기보단 아예 굶는 걸 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부스러기선교회 빈민여성교육선교원 강명순(姜命順.47) 원장은 “방학중 식당이용 쿠폰이나 식권을 주며 결식학생에게 점심을 해결하라는 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끼의 식사, 한 조각의 빵이 아닌 사랑과 사회적인 관심이 결식학생들에게는 더 중요하다. 식사를 제공하는 것

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상담과 정서치료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게 급선무” 라고 지적했다.

그래도 학생은 형편이 나은 편. 결식학생들은 학교에서 파악되지만 미취학 결식아동은 조사의 거점인 학교를 벗어난 탓에 실태조차 파악할수 없고 따라서 상황이 더 심각하다.

‘가족붕괴형 범죄’ 어찌다 이지경

중앙일보. 1998. 9. 13

“어찌다가 우리 가정이...” IMF사태 등으로 각종 가정해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잇따라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구성원간의 우발적인 갈등과 패륜 수준에 불과했던 ‘가족붕괴형범죄’는 어느새 구성원을 도구화한 계획 범죄로까지 악화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아버지 강종렬(姜鍾烈.42.무숙인) 씨의 자작극으로 밝혀진 경남마산 초등학생 姜모(10) 군 손가락 절단 강도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족붕괴 현상이 어느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구나 이 사건은 지난 7월 울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김용민(金龍民.12) 군 농약 요구르트 독살사건의 용의자로 보상금을 노린 金군의 아버지(50)가 수배된 상태에서 터져나와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특히 姜씨는 미리 보험사로부터 손가락 절단 때의 보상정도를 알아본 뒤 예행연습까지 했으며, 金씨는 아들이 농약을 마신 뒤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태연히 “증거물을 확보해야 한다” 며 백화점을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나 종전의 가족붕괴형 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IMF이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 보험금을 노려

자살하는 사례가 있기는 했으나 돈 몇 푼 때문에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범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이같이 인륜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범죄가 잇따르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IMF에 따른 ‘가족해체와 생계위협’ ‘한국사회의 빛나간 가족주의’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한국사회병리연구소 백상창 (白尙昌) 소장은 “급증하는 이혼과 실직 등으로 입지가 좁아진 아버지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집단적인 퇴행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자식을 범죄 도구화하는 정신병적 행동까지 일어난 것” 이라고 진단했다.

또 서울대 한상진 (韓相震.사회학) 교수는 “소외계층의 생계에 대한 절박감이 극단적인 도덕성 파괴로 표출된 것” 이라며 “그 이면에는 누군가 희생을 해서라도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그릇된 한국 가족주의도 깔려 있다” 고 지적했다.

부산대 심리학과 홍창희 (洪暢希.45) 교수는 “당장의 생활고를 참아 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다 보니 이같은 비극이 일어났다” 며 “IMF 등으로 우리 사회에 급성적인 분노와 우울증상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진단했다.

‘좋은 부모되기 운동본부’ 정송 (鄭松.44) 소장은 “IMF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가정붕괴 현상을 치유하려면 물질·경제적 대중요법만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며 정신, 의식개혁운동 등을 통한 가치관 정립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

“IMF이후 더 번창.. 접대부 43%가 10대 청소년

조선일보. 1999. 9. 2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 접대와 매춘을 시키는 이른바 「영계산업」이 IMF 경제위기 이후 더 번성하고 있다. 경찰의 거듭되는 단속을 비웃 듯,

미성년 접대부와 빼끼(호객꾼)를 축으로 하는 영계업소들은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강지원 위원장은 2일 『IMF 이후 영업이 위축된 유흥업소들이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 끌기에 나서고, 취업이 어려운 10대들이 대거 유흥업소로 유입됐다』며 『가출청소년 10만여명 가운데 80% 이상이 「영계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영계」를 주로 고용하는 단란주점이 IMF 전인 96년 6610개에서 97년 6948개, 98년 6906곳으로 늘어났다(서울시 자료). 검찰이 올해 초 두 달 동안 접대부를 불법 고용한 단란주점 등에서 적발한 여종업원 3049명 가운데 10대 소녀가 1309명으로 42.9%를 차지했다. 유흥업소 접대부의 절반을 미성년 소녀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적발된 10대 소녀의 49%인 590명이 가출 상태였고, 53.7%인 699명이 단란주점에서 일해, 미성년자의 가출이 곧바로 유흥업소 근무와 매춘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방법과 박종운 경사는 『거리낌없이 몸을 팔겠다고 나서는 10대들의 성의식과 어린 여자를 찾는 비뚤어진 기성세대의 술 문화가 「영계산업」을 번성시키는 요인』이라며 『단속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장실직 화풀이 가정 폭력 급증

중앙일보 1998. 4. 26

이달 초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 들어온李明(5)양은 택시기사였던 아버지(30)가 실직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2년 전 엄마와 갈라선 뒤에도 자신을 따듯이 돌봐오던 ‘자상한 아빠’가 올 들어 일자리를 잃고 난 뒤부터는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결핍하면 “너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며 마구 때려 밖으로 내쫓기

일쫓였다. 이럴 때마다李양을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가 채워 주던 동네 주민들이 아버지의 폭력이 극에 달하던 날 아동상담소에 신고했다.

며칠전 한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서울 여성일시보호소를 찾은 주부 崔모(35.서울성동구성수동) 씨도 사정은 李양과 마찬가지로. 노동일을 하던 남편이 일거리가 없어지자 폭력을 휘두르는 날이 차츰 늘었다. 처음엔 “가장(家長)으로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저럴 수도 있겠지, 몇 번 저러고 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자위했지만 崔씨의 몸엔 갈수록 퍼런 멍자국만 늘어가 잠시 ‘피난길’을 선택한 것이다.

최근들어 가장의 ‘화풀이 폭력’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실직·생활고 등에 시달리는 아버지들이 자녀·아내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이들이 수용시설로 긴급 대피하거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를 보호하는 부산시해운대구반송동 사회복지법인 ‘성현 여성의 집’에는 지난 19일 주부 李모(33) 씨가 남편의 몸동이 횡포를 못이겨 여섯살 난 아들과 함께 들어오는 등 현재 25명(어른 13명·자녀 12명)을 보호하고 있다. 이곳에는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74명이 들어와 길게는 2개월 동안 보호를 받고 되돌아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명 안팎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또 광주시 ‘여성의 전화’에는 지난 13일 실직한지 2개월 된 가장이 부인(43)을 무차별 구타, 얼굴 뼈에 금이 가고 이를 말리는 대학생 아들(21)의 손가락까지 부러뜨렸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이곳에는 올 들어 3월 말까지 실직·부부갈등 등으로 상담한 건수가 5백19건으로 지난해 10~12월의 1백92건에 비해 무려 2.7배나 증가했다.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상담소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모두 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김석산(金石山) 아동학대예방협회장은 “실직당한 아버지들이 가족이 자신의 짐이 되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에다 평소 성품이 복합적으로 작

용, 화풀이 차원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폭력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정부가 전국 각 시·도의 여성회관에 운영중인 긴급피난처 (국번없이 1366) 로 연락, 무료로 임시보호·의료서비스·상담 등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돈 때문에 갈라선다”48%

중앙일보 1998. 8. 18

IMF 사태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가정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 이혼 = 지난달말 가출한 뒤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주부 金모 (35) 씨는 현재 이혼수속을 밟고 있다.

화물차 기사로 일하던 남편 (39) 이 IMF 이후 일거리가 줄자 “다른 집 부인처럼 돈을 벌어오라” 고 다그치는 데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정 해체의 가장 단적인 예는 이혼이다.

매달 엇비슷한 수치를 보이던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신청건수가 지난 1월 5백24건, 4월 7백10건, 7월 8백30건 등 날이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가정상담소에 접수된 이혼상담 역시 1월에는 29건에 그쳤으나 5, 6월에는 각각 1백45건, 1백86건으로 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가 있다는 상담자 (4백91명) 가운데 24%가 경제갈등, 15%가 빚, 9%가 생활 무능력을 지적하는 등 전체의 절반 가량이 경제문제를 이혼사유로 내세웠다.

◇ 자녀양육 포기 = 지난 2월과 3월 엄마.아빠가 차례로 집을 나간 뒤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李모 (5) 양은 5개월째 엄마가 달아준 명찰을 가슴에 달고 있다. 명찰을 떼버리면 엄마가 돌아와도 자신을 못알아볼

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문영이 판사는 “최근 협의이혼을 하러온 30대 부부가 자녀 양육문제에 대해 ‘경제적 능력이 생길 때까지 고아원에 맡길 생각’ 이라고 말하더라” 며 “IMF 이후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고 혀를 찼다.

부산, 광주 등 전국 8개 영아일시보호소에는 기업 도산이 급증하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용아동 수가 20~1백%까지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해체를 최대한 막고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한정되던 아동보호시설 수용 규정을 고쳐 지난 1월부터 실직가정 자녀들도 6개월 동안 무료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 부모가출 = 아이를 버리는 대신 부모가 집을 나가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는 더욱 흔하다. 경찰청이 집계한 20세 이상 성인 가출건수는 6월 말 현재 1만2천8백99건.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합한다면 10만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경찰 추산이다. 이들 대다수가 가장이나 주부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내 가출로 고민하는 남성들의 상담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 씩 걸려 오는 남성의 전화 이옥 소장은 “과거 주부 가출은 남편의 외도나 고부갈 등이 주원인이었으나 최근엔 경제적으로 무력한 남편을 못 참거나 자신이 돈을 벌려다 진 빚 때문에 집을 나가는 30대 여성이 대부분” 이라고 말했다.

◇ 가정폭력 = 전문가들은 이같은 가정 해체를 촉발하고 급속히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가정폭력을 꼽는다. 올해 1분기중 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중 구타로 인한 이혼사유는 전체의 3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에 비해 5% 가량 늘었다. 아동학대상담소, 노인의 전화 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IMF사태 이후 자녀에 대한 폭력, 노부모를 구타하는 패륜행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식아동 사회부적응 심각

복지 연합 신문 1999. 3.8

결식아동은 정서불안, 집단 따돌림, 가정해체 등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아 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식아동을 위한 지원은 단순히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먹는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정서 및 가족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각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결식아동들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심한 악취 머릿이 등으로 위생결함문제가 심각하고 중학생이 되도록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사회부적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부스리기선교회 빈민여성교육선교원 강명순 원장은 “빈곤과 가족 해체로 결식아동들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고 부정적인 인격이 형성되기 쉽다”며 “외향적인 성향의 아이들은 거칠고 산만하며 공격적으로 변하고 내향적인 아이들은 우울증, 자폐증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 원장은 “결식아동을 위한 교육, 정서치료, 가족치료를 병행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스리기선교회에서는 실직, 결손, 빈곤가정의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전국 27곳에서 ‘신나는 집’을 운영, 결식아동의 무료급식 뿐만 아니라 학습지도, 정서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봉천동 ‘희망 신나는 집’은 결식아동의 무료급식은 물론 공부방의 대안적 프로그램인 문화학교를 열어 미술, 피아노, 연극·영화 관람, 요리, 글쓰기, 영어, 고궁답사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시켜주고 있다.

전천우 대표는 “결식아동문제는 정서불안, 집단따돌림, 부모의 가출 문제등 밥 한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문화활동을 통해

결식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통해 가정의 해체되는 최악의 상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적인 안정감 속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쉼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생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제아동으로 성장하는 것을 조기에 예방하고 가정 해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초·중·고 결식학생 15만명 넘어

국민일보 99. 3.16

결식학생이 계속 늘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달 현재 전국에서 점심을 굶거나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은 15만 1천 3백75명으로 지난해 초의 1만 9천9백61명(초등학생 제외)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초등학생까지 포함시켜 집계한 결식아동수 11만2천8백48명에 비해서도 6개월만에 3만8천5백27명이 늘어 난 것이며 연말에 파악한 학생수(13만9천2백80명)보다는 1만2천95명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부터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이후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9만5천2백80명이나 돼 급식 실시가 결식아동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급식 실시 이전에 반찬이 부실하더라고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을 해결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급식 실시 이후엔 학교에 일괄적으로 내야 하는 급식비(월 2만5천원 내외)가 부담이 되어 아예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8월 6만9천88명이었던 결식 초등학생 수는 6개월만에 2만6천1백92명이나 늘어나 전체 결식아동 증가폭의 68%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결식학생 증식지원을 위해 올해 4백45억9천4백만원을 투입하는 한편 올 1학기까지 전국의 1천4백69개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4백3억4천8백만원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